단알의 공로를 인정받고 난후 전보다 더 많이 몰려드는 귀족들로 인해 헤르세인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갔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헤르세인은 뜻밖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윌리스 왕태자가 엘리카, 그녀에게 임시가주의 권한을 허용한다는 소식. 하지만 귀족들의 여전한 반발 때문인지 몰라도 그녀를 완전한 가주로서 인정한다는 정식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단알이 안정될 때까지 임시가주로 일임한다는 소식은 그래도 파격적이었다.

윌리스 왕태자가 귀족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있음에도 왜 제 손을 들어줬는지 헤르세인은 이해되지 않았다. 여전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윌리스 왕태자. 그러나 덕분에 단단알이 안정을 되찾아가는 건 시간문제였다. 더욱이 안정을 찾아가는 데에 있어서 전적으로 엘리카, 그녀의 몫인 이상 헤르세인은 걱정하지 않았다.

그녀라면 분명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으니까.

“그럼 전하,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단알의 공로 때문인지 몰라도 확실히 귀족들에겐 강하게 각인됐는지 눈치만 보던 대 귀족들과 중소귀족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막 자리를 떠난 귀족 역시 이름이 알려진 백작가의 가주. 서서히 귀족들이 헤르세인의 또 다른 힘이 되고자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헤르세인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순진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오로지 계산된 움직임.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가문의 미래를 계산해 자신의 힘이 되고자 함을 헤르세인은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헤르세인은 스스로 손을 뻗어오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할 생각은 없었다.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선 그들의 힘이 여전히 필요했으며 설령 서로 이용하는 관계일지 몰라도 르세인에게 있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선 병력이 있는 귀족들의 손을 거절할 이유 따윈 없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하, 이로서 오늘 약속은 전부 끝입니다.”

“그래도 아직 다음으로 미루어진 귀족들과의 약속은 남아 있지 않아?”

“예, 전하. 아직 명단에 적힌 귀족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명단을 훑고서 고개를 끄덕이는 라즐리의 모습에 조금 피곤해진 헤르세인은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움직여 눈을 마사지 하듯 움직였다. 이렇게라도 조금이나 피곤을 덜어내고 싶던 헤르세인은 곧이어 피로에 좋은 차를 준비하는 라즐리의 모습에 생각해두고 있던 말을 꺼냈다.

“내가 준비하란 것은?”

이제 막 찻잔에 찻물을 따라내려던 라즐리는 주전자를 기울이던 행동을 멈추고 곧바로 대답했다.

“아마 내일 중으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피곤하면서도 차분하게 가라앉은 표정 그대로 헤르세인은 어느새 찻잔에 가득 차오르는 찻물의 깊이를 보고 있었다. 그녀가 라즐리에게 준비하라 시킨 것은 다름 아닌 윌리스 왕태자의 탄생일을 맞이한 선물. 본래라면 준비할 이유도 그럴 마음도 헤르세인에겐 없었다. 하지만 적이기 이전에 왕녀로서 왕태자의 탄생일 선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야했기 때문에 헤르세인은 싫어도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

물론 달갑지 않은 준비일지라도 헤르세인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왕태자에게 어울릴만한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였다. 그것을 이제 받기만 하면 될 뿐.

“그림이란 것이 그렇게 사치품일 줄은 몰랐는데.”

예술에 문외한 자신과 다르게 어느 정도 그림에 대한 흥미가 있다는 왕태자의 취미 생활을 들은 바가 있어 헤르세인은 고민 끝에 그림을 선물하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그림을 선물하기 이전에 헤르세인에게 바로 닥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자금과 그림을 보는 눈이었다. 왕태자가 그림을 좋아한다 해도, 어떻게 그림을 선택해야할지 그가 무슨 그림을 좋아할지 거기까지 알지 못해 헤르세인은 하루 동안 그림에 관한 고민을 해야 했었다. 그러나 다행이도 그레이스 후작이 헤르세인의 고민을 들어 바로 도움을 주었다.

"조만간 수도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립니다. 그곳에 수십 점의 그림들이 전시될 예정이고 꽤나 이름이 알려진 화가들의 그림도 볼 수 있다하더군요. 이번기회에 전시회에 가시어 예술의 눈을 익혀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왕실의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 혼자서 가시는 것보다 제 딸과 함께 가신다면 뒤에서 떠드는 귀족들은 없을 겁니다."

후작의 도움과 조언 덕분에 헤르세인은 약속 날을 잡아 아이르리스와 함께 전시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직접 보게 된 전시회의 모습은 무척이나 정적이고 간소했지만 막상 벽에 걸린 그림을 보면 간소하기 보단 정적인 느낌이 묵직하게 느껴질 만큼 헤르세인은 다양한 그림들을 볼 수 있었다.

색감이 강렬하면서도 간결하게 그려진 그림. 또 멀리서보아도 화려하게 느껴질 만큼 캔버스를 꽉 채운 그림. 그리고 무채색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듯 하나의 낙서처럼 그려진 그림 역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헤르세인은 어느 정도 그림을 아는 아이르리스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회에 나열되어 있는 그림들을 전부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중 아이르리스의 설명을 통해 유독 하나의 그림에서 시선을 뗄 수 없던 헤르세인은 그 그림을 콕 집어 대답했다.

"이 그림으로 선택해도 될까요?"

"어머, 전하께선 이 그림이 마음에 드세요?"

헤르세인이 가리킨 그림은 하얀 캔버스에 검은 선으로 들판을 그려 하나의 집으로 향하는 아이가 그려진 그림이었다. 그리고 들판위의 집 옆으로 우두커니 홀로 서있는 나무는 마치 사계절을 담아내듯 초록 물감, 빨간 물감, 노란 물감, 그리고 앙상한 가지뿐인 검은 물감으로 칠해져 있어 유독 아이와 4가지 색이 담긴 나무에 시선을 가게 만들었다.

"마음에 들기보단 그냥 다른 그림들 보다 유독 시선이 가는 그림이라서요. 당신이 보기엔 윌리스 왕태자에게 적합하지 않는 선물일까요?"

무미건조한 헤르세인의 물음에 아이르리스는 미소와 함께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뇨, 의외로 놀랐어요. 그림 볼 줄 모른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하께서 선택하신 그림은 이 전시회에 전시되고 있는 그림 중, 가장 비싸게 팔릴 예정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말인가요?"

그저 시선이 끌려 골랐을 뿐인데 하필 비싸게 팔릴 예정일 그림일 줄 누가 알았을까. 그러나 다른 그림을 선택하려던 헤르세인을 아이르리스가 고개를 저으며 만류했다.

"전하께서 처음 고르신 그림으로 선물하세요."

"하지만 이 이상으로 그레이스 후작에게 폐를 끼치는 건…."

"어머, 전하.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고작 그림 한 점 산다고 저희 가문은 몰락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폐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물론, 저희 아버지께서는 전 재산을 바칠 각오로 전하께 도움이 되고자 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그림일수록 왕태자전하께 선물할 때 귀족들이 입을 다문답니다. 그림 보는 눈이 있는 귀족은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림과 거리가 먼 귀족들은 그저 비싸고 이름 있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전부라 생각하는 자들이니까요. 그러니 전하께선 잘 선택하신 그림이죠."

결국 그림 값은 언젠간 꼭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헤르세인은 처음 시선이 간 그림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레이스 가문을 통해 그림이 전달된다는 소식을 들은 이상, 헤르세인은 더 이상 선물 쪽에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차를 음미할 것도 없이 그저 목을 축일 생각으로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있던 헤르세인은 이제는 쉴 생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찰나였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에 잠시 찻잔에 향해 있던 헤르세인의 시선은 문 쪽으로 옮겨졌다.

“이 시간에 누구지?”

라즐리가 고개를 기울이며 조금 서두르는 걸음으로 문을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 문을 열자 라즐리는 다시 헤르세인을 향해 고개를 돌려 문 밖에 익숙한 손님이 찾아왔음을 알렸다.

“빈센트 왕자 전하께서 오셨습니다.”

“빈센트가?”

헤르세인이 어서 빈센트를 들이라는 눈짓을 하자, 라즐리는 문을 활짝 열어 빈센트를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전하.”

“저기… 누님, 저 들어가도 될까요?”

왜 그런 것을 묻는지 알 수는 없으나 헤르세인은 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어서 들어오길 눈짓했다. 허락을 받은 빈센트가 실내로 들어오면서 라즐리는 조심히 문을 닫고 테이블 가까이 멈춰 섰다. 그리고 빈센트가 앉기 쉽도록 의자를 당기고 다시 밀어주자 가볍게 자리에 앉은 빈센트를 보며 헤르세인 역시 가볍게 입을 뗐다.

“무슨 일이니? 이 시간에 찾아오는 것은 처음인 것 같구나.”

“저, 그게….”

“빈센트?”

막상 이곳에 온 목적을 대답하려던 빈센트는 어쩐지 손가락을 꾸물거리며 은근히 망설이는 기색을 보여 헤르세인은 무언가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입을 몇 번이고 작게 오물거리며 목소리를 내길 망설이던 빈센트는 결국 결심했는지 드디어 입을 뗄 수 있었다.

하지만 막상 빈센트의 목소리에서 나온 대답은 무언가 있을 무거운 주제가 아닌, 헤르세인에 관한 것이자 빈센트의 작은 욕심이었다.

“그, 그냥 누님이 보고 싶어서요… 이 시간에 찾아오지 않으면 어쩐지 누님을 계속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뭐?”

설마 그게 진짜 이유가 인가 싶어 헤르세인은 다시금 빈센트를 쳐다보았지만 빈센트는 자신이 뱉어낸 말이 꽤나 부끄러웠는지 얼굴을 붉히며 헤르세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헤르세인은 차분히 생각했다.

빈센트가 왜 자신을 굳이 찾아왔는지. 그리고 이 늦은 시간에 찾아와 저를 보고 싶다하는 어린 동생의 모습에 자신의 무심함과 요 며칠 바빠 전혀 빈센트를 생각하지 않은 것에 헤르세인은 깊이 반성했다.

“미안하구나, 그동안 내가 너를 부를 새도 없이 많이 바빴어. 혹시 많이 화가 났니?”

그러자 오히려 빈센트는 두 손을 크게 저으며 당치도 않는 말인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까지 했다.

“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누님한테 절대 화 같은 거 나지 않습니다!!”

“그래? 하지만 왜? 오늘 네가 이렇게까지 찾아와 주지 않았더라면 네 존재를 잊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리고 지금에서야 말하는 거지만 나는 너에게 좋은 누이는 못 되 주었지 않니?”

“…아뇨. 누님은 무척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꼭 무조건 적으로 챙겨주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에겐 다 상황이란 것도 있고 아무리 같은 형제일지라도 서로를 챙겨주는 형태도 성격도 각자 다르니까요.”

또박또박 제 할 말을 똑 부러지게 대답하는 빈센트를 보며 헤르세인은 오랜만에 동생의 전체적인 모습을 쭉 볼 수 있었다. 같은 성에 살고 있음에도 단알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빈센트트를 못 본지 꽤 됐었다. 하지만 고작해야 일주일이 지나고 하루가 더 지난 시간.

그런데 자신이 생각한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듯 빈센트에게 흘러가는 시간도 빨랐는지 헤르세인은 키가 조금 더 커진 것 같은 빈센트가 눈에 들어왔다.

여전히 빛이 나는 금발머리와 영롱하게 빛나는 푸른 눈동자. 하지만 어린 동생이라 할지라도 빈센트는 점점 골격을 갖추며 그저 어린아이가 아닌 소년에서 청년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언제일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언젠가 빈센트는 어린티를 벗어던지고 완전한 성인이 되어 반려를 맞이해야할 날이 곧 다가올지도 몰랐다.

어머니가 없는 지금, 그 자리를 대신해 빈센트의 성장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몫.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헤르세인은 빈센트를 지켜내고 싶었다. 어머니만큼 애정을 줄 수 없을지라도 이제 자신에게 남은 거라곤 복수와 하나 뿐인 피붙이 동생 밖에 없었으니까.

“빈센트 이쪽으로 오렴.”

“예.”

어색한 자세로 금방 헤르세인의 눈앞에 멈춰 선 빈센트가 아직까지는 작은 키로 헤르세인을 살짝 올려보고 있었다. 헤르세인은 조심스럽게 손끝을 들어 점점 금발머리의 부근으로 향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빈센트의 머리에 안착한 그녀의 손길. 조심스럽게 아기 새 다루듯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헤르세인은 한 번도 빈센트에게 말하지 못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보고 싶거든 내 눈치를 보지 말고 언제든지 찾아오렴.”

“…예? 그, 그게 정말입니까?”

“응. 그래도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말아주렴. 나는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성격도 아니고 내 성격이 썩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찾아오는 것 말고도 고민… 같은 게 있다면 언제든 찾아와 상의를 해도 좋아. 너의 누이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 테니까.”

빈센트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짓은 헤르세인이 보아도 영 어색했다. 하지만 어색한 손짓임에도 기분 나쁘기보다 오히려 눈웃음을 지으며 기쁜 표정으로, 그리고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밝게 대답하는 빈센트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어쩐지 방금 전까지 몸을 피로하게 했던 기분이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오히려 가슴이 조금씩 데워질 만큼 그 느낌을 여운을 오래도록 남기고 싶어, 헤르세인은 늦은 밤이 되도록 처음으로 빈센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피곤을 잊은 채, 밤을 보낼 수 있었다.

윌리스 왕태자의 탄생일 연회를 위해 왕성은 이미 일주일 전부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아직까지 전쟁이란 상처의 여운이 남아있는 때. 그럼에도 카타리아 왕후는 윌리스 왕태자 탄생일 연회를 밀어 붙일 수밖에 없었다.

제 아들이 싫다고 반대 의견을 낸다 해도 이토록 무리하게 탄생일 연회를 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하나. 이 연회를 기점으로 그녀는 눈엣가시 같은 헤르세인을 없애기 위함이었다.

“내가 준비하라 한 것은 어찌 되었지?”

“여기 있습니다, 폐하.”

테이블 위로 다빈느 후작이 내민 것은 작은 시약병에 담긴 정체불명의 투명한 액체. 카타리아 왕후는 그것을 손에 들어 몇 번이고 좌우로 굴려보며 기울임에 따라 움직이는 투명한 액체를 보며 붉은 입술을 움직였다.

“이것이 분명 ‘그것’이겠지?”

“예, 폐하. 결코 사브레 왕국에서 구할 수 없는 ‘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또 다시 테이블 위로 비슷한 크기의 붉은 액체가 담긴 시약병이 내밀어 지자, 왕후는 손에 들고 있던 시약병을 내려 뚫어지도록 두 개의 시약병을 주시했다.

“독과 해독제… 이것으로 정녕 헤르세인 고 계집을 처리할 수 있단 말인가?”

“예, 그리고 폐하의 말씀대로 저의 가문의 사병들을 몰래 왕성의 병사들로 위장시켜두었습니다. 또한 후의 대비를 위해 언제든지 움직일 사병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움직이면 되겠군.”

카티리아 왕후가 다빈느 후작에게 특별히 주문하여 손에 넣은 독과 해독제. 사브레 왕국은 물론 그 어느 제국과 왕국에서조차 쉽게 구할 수 없는 독의 이름은 ‘아케인’ 그리고 비슷한 이름으로 불리는 또 다른 독 ‘비아케인’

언뜻 보면 무색무취에 그저 투명한 물과도 같은 아케인. 그러나 아케인은 마심으로서 각혈과 동시에 가사상태를 일으키는 독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케인을 마신 이는 절대로 깨어날 수 없었다.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어떤 해독제조차 효능이 듣질 않는 위험한 독이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조합까지 어려워 아케인 독을 쓰려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딱 한 가지, 아케인의 독을 해독시킬 해독제는 존재했다. 바로 비아케인이라 불리는 아케인과 비슷한 이름의 독.

비록 아케인처럼 투명한 무색무취의 액체가 아닌 시큼한 냄새가 나는 붉은 액체이나 독이 독을 중화시킬 만큼 비아케인은 아케인 독을 유일하게 해독시키는 해독제의 작용이 있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독으로 하여금 카타리아 왕후의 완전히 헤르세인을 파멸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외람되오나 왕후폐하, 한 가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다빈느 후작이 곱슬 거리는 콧수염을 쓸어내리며 조심스럽게 묻자, 카타리아 왕후는 여전히 오만한 눈으로 어디 한 번 해보라는 눈짓으로 후작에게 대꾸했다.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보았지만 굳이 왕후폐하께서 이 독을 드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전에 왕후폐하의 위험부담이 큽니다.”

그녀가 주시하고 있는 독의 주인은 따로 있었다. 바로 헤르세인이 아닌, 카타리아 왕후 자신. 이번 크게 열릴 탄생일 연회에서 귀족들이 모인 모두의 앞에 그녀는 독을 마실 생각이었다. 제 몸을 희생해서라도 시답지 않은 연기일지라도 헤르세인을 파멸시키기 위해 뭔들 못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그녀에겐 그녀만의 신념이 있었다.

“독의 실험을 했으니 비아케인을 마신다면 내가 마신 아케인 독은 중화될 것이 아닌가? 그래, 그대의 말처럼 이것은 위험부담이 큰일이지.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헤르세인 고 계집을 왕실에서 아예 몰아낼 수 있단 말이네.”

“하오나 폐하....”

“헤르세인 고 계집을 죽일 수만 있다면 난 무엇이든 할 수 있네! 또한 난 결코 내 아들의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힐 생각 따윈 없어!! 겨우 여기까지 내 스스로 왔고! 내가 손에 넣은 권력일세! 아무것도! 그저 허울뿐인 왕후의 자리만 떠넘긴 국왕폐하가 아닌! 온전히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넣은 권력이라 말이네!! 결단코! 나는! 더러운 피를 손에 묻혀 왕좌에 앉은 폐하마냥 윌리스를 그렇게 만들 생각 따윈 없네. 내 아들만큼은! 결코 폐하와 똑같아선 안 된단 말일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윌리스 왕태자에게만큼은 더러운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것이 왕후의 신념이자 목표. 억지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제 아들을 위해, 왕태후 자리를 위해 버텨온 의지이기도 했다.

“이제 누가 죽고 누가 웃을지에 대한 결단의 시간이 온 것이야. 내일… 내일일세. 내일이 바로 헤르세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최후의 시간 말일세.”

새빨갛게 칠해진 손톱위로 살이 움푹 페인 곳에 핏방울이 솟아났다. 바르르 떨며 주먹 쥔 손이 핏기가 없을 만큼 그녀가 쥔 주먹에는 분노와 권력에 대한 집착과 야망, 그리고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게 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몇 주 째, 칩거하듯 침실 밖으로 한발자국 나가지 않은 케시아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마치 무엇에 쓰인 사람처럼 도통 침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케시아를 옆에서 보필하는 루네즈 역시 걱정 어린 얼굴로 몇 번이나 그녀를 침대 밖으로 끌어당기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한 탓에 이제는 지켜보는 것이 루네즈에겐 고작이었다.

“왕녀전하, 오늘도 한 끼를 드시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몸이 상하기라도 하시면―”

“시끄러워. 혼자 있고 싶으니 썩 내 침실에서 나가.”

“하지만 전──.”

“나가라는데도!!”

“음식은 테이블 위에 두고 가겠습니다. 그럼.”

결국 루네즈는 준비한 점심식사를 테이블에 두고서 조용히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루네즈까지 완전히 나가서야 조용해진 침실. 어두운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케시아로선 매번 침실에 칩거하면서도 빛을 가리는 커튼을 쳐내는 것을 잊지는 않았다.

하지만 어두운 밤이 돼서까지 빛 속에 있어야만 그나마 안정될 수 있던 케시아는 여전히 손톱을 물어뜯으며 다시금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7번째 제물을 모르가나에게 건네주었던 그 날. 도저히 7년이란 시간을 인내할 수 없던 케시아는 모르가나에게서 좀 더 빠른 방법을 찾고자 했다. 말이 7년이지 케시아에겐 턱 없이 길고 지나가지 않을 시간 같았다. 거기다 7년 동안 100명의 제물을 어떻게 채운단 말인가? 아직 10명을 채우기도 전에 한계가 온 케시아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전하께 있어서 7년이란 시간은 100명의 제물을 모을 충분히 남아도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이토록 다급해 하시니 또 다른 방법을 전하께 알려드리도록 하지요.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하나, 가장 위험할지도 모르는 최후의 방법을."

최소한의 시간, 그리고 가장 빠른 방법. 하지만 가장 위험할지도 모를 최후의 방법. 모르가나는 음산히 웃으며 방법을 설명하기 전, 케시아에게 루네즈를 내보낼 것을 권유했고 그녀의 말을 따라 케시아는 단 둘이 남자마자 즉시 설명한 것을 요구했다.

"네 말대로 내 전속시녀를 내보냈다. 이제 너와 나, 단 둘이지. 그러니 빨리 말해! 그 방법이 대체 무엇인지!!"

"예, 그전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전하께선 정말로 이 하얀 단지 안에 든 죽은 이가 다시 한 번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지금 나랑 농담이나 하자는 것이냐?"

"아닙니다. 단지… 폐하께서 얼마나 이 단지에 든 죽은 이를 살리고 싶은지 그 절박함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만에 하나 지금이라도 두려우시면 계약을 파기해도 좋고 그냥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아직까지 의식이 진행된 것은 아니니까요."

언제 가져갔는지 모르가나의 손에 들린 하얀 단지가 보인 순간, 케시아는 그녀가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꺼냈는지 오히려 들을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아 케시아는 얼굴을 일그러트렸다. 고작해야 제물을 7명 채웠다 하더라도, 하녀들을 제 손에서 치워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살린다는 이념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던가.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다. 돌아가고 싶어도 자신의 손은 이미 더렵혀졌다. 그러니 방법은 하나 뿐. 시궁창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 자신이 더럽혀질 지언정 사랑하는 그가 깨끗하면 그 뿐이었다. 그 만이 저를 보아주면 되었다.

"다시 한 번 말하지. 난 어쭙잖은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오직 너만이 살릴 수 있기에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 내게 그 방법을 말해라. 어서 방법을 말해!!"

케시아의 발악과도 같은 목소리에 그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던 모르가나는 그제야 만족어린 표정을 하며 쇠를 긁는 듯한 기괴한 웃음소리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오히려 케시아의 기분을 맞춰주고자 들고 있던 하얀 단지를 낡은 탁자에 내려놓기까지 했다. 그리고 제 키보다 큰 지팡이를 움직이며 무뎌진 몸을 어딘가를 향해 움직이던 모르가나는 무언가를 들고서 케시아의 앞에 섰다.

"자, 받으시지요."

"방법을 말하라 했더니, 이건 또 뭐지?"

휘어질 듯한 긴 손톱을 보이며 모르가나가 케시아에게 내민 것은 보랏빛의 액체가 든 작은 유리병이었다. 그 유리병을 받아든 케시아의 표정은 여전히 의문인 채로 모르가나에게 설명을 요구하자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어 빨려 들어갈 정도로 눈을 부릅뜨는 그녀의 모습에 케시아는 뒤로 움직이는 것도 잊은 채, 숨을 들이킬 수밖에 없었다.

"이건 제가 특별한 재료로 주술을 부려 만든 아주 특별한 약입니다."

"약…?"

"예, 이 약을 마신 자는 아주 강력한 잠에 빠져 외부에서 가해지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약이라는 뜻이지요. 제가 전하께 알려드릴 방법은 이것입니다."

정확히 모르가나는 케시아의 눈앞에 약을 먹는 시늉을 하는 동시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을 잡은 것 같은 손동작을 보이며 제 심장을 찌르는 행동을 보였다. 그리고 음산히 올린 입꼬리와 함께 모르가나는 상당히 고조되는 눈빛을 빛내며 케시아에게 어쩌면 잔인할지 모를 최후의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 나라의 지존이자 태양, 그리고 전하의 부친이신 국왕폐하에게 그 약을 마시게 하여 제게 심장을 가져다주십시오."

"...뭐?"

케시아는 자신이 혹시 잘못들은 게 아닐까 싶어 흔들리는 눈으로 모르가나를 쳐다봤지만 모르가나는 기분 나쁘도록 음산히 웃고 있을 뿐, 케시아의 대답을 기다릴 뿐이었다.

"저는 전하께 가장 빠르면서도 빨리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전하께 알려드렸습니다. 설마 이렇게 친절히 방법을 알려드리기까지 했는데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걸고 여기까지 왔다 말씀하지 않았나요? 전하?"

"하, 하지만… 아버지의 심장이라니? 지금 나를 능멸하는 것이냐? 어째서 그를 살리는 방법에 내 아버지의 심장이 필요하단 말이냐!!"

"폐하께서는 죽은 아라네아 왕비를 누구보다도 가장 총애하고 사랑하셨다지요? 그리고 전하께서조차 질릴 만큼 죽은 아라네아 왕비를 향한 폐하의 집착이 상당하지 않았는지요?"

제 어머니를 두고서 그 누구보다 오히려 왕후처럼 왕비를 사랑했던 아버지. 어떻게 모르가나가 그것을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케시아는 반박할 수 없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으니까. 그저 흘긋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아버지가 얼마나 죽은 왕비를 향해 사랑을 갈구하고 집착을 했는지 케시아는 잘 알고 있었다.

"그, 그건…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 아버지의 심장을──."

"상관이 있기에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한 여인을 지독히 사랑하나 보답 받지 못하는 사랑으로 집착이 되어 썩어 버린 심장. 전하께서 사랑하는 이를 살리기 위해선 그만한 가치의 썩은 심장을 가진 사내의 심장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국왕폐하의 심장이 제일 적격이지요. 그러니 선택하십시오, 전하. 전하께서 그토록 살리고 싶어 하는 사랑하는 이를 살릴지, 아님 사랑하는 이를 포기하고 당신의 어여삐 여기는 국왕폐하를 택할지."

한참이나 물어뜯던 손톱에서 입술을 떼어낸 케시아는 마치 소중한 보물처럼 한 시도 품에서 떼어놓지 않은 작은 유리병을 쥐고 있던 또 다른 손을 펼쳤다. 녹안의 눈으로 비치는 음산한 색의 보랏빛 액체. 그리고 손은 여전히 떨고 있는지 유리병에 담긴 보랏빛 액체가 지진처럼 흔들리는 모습에 케시아는 눈을 꾹 감으며 숨을 크게 들이켰다.

“루드비카....”

차마 입에 담지 못한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결정해야만 했다. 아버지를 져버리고 사랑하는 이를 살리기 위한 폐륜의 길을 택할지. 사랑하는 이를 포기하고 아버지를 위한 길을 택해야할지.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하고 있었던 건지도 몰랐다. 단지 처음 있는 일이기에 결정하지 못했을 뿐.

어느새 케시아의 떨림은 조금씩 진정됐다. 그리고 유리병 속에 담긴 액체가 완전히 떨림이 멈춘 순간 케시아의 눈빛은 보랏빛 액체처럼 음산히 빛을 내며 나직이 입술을 열었다.

“후회 따위 하지 않아. 이건 전부 다 그 사람을 위한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헤르세인의 치장준비를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자 라즐리는 잠시 본성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일손이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레인 궁에는 치장에 사용할 도구들이 턱없이 부족했기에 본성에서 따로 필요한 것들을 챙겨야 했던 그녀는 이제 도구들을 챙기고 레인 궁을 향해 돌아가려 던 중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마주치게 된 라피스의 모습에 라즐리는 움직이고 있던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라피스?”

“누나!”

처음에는 시종의 신분으로 그리고 견습기사의 신분으로 잠깐 본성에 소속되어 있던 라피스는 그레이스 후작과 소가주인 길버트의 도움으로 완전히 후작가의 소속이 되면서 보다 안전함 속에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서로가 기거하는 곳이 다르다보니 마주치기가 어려웠던 라즐리와 라피스는 서로 반가운 얼굴을 하며 어느새 서로 마주하고 있었다.

“여긴 어쩐 일이야? 그것도 이른 아침부터?”

반가움은 물론 이렇게 이른 시간에 본 것은 처음이기에 라즐리는 다급히 물을 수밖에 없었다.

“후작각하께서 소가주님께 따로 내리신 명령이 있어서 잠시 다른 기사님들과 들렸어. 그보다 누나, 무척 바쁜 모양이야? 엄청 허겁지겁 움직이는 것 같던데?”

그야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피스는 그레이스 후작가의 소속인 견습기사. 그리고 라즐리는 헤르세인의 전속시녀. 더불어 헤르세인의 유일한 전속시녀인 이상, 모든 일을 전담할 수밖에 없던 라즐리는 평소보다 몸과 손이 모자를 판이었다.

“지금 레인 궁에 소속된 전속시녀는 나하나 뿐이니까. 아무튼 그럼 너는 지금부터 쭉 다른 기사님들과 계속 여기에 있는 거야?”

라피스가 고개를 저으며 바로 대답했다.

“아니. 나는 견습 신분이라 잠깐 기사님들을 돕고 후작저로 돌아가.”

“그렇구나… 그래도 아쉽다. 간만에 네 얼굴도 보게 됐는데….”

아쉬움이 담긴 미소를 그리며 라즐리가 대답하자 살짝 코끝을 훌쩍인 라피스 역시 아쉬움이 담긴 어깨 짓으로 씩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백작저에 있을 때보다 지금 생활이 가장 낫지 않아? 그리고 지금 누나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백작저에서 일할 때 보다 지금이 가장 좋아 보여. 누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어서 안심도 되고.”

“…그런가? 난 그렇다 쳐도 넌 몸조심해야해. 너는 위험한 검을 다루는 기사신분이잖아.”

“에이, 아직 진검도 못 다루는 견습 신분인 걸?”

“그래도 조심하라 이거지. 아무튼 몸 조심히 하고 다른 기사님들께 피해가 안가도록 열심히 해. 알았지?”

제법 전보다 듬직해진 동생의 모습이나 그래도 누이로서 동생이 걱정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라즐리는 그나마 손이 가벼웠던 오른 손을 들어 라피스의 머리를 쓰다듬기 위해 손끝을 움직이려 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또 다른 할 말이 있어 보이는 라피스의 목소리에 라즐리의 손끝은 제자리에서 멈추고 말았다.

“아, 그보다 누나.”

“응?”

방금 전까지 해맑게 웃고 있던 라피스는 어느새 미간을 살짝 찡그린 채로 주변을 조심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중요한 귓속말을 하듯 라즐리에게 주변을 경계하며 헤르세인의 곁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부탁했다.

“웬만하면 전하의 곁에서 떨어 지지마.”

“갑자기 그건 왜….”

이유를 모르겠단 표정으로 라즐리가 조용히 묻자 다시 한 번 주변을 살펴보던 라피스는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기사님들의 보조도 있지만 아무래도 왕실의 큰 행사다보니 원한을 가진 귀족이나 타국에 의해서 암살자를 보내는 일이 간혹 있나봐. 원래라면 연회장을 둘러보는 일은 원래라면 왕실 소속의 기사이지만 우리가 모시고 있는 헤르세인 왕녀전하는 거의 윌리스 왕태자 전하의 적이나 다름없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후작각하께서 아주 잠시 동안 아침의 왕실 동태를 확인할 겸 우리를 보내신 거거든. 연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대다수의 귀족들의 사병은 중무장을 하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연회가 시작되면 무장하지 않은 호위 기사님들이 헤르세인 왕녀전하를 보필할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 아무튼 누나도 조심해!”

“응, 조심할게. 전하께도 말씀드릴게. 고마워, 라피스.”

“그럼, 나중에 시간되면 내가 직접 만나러 갈게 누나!”

수고하라는 손을 흔들며 어느새 시야에서 멀어지는 남동생의 모습을 라즐리는 제자리에 잠시 동안 멈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완전히 라피스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될 때,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던 라즐리는 라피스가 말처럼 오늘은 정신 바짝 차릴 생각을 하며 서둘러 레인 궁을 향해 움직였다.

잠이란 것은 헤르세인에겐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다. 그저 눈을 느릿하게 감았다 떴을 뿐인데 순식간에 날이 밝아오는 해를 보는 순간, 헤르세인의 치장준비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하지 않는 향유와 산뜻한 약초향이 첨가된 목욕. 그리고 라즐리에게서 마사지를 처음으로 받아본 헤르세인은 그동안 피로에 누적되어 있던 결린 어깨를 어느 정도 풀어낼 수 있었다.

목욕과 마사지가 끝나고 다음은 드레스용 맞춤 속옷과 속옷을 완전히 가릴 속 드레스와 겉 드레스를 입는 일. 처음 드레스를 고르기 전까진 헤르세인에겐 드레스는 아무래도 좋았다. 그저 옷장에 있는 드레스 중 하나를 입고 연회에 참석할 생각이었던 그녀는 바로 며칠 전, 레인 궁에 들이닥쳐 드레스에 관해 열변을 토한 아이르리스 덕에 뜻하지 않은 드레스를 맞춰야 했다.

"아무리 그래도 얼마 남지 않은 연회인데 입던 드레스를 입고 참석하시겠다니요? 그럴 순 없습니다, 전하!"

"하지만 드레스 하나를 맞추자고 큰돈을 소비할 바에야 차라리 옷장에 두고도 잘 입지 않는 드레스를 다시 입는 편이…."

"안됩니다. 안 돼요 전하. 안 그래도 이번 연회는 윌리스 왕태자 전하에게도 특별한 연회이겠지만 전하께도 특별한 연회이기도 합니다."

"저한테… 말인가요?"

도저히 모르겠단 표정으로 헤르세인이 무심히 고개를 기울이자 반대로 아이르리스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예, 이번 연회는 전하께서 공식적으로 단알의 공로를 받은 것과 더불어 그저 이름뿐인 왕녀의 신분이 아닌, 처음으로 직계혈통으로서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연회는 전하께 있어서 귀족들의 콧대는 물론, 윌리스 왕태자 전하의 기를 누를 찬스이지요. 전하께선 반드시 그 자리를 위해서라도 새로 맞춘 드레스를 입으셔야 합니다!"

이미 치밀하게 계획을 짜두기라도 했는지 아이르리스는 가문에서 고용한 디자이너를 직접 데리고 와 본래라면 느긋하게 맞출 드레스 치수를 급하게 맞출 수밖에 없었다. 덕분에 새로운 드레스를 맞추게 된 헤르세인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드레스를 받게 된 것은 물론, 그에 어울리는 장신구까지 선물 받아 현재 라즐리의 손끝에서 치장되고 있었다.

처음엔 너무 화려한 것만 고르는 아이르리스의 모습에 과연 드레스 디자인을 맡겨도 되는지 헤르세인은 걱정이 됐었다. 하지만 그녀가 고른 안목은 보기보다 깊어, 어느새 드레스를 완벽히 갖춰 입은 헤르세인은 여느 참석한 행사 때 보다 좀 더 화려하게 꾸며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제 성격과 취향을 고려해준 듯한 살짝 무개감이 있는 어두운 계열의 검붉은 색의 드레스. 그리고 에메랄드와 가넷이 장식된 황금빛의 장신구들.

밝은 색보다 무개감이 있는 색을 선호하던 헤르세인에게 있어서 아이르리스가 골라준 드레스는 화려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만족스러웠다. 물론 완전한 무개감이 있는 색이라 할 수 없는 어느 정도의 고채색을 띄는 색감의 드레스였으나 처음 입어보는 색감의 드레스였기에 헤르세인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곧바로 머리 손질을 시작하는 라즐리의 손길에 한참을 입 다물고 있던 헤르세인은 나직이 입술을 뗐다.

“라즐리.”

“예, 전하.”

“혼자서 준비하기엔 힘들지 않아? 아이르리스의 말처럼 그래도 그레이스 후작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조금 더 네가 편했을 텐데….”

헤르세인의 머릿결을 빗으며 정성스럽게 손질하는 라즐리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전에도 헤르세인을 꾸민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꾸며본 것은 처음이기에 라즐리는 긴장되면서도 치장이 완성될수록 아름다워지는 제 주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긴장되는 것도 있었지만 혼자서 누군가를 온전히 꾸며보는 것은 라즐리의 또 하나의 꿈이기도 했다. 때문에 고개를 저으며 라즐리는 정말 괜찮다는 웃음기 어린 목소리로 밝게 대답했다.

“전혀요. 사실 이렇게 제가 책임을 지고 제 주인을 완벽히 꾸며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물론, 전에도 한번은 꾸며드렸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해보는 건 처음이라 서요.”

“....”

“제 꿈이었어요. 백작저에 있을 당시, 아가씨의 전속하녀가 되어 제가 온전히 아가씨만을 보필하고 저의 재주를 부려 아가씨가 기뻐할만한 치장을 꾸며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전하 덕분에 제 꿈을 이루었어요. 그러니 저 혼자서 힘들지 몰라도 제 능력껏 해내고 싶어요. 또, 전하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치장해드리고 싶어요.”

라즐리의 손짓은 무척이나 상냥했다. 상냥하면서도 빠른 손짓으로 어떤 형태로 완성될지 모를 그녀의 손짓. 헤르세인은 더 이상, 그녀의 집중을, 흐름을 깨고 싶지 않아 말을 아끼고 머리 손질이 완성되길 기다렸다.

그렇게 한 시간 넘게 공을 들여 머리를 손질하던 라즐리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는 동시에 완성되었음을 알리자, 조용히 눈을 감고 있던 헤르세인은 눈을 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떠세요? 전하? 이 머리 모양은 동 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헤어스타일인데 제가 여기서 살짝 변형하여 땋은 머리에 많은 포인트를 줘봤어요. 아직은 부족한 실력이나 완전히 동 제국의 땋은 머리를 마스터하지는 못했어요. 괜찮으세요?”

동 제국 사람은 물론, 그들의 머리모양을 본 적 없는 헤르세인으로선 감이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옆머리에 열기를 가하여 웨이브를 넣어준 것은 것과 그리고 뒷머리 윗부분을 반 정도 땋아서 머리를 틀어 올린 것은 물론, 아래로 땋지 않은 웨이브 진 머리는 그대로 어깨 아래로 흘러내려 우아함을 돋보이게 만들었다.

“정말 고마워 라즐리. 머리 모양이 너무나 예뻐.”

“별말씀을요. 하지만 전하 아직 마지막이 남았답니다. 다시 눈을 감아주세요. 이제 화장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헤르세인은 다시금 눈을 감아 얼굴에서 느껴지는 붓끝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다. 목욕에서부터 마사지, 그리고 드레스와 머리, 얼굴 치장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저 느낌상으로 아침의 해가 더 이상 오전이 아닌 오후가 되 가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 뿐. 헤르세인은 눈을 감은 채로 조용히 마지막 치장이 끝나길 기다렸다.

“다됐습니다, 전하.”

“....”

“어떠세요? 드레스 색이 무개감이 있다 보니 눈 쪽에 힘을 주었어요. 물론, 눈 쪽에 너무 힘을 주면 인상이 자칫 강해보일 수 있어서 또렷하면서도 그윽하게 보일수있도록 했습니다. 혹시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바로 고치겠습니다.”

전혀 고칠 곳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재주에 또 한 번 놀라울 따름이었다. 케시아처럼 매일은 아니더라도 고작해야 몇 번 받아본 얼굴 치장. 하지만 전에 한 옅은 화장보다 오히려 지금, 그녀가 해준 화장이 처음으로 마음에 든 헤르세인은 거울에 비치는 자신을 모습을 몇 번이고 바라보았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아 보이면서도 전혀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굽히지 않을 것 같은 고고함이 돋보이는 모습. 헤르세인은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나 라즐리에게 대답했다.

“이정도면 충분해.”

모든 치장을 끝마치고 헤르세인은 가까운 테이블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천으로 감싸진 커다란 물건을 향해 주시하고 있던 헤르세인은 이내 손을 움직여 물건을 가리고 있던 천을 거두었다.

부드럽게 흘러내린 천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거대한 액자. 그리고 눈에 익은 물감과 거친 붓질. 바로 얼마 전 아이르리스와 함께 전시회에서 그녀가 구매한 사계절 나무와 아이가 그려진 그림이었다.

그림을 구매하기 위한 대금 때문에 전시회에서 후작가로 전달될 수밖에 없던 그림은 다시금, 후작가에서 전달되어 헤르세인이 무사히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로서 이 그림은 다시 소유주가 바뀌게 될 것이었다.

바로 윌리스 왕태자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생일 선물로서.

덕분에 예상치 못한 금액이 그레이스 후작이 대신하여 깨지게 되었지만 헤르세인에게 있어 마땅히 그림 말고는 선택할 것이 없었다. 어차피 선물을 따로 주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가졌을 윌리스 왕태자.

하지만 이 그림은 윌리스 왕태자에게 있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몰랐다. 그가 가진 권력을 되찾기 위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간신히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지난날들의 행적들. 헤르세인은 잊지 않았다. 처음 이곳에 왔던 자신의 모습을, 처음 보았던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까지.

이 복수가 과연 자신의 독이 될지 타인을 향한 검 날이 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분명한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장기전을 각오해야한다는 것 뿐. 그러나 분명 각오를 오랫동안 다졌음에도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떨리는 손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긴장이 되는 건가….’

살짝 진하게 칠해진 붉은 입술이 메말라갔다. 마치 오아시스가 말라버린 사막처럼 긴장 때문인지 서서히 목까지 타오르는 헤르세인은 바짝 타들어가는 목구멍에 침을 삼키며 이번엔 깊게 호흡을 뱉어냈다.

“후우....”

깊게, 그리고 길게 호흡을 한 탓일까. 서서히 긴장이 사라지고 손의 떨림이 멈춰가고 있음을 느낀 헤르세인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오른 손을 들어 제 목에 걸린 펜던트를 들어 조심스럽게 엄지로 쓸어내렸다.

엄지 손끝에서 느껴지는 태양의 모양과 초승달의 모양. 그리고 금속의 차가움까지. 펜던트를 쥐는 손에 힘이 들어갈수록 정신이 맑아지는 것은 물론 한결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 헤르세인은 눈을 감아 마지막으로 기도하듯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두 사람을 향해 속삭였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당신들의 자리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어요.’

두 사람을 향한 맹세와 제 자신에게 세뇌처럼 외치는 맹세는 끝났다. 그리고 완전히 멈춰버린 긴장까지. 헤르세인은 펜던트를 다시 옷 속에 집어넣어 다른 목걸이로 목 주변을 가리고선 고개를 들어올렸다.

째깍째깍 움직이는 시계의 초침 소리. 유난히 크게 들린다면 착각일까. 그러나 여유로워진 몸가짐과 달리 시계바늘은 다급히 연회의 시간에 맞춰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전하, 이제 연회장으로 가실 시간입니다.”

“가자, 라즐리. 연회장으로.”

또각또각 움직이는 구두소리의 시작으로 헤르세인의 발걸음은 점점 굳게 닫힌 문을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라즐리가 채 열기도 전에 스스로 문고리를 잡고 두 개의 문짝을 활짝 연 헤르세인은 그 어느 때 보다 꼿꼿한 걸음으로 본성을 향해 움직였다.

윌리스는 시녀들이 가져다주는 맞춤 연회복을 갈아입고서 연회장에 가기 전, 일찍이 자신을 찾은 손님들을 맞이하며 잠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직 연회의 시작까지는 여유로운 시간. 시녀가 따라주는 차를 한 모금 머금으며 윌리스는 또 다른 귀족에게서 축하의 인사를 몇 번이고 받았다.

“탄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왕태자전하.”

“축하의 인사는 이제 되었소. 왕성 밖의 민심을 생각하면 내 탄생일의 연회는 열지 않는 편이 좋았지.”

탄생일도 탄생일이지만 안 그래도 전쟁이후의 전란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은 때였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자신의 탄생일이랍시고 밀어붙인 카타리아 왕후로 인해 윌리스는 피곤해질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제 자신이 나서도 무엇에 한번 꽂히면 어떡해서든 밀고나가려는 고집스러운 그녀의 성정. 그럼에도 끝내 윌리스는 마지막까지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오직 저 하나만을 바라보고 산, 어머니이기에 아버지에게 조차 외면 받은 그 세월이 험난했기에 그 이유로 지독히 권력에 집착하는 어머니를 보고서 윌리스는 차마 그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고집은 고집, 자신의 생일과는 별개의 일이었다. 이번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탄생일 연회를 열겠다는 그녀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안 된다고 거절하려던 윌리스는 끝내 제 풀에 지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윌리스, 이번만이다. 이번만큼은 이 어미의 말을 들어다오."

"하지만 어머니, 지금 바깥의 민심이 어떤지 아십니까? 아직까지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이 막심합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우리 왕국이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고작 제 생일을 챙기고자 왕실에 성대한 연회를 여시겠다는 겁니까?"

"다음부터는 꼭 네 말대로 따르마. 하지만 이번만큼은 이 어미의 말을 따라다오. 윌리스 부탁이다. 응? 제발."

일주일 동안 진행하겠다던 무리한 요구를 수정해 3일로 타협을 본 윌리스는 결국 원치 않은 연회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어미가 꼭 너를 왕좌에 앉혀주마.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난 네가 그 자리에 앉는 날을 보고야 말 것이다. 반드시."

협상이후, 윌리스는 무언가의 집념에 사로잡히듯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카타리아 왕후의 모습을 보았다. 왜 혼잣말하듯 그렇게 말했는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지만 늘 습관처럼 자신이 왕좌에 앉기를 말하던 왕후의 모습을 알기에 윌리스는 그저 단순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왜 때문일까. 그 말이 마치 이명처럼 아직까지 생생히 귓가에 맴돌고 있는 이유는. 윌리스는 결국 상념을 지워내듯 살짝 고개를 저으며 찻잔을 들어 가볍게 목을 축였다. 그리고 이때, 지금의 여유로운 상황을 노리기라도 했는지 현재 윌리스를 지지하고 있는 크레이그 백작이 헛기침을 하는 것으로 모두의 주목을 유도했다.

“크흠, 그러고 보니 헤르세인 왕녀 말입니다. 오랫동안 슬럼가에 살아서인지 몰라도 왕실의 돌아가는 상황과 왕위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에른스트 왕태자의 직계혈통일지 몰라도 왕녀가 왕위를 잇겠다니요? 저는 아직도 그런 무식한 발언을 한, 왕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귀족들의 근간도 흔들릴 것입니다.”

그 말을 뱉은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 크레이그 백작의 발언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별다른 생각이 없어보이던 몇몇의 귀족들이 눈에 띄게 주변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특히나 윌리스의 눈치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물론, 이제는 한두 명씩 크레이그 백작을 옹호하는 발언조차 나오자, 한참 동안이나 근처에서 그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있던 또 다른 백작, 아르펜소 백작이 입을 떼는 것으로 다시금 모두의 주목을 받았다.

“크레이그 백작의 말에 일리는 있소. 허나, 시대는 계속 바뀌어가고 만에 하나 명망 높은 가문에서 계속 사내아이가 아닌 계집아이가 태어난다면? 그땐 어찌 하실 생각이오? 가문의 피를 잇지도 않은 데릴사위를 계속 들여 악순환이 되도록 가주에 앉히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이겠소?”

“하지만 아르펜소 백작. 제 아무리 가문에 계집아이밖에 없다하더라도 가주의 자리에 아들이 아닌 딸에게 잇게 한다니? 허면 가주에 앉은 딸아이의 혼인 문제는 또 어찌할 것이란 말이오?”

이 문제를 꺼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처럼 서로의 의견이 맞을 듯 하면서도 반대에 부딪치는 의견이 갈리자 결국 조용히 이 상황을 그저 방관하고 있던 윌리스가 찻잔을 내려놓음으로서 끝이 났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될 듯 싶군.”

“저, 전하.”

“모처럼 왕실의 분위기를 바꾸고자 연 연회인데 그대들의 토론으로 인한 말싸움은 연회가 끝난 뒤에 해도 늦지 않소.”

크레이그 백작의 의도적인 발언이었을지 몰라도 덕분에 윌리스는 귀족들의 상황을 대거 파악할 수 있었다. 의도치 않았듯, 의도가 되었든 헤르세인의 발언으로 인해 귀족들은 더 이상 태평히 후계의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현재가 될지, 혹은 미래가 될지 귀족들은 저마다 알지 못했다. 다만 누구보다 가문의 명맥이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자들.

비단 귀족들뿐만이 아닌, 언젠간 왕실의 문제로 닥칠 수는 있었다. 하지만 윌리스에겐 결코 달갑지 않은 문제였다. 까마득히 기억나지 않을 어렸을 적이라면 몰라도, 제 아버지가 국왕의 자리를 앉고 나서부터 윌리스는 줄곧 후계의 길을 걸었다. 오로지 아버지의 뒤를 잇기 위해, 제왕학은 물론 그에 걸맞은 왕태자로서 몸가짐이며 정치며 모든 것을 지금까지 습득한 윌리스에겐 결코 왕좌의 자리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었다.

“슬슬 시간이 다됐군. 자리에서 모두들 일어나도록 하지.”

윌리스는 말을 아꼈다. 지금의 자신의 생각을 말해도 더욱 혼란만 가중될 뿐, 특히 이런 날일수록 왕위에 대한 입씨름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럼 모두 연회장에서 다시 보도록 하게.”

조용히 저를 보고 있는 귀족들을 놔두고서 먼저 자리를 떠난 윌리스의 발걸음은 무겁지도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연회장의 문 앞. 윌리스의 입이 떨어지기도 전에 눈치껏 경비병이 문을 열려 했으나, 곧이어 도착한 또 한명의 왕족으로 인해 경비병은 서둘러 고개를 숙였다.

“와, 왕녀전하.”

경비병의 목소리를 따라 자연히 시선이 옮겨진 윌리스의 눈동자에 익숙한 한 사람의 모습이 비쳤다. 잔잔한 바다와도 같던 그의 일상에 작은 파도로 하여금 폭풍을 일으킨 한 사람.

“헤르세인.”

제게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윌리스는 단 한 순간도 놓치지 않았다. 이제는 흠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완전한 왕녀의 모습. 하지만 왕녀라 할지라도 윌리스에게 있어 그녀의 존재는 형제도 그 무엇도 되지 못했다.

그저 어느새 부턴가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정적이 되었을 뿐.

“너 먼저 들어가겠느냐?”

문득 헤르세인의 시선이 느껴진 것 같았으나 윌리스도 헤르세인도 서로를 향해 시선을 두지 않았다. 오직 문 앞을 향해 두 사람의 시선이 닿고 있을 뿐.

“아니요, 오늘의 주인공은 왕태자 전하가 아니십니까, 그러니 먼저 들어가십시오.”

윌리스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대충 경비병에게 눈짓을 주며 문을 열라는 신호를 보내자, 은근히 이 숨 막히는 상황을 서둘러 벗어나고 싶었던 경비병이 큰 목소리로 하여금 윌리스를 향해 문을 활짝 열었다.

“위대한 작은 태양이신 윌리스 왕태자 전하께서 납십니다!!”

연회장으로 가기 전, 카타리아 왕후는 다빈느 후작에게서 받은 두 개의 독을 준비했다. 그리고 몰래 시녀에게 시켜 준비하라 이른 크리스탈의 와인잔. 모든 치장을 꾸미고 완벽히 준비했음에도 그녀의 시선은 오직 와인잔에 시선이 닿고 있었다.

“....”

한참을 말없이 와인잔만 주시하고 있던 카타리아 왕후는 이내 작게 숨을 들이키고서 준비가 다 된 손끝을 움직여 하나의 독을 쥐었다. 이제부터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투명한 독. 숨을 다시 한 번 들이키는 동시에 마음을 먹은 그녀는 뚜껑을 열고서 한 방울이 아닌 작은 병에 담긴 투명한 액체를 전부 따라냄으로서 와인잔은 마치 물기에 씻어낸 듯 투명한 물방울들이 스며들고 있었다.

투명한 독이기에 와인잔이 변색되는 일은 없었다.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와인에 독이 타져 있음을 알아채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또 다른 독인 비아케인을 품속 깊숙이 챙기고서 카타리아 왕후는 와인잔을 가져온 시녀에게 당부했다.

“이 와인잔에 미세하게 새겨진 표식을 기억하고 반드시 내게 줘야한다. 다른 누구에게도 결코 주어선 안 돼. 알겠느냐? 이 와인잔 하나가 너의 미래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예, 왕후폐하.”

시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가 다시 내민 와인잔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허리를 깊게 숙여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를 찾았다.

“들어와라.”

문이 열리고 찾아온 이는 다름 아닌 케시아. 그동안 윌리스의 연회와 헤르세인 문제만으로 정신이 없었던 그녀는 케시아를 찾지 않았다. 물론 시녀를 통해서 무슨 일인지 요즘 들어 침실에만 꼼짝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듣긴 했으나 그녀에게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윌리스였다.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거사를 두고서 케시아를 맞이한 카타리아 왕후의 눈빛은 무척이나 무미건조했다.

“얼굴 꼴이 말이 아니구나. 시녀를 통해서 네 상태에 대해선 대충 들었단다. 그래서 네 오라비의 연회에는 참석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케시아, 기운을 차린 것이냐?”

“…예, 어머니.”

하지만 기운을 차린 사람치곤 케시아의 목소리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던 카타리아 왕후의 눈은 살며시 좁혀 졌다. 병이 걸린 사람마냥 핼쑥해진 것은 물론, 목소리에 조차 영 기운이 없어 보여 정말로 그 상태로 연회에 참석할 수 있을지 카타티라 왕후의 눈빛이 집요하게 캐묻자, 케시아의 핏기 없는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움직이고 싶어요, 어머니. 그래야 정신이 말짱할 것 같아서요. 정말로요.”

움직이는 건 그렇다 치고 무엇에 정신을 차리고 싶은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일일이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기에 카타리아 왕후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이 일의 매듭을 지었다.

“그래, 알겠다. 케시아, 앞으로 나는 헤르세인 문제로 당분간 너에게 온전히 신경 써줄 여력이 없단다. 그러니 내가 신경 쓰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제부터 네 오라비를 위해 행동거지 하나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예, 어머니.”

케시아를 윌리스만큼 아끼는 것은 똑같았지만 그 우선순위가 카타리아 왕후에겐 윌리스가 먼저였다. 왕후의 힐난이 섞인 목소리가 울렸음에도 케시아의 눈빛은 평소보다 음울히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거사를 앞둔 카타리아 왕후에겐 딸의 모습 따윈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조차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관심은 윌리스와 왕위 뿐.

그녀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 연회장으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옮겼다.

“윌리스는 벌써 연회장에 도착했을 것이다. 너도 여기까지 왔으니 같이 가겠느냐?”

“아니요. 먼저 가세요. 저는 천천히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래? 알겠다. 너무 늦지는 말거라.”

무심히 케시아를 지나치는 카타리아 왕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 보다 살짝 다급해 보이면서도 유난히 움직이는 구두소리가 컸다. 그러나 시녀가 열어주는 활짝 열린 문을 통해 어느새 드레스 자락도 안보일 정도로 빠르게 나가버린 카타리아 왕후의 흔적은 더 이상 없었다.

그리고 실내에 홀로 남게 된 케시아의 눈빛은 여전히 음울해 있으나 카타리아 왕후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어두운 서늘함이 담겨 있었다. 이곳에 오기까지 제 자신에게 수천 번을 묻고 답하며 선택한 발걸음.

케시아는 카타리아 왕후가 나가버린 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미처 그녀에게 얘기하지 못한, 아니 그녀에게 일부로 설명하지 않은 자신의 비밀을 허공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다.

“어머니… 어머니는 앞으로 계속 제게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그래야… 내가 그를 살릴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악기를 들고 악보에 적힌 음표를 따라 연주하는 악사들의 표정에는 신중함이 담겨 있었다. 연회가 시작되는 동시에 기본적으로 하나의 배경처럼 깔리는 잔잔한 선율. 그리고 중반부로 연회가 진행되면 남녀가 손을 잡고 춤을 추는 왈츠의 선율까지. 그러나 그 중반이 오기까지 악사들에게 시선을 주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연회에 빠질 수 없는 악사들의 연주가 기본적인 장신구 이듯, 연회에 참석한 귀족들 모두 제각각 편한 자리에 멈춰 서로의 근황을 물으며 이야기의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보다 아까 봤나요? 윌리스 왕태자 전하 다음으로 헤르세인 왕녀께서 바로 등장하신거 말이에요.”

“네 봤어요. 저 같으면 무서워서 한참 있다가 연회장에 나타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당당히 바로 뒤에서 나타나다니….”

“근데 그게 진짜 사실인가요? 헤르세인 왕녀와 윌리스 왕태자 전하의 후계싸움 말이에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쪽으로는 집에서 말씀을 잘 안하셔서….”

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은 스캔들이었다. 특히 귀족들 사이에서 어떤 가문과 어떤 가문의 불륜거리나 사생활 얘기는 한 달 동안 떠들어 다닐 이야기보따리나 다름없었지만 오히려 더욱 흥미를 이끄는 건 따로 있었다. 바로 왕족.

왕족만큼이나 귀족들의 흥미를 사로잡게 할 만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제 아무리 높은 작위에 앉은 한 가문의 가주라 해도, 결국은 태생이 귀족인 몸. 왕족과 귀족은 한끝 차이인 것 같으면서도 그 근본이 전혀 다르기에 귀족들에게 있어 왕족은 한편으론 선망과 동경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오늘 열린 연회의 주인인 윌리스 왕태자와 헤르세인 왕녀. 이보다 더 재미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저 죽은 아라네아 왕비의 사생아일거라 생각한 이름뿐인 왕녀가 알고 보니 선대 국왕의 친손녀이자 죽은 에른스트 왕태자의 친딸인 헤르세인 왕녀. 거기다 피가 가장 진하게 물려받은 직계혈통인 왕녀였다.

더욱이 그녀의 혈통이 증명된 동시에 단알의 공로는 물론 윌리스 왕태자와 왕위를 두고 서로 경쟁한다는 소식은 수도의 귀족들은 물론, 수도의 소식이 느린 지방귀족들조차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왕녀로선 파격적인 행보나 다름없었다.

그 누구도 감히 생각해보지 못한 그녀의 꿈. 그리고 도전.

요즘 젊은 공자와 공녀들 사이에선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다. 만약, 헤르세인 왕녀가 왕위를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귀족가의 공녀들 역시 가주의 자리에 앉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물론 아직까지 보수적인 귀족들 사이에선 여인이 가주 자리에 앉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귀족들은 많았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현재 가주라는 자리를 짊어지고 있는 이들은 대다수가 중년과 노년의 나이를 앞둔 귀족들. 그리고 언젠가 그 뒤를 잇게 되는 것이 현재의 젊은 후계자들과 아직 공부가 한창중인 공자들과 공녀들이었다.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언제까지 가주의 자리에 장남만을 무조건 적으로 앉히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 귀족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고 겉으론 티내지 않으나 헤르세인의 말에 따라 시대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가문의 변화를 주고자하는 귀족들도 있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직은 소수일 뿐. 윌리스 왕태자와 카타리아 왕후가 손에 쥐고 있는 왕실의 영향력이 상당하기에 대다수의 귀족들은 그저 조용히 실권을 쥐고 있는 카타리아 왕후 쪽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헤르세인 왕녀전하.”

“오셨군요.”

전에는 비웃음이 가득한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면 이제는 눈치 보는 은근한 시선을 받고 있던 헤르세인은 때마침 나타난 그레이스 후작 덕분에 귀족들의 시선에서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레이스 후작 뿐 만이 아닌, 아이르리스와 길버트 소가주까지 참석한 덕에 헤르세인은 조금 편해진 마음으로 그레이스 일가를 맞이할 수 있었다.

“어머, 역시 제가 보는 눈이 있었다니까요? 전하, 무척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골라드린 드레스 만족하신지요?”

빙긋 웃으며 드레스 자락을 잡고 살짝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아이르리스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 모두의 시선을 받게 된 건 부정할 수 없더군요. 그래도 아이르리스, 그대가 더 이 자리에서 아름답게 보입니다.”

“어머나, 칭찬 감사드립니다. 전하. 근데 이이는 제게 예쁘다거나 아름답다고 한마디 안 해주는 거 있죠?”

그때, 길버트가 작은 목소리로 해명하는 것이 보였으나 서로 알콩달콩 싸우는 모습에 헤르세인은 서서히 긴장이 풀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보다 빈센트 왕자전하께서는─.”

“누님!”

그레이스 후작이 빈센트를 찾을 때, 때마침 헤르세인을 부르며 나타난 어린 목소리에 헤르세인은 어느새 가까이 다가온 어린 동생을 맞이할 수 있었다.

“누님, 벌써 와계셨습니까? 제가 좀 더 빨리 왔으면 에스코트를 할 수 있었는데….”

에스코트를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았는지 빈센트가 시무룩한 표정을 짓자, 헤르세인은 살짝 흐트러진 빈센트의 앞머리를 손끝으로 정돈해주며 대답했다.

“그래서 급히 뛰어왔나 보구나. 앞머리가 흐트러져 있어.”

“예? 아! 제, 제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헤르세인의 손길이 내심 기뻤는지 수줍은 얼굴을 하며 빈센트는 빙긋 웃고 있었다. 많이 건들 것도 없이 그저 손짓 두세 번 정도로 앞머리를 정돈한 헤르세인은 다시 들리는 그레이스 후작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보다 그림은 잘 받으셨습니까?”

“예, 흠집하나 없이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 맞춰 윌리스 왕태자 전하께 드리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면 윌리스 왕태자에게 바칠 선물 증정식이 있을 예정이었다. 그때를 맞춰 그 시간이 오기를 조용히 기다리며 헤르세인은 여전히 귀족들의 시선을 받은 채, 그레이스 일가와 얘기를 나누는 것은 물론, 간간히 제게 건네 오는 귀족들의 인사를 받으며 헤르세인은 시간이 가길 기다렸다.

그리고 악사들이 연주하는 현재의 곡이 바뀌고 다른 연주로 넘어가게 되면서 대망의 시간이 왔음을 알리는 음악소리에 헤르세인은 그레이스 일가와 본격적으로 움직여 윌리스 왕태자에게 다가갈 때였다.

“우리의 위대한 달이신 카타리아 왕후폐하께서 납시오!!”

거대한 회장의 문이 열리면서 카타리아 왕후가 당당히 들어오는 모습이 비쳤다. 귀족들뿐만이 아닌, 그녀가 아직 왕실의 웃어른인 이상, 예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헤르세인은 허리를 굽혀 그녀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언제 윌리스 왕태자의 곁으로 다가갔는지 그녀는 그 어느 때 보다 당차고 붉은 입술을 끌어올리며 회장이 떠나도록 목소리를 높여 고했다.

“내 아들이자 이 나라의 하나뿐인 왕태자 윌리스의 탄생일 연회에 와준 모든 귀족들에게 감사함을 표하오!”

카타리아 왕후의 등장으로 차분해져 있던 실내의 분위기는 조금 들떠 있었다. 왕후의 등장도 한몫했지만 아마 이 시간만을 기다린 건 귀족들일 수도 있었다. 윌리스 왕태자를 위해 준비한 귀족들의 선물. 그중에서도 누가 가장 돈을 많이 쓰고 어떤 진귀한 선물을 바칠지가 최대의 관심사였다.

윌리스 왕태자에게 선물을 바치고자 줄을 잇는 귀족들의 행렬은 끊임없었다. 그리고 일찍이 선물을 바치고 제자리에 돌아와 관람석에 앉은 것 마냥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몇몇의 귀족들의 시선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다.

과연 그 선물의 값어치가 얼마나 나갈지에 대한 호기심이 말이다.

“전하, 저의 가문에서 준비한 선물이옵니다. 부디 요긴하게 써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가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늙은 귀족이 바친 것은 다름 아닌 아름답게 세공되면서도 단단하게 다듬어진 검 한 자루였다. 헤르세인은 멀찍이서 노인이 바친 검을 보며 특별할 것이 없어 보였지만 정작 주변에서 워낙 호들갑을 보인 탓에 헤르세인의 시선은 여전히 검 한 자루와 표정변화가 없는 윌리스 왕태자에게 향해 있었다.

“세상에! 저 검은 100년 전, 마르케우스 대장장이가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든 최후의 검이 아닙니까?! 그 이후로 저 검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알려졌는데 설마 여기서 볼 줄이야!”

모두가 요란을 떨며 윌리스 왕태자가 받은 검 한 자루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다. 거기에 마치 이런 선물쯤은 당연히 받아야 됨을 생각하고 있는지 카타리아 왕후의 미소는 더욱 짙어져 있었다. 하지만 카티리아 왕후의 미소와는 별개로 그저 솜씨 좋은 대장장이가 만든 역작이라며 단순히 생각하고 있는 윌리스의 표정은 담백하기 그지없었다. 대충 검 한 자루를 눈대중으로 훑던 그는 대충 고개를 까딱이며 인사를 전했다.

“고맙네. 잘 사용하도록 하지.”

그리고 다시 바뀐 귀족들의 행렬. 여전히 다양한 선물이 전달될수록 귀족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다. 어떤 선물에는 놀란 눈을 하며 값어치를 매기기 일쑤였고 어떤 선물에는 흥미 없는 식은 눈 을하며 지루해하거나 또 어떤 선물에는 설마 하는 눈으로 그것이 선물이냐며 각자 비웃기 바빴다.

그렇게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무심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헤르세인에게 아이르리스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루하시죠? 전하.”

“…아이르리스.”

“한잔 하시겠어요?”

때마침 쟁반에 담긴 샴페인을 나르고 있던 시종이 근처를 지나가자 아이르리스가 시종을 불러 세워 양 손에 은은한 금빛이 감도는 샴페인 두 잔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한 잔을 헤르세인에게 내밀자 그 잔을 가볍게 받아든 헤르세인은 무심히 샴페인을 보며 아이르리스의 이어지는 목소리를 들었다.

“저는 어서 빨리 이 지루한 행사가 끝났으면 해요. 물론 시각적으로 보는 즐거움은 있겠지만 이렇게 귀족들이 모여든 자리는 이상하게 숨이 막힐 만큼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나처럼 이런 행사에 참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해 초대 거절권은 없나 하고요.”

지루한 분위기를 풀기 위함인지 아이르리스 덕분에 옅게 입꼬리가 올라간 헤르세인은 샴페인 한 모금을 들이킬 수 있었다. 혀끝을 톡 쏘는 맛과 은은하게 입안을 맴도는 샴페인 특유의 맛. 하지만 그 뿐이었다. 약간의 갈증은 해소될 수 있어도 헤르세인은 샴페인을 전부 들이킬 생각 같은 건 없었다. 아이르리스의 말처럼 이 지루한 행사가 어서 끝나고 자신의 궁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아이르리스, 그레이스 가문이 준비한 선물은 뭔가요.”

“아, 우리 가문이 준비한 선물은 고대 서적이에요. 뭐… 거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선물이지만요.”

“고대서적?”

헤르세인의 눈에 살짝 흥미가 생기자 아이르리스는 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고대서적에 관해 설명했다.

“고대서적이라 해도, 막 전설 속에 전해지는 그런 서적은 아니에요. 물론 손에 넣기 힘든 건 다름없지만 지금의 현실을 따지자면 고대서적은 그저 관상용에 불과하니까요. 그리고 고대어를 해석할 학자들은 전무하다시피하고요. 한 마디로 고대서적은 그저 있어 보이는 수집용에 불과하지요.”

그림과 별반 다를 게 없어보였다. 예술에 별다른 흥미가 없는 헤르세인으로선 수집용으로 그림과 각종 예술품들을 비싼 돈 주고 모으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어째서 그런 쓸데없는 것에 값비싼 돈을 주고 굳이 수집용 목적으로 모으려는지.”

헤르세인이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르리스는 별다르게 없다는 얼굴로 설명했다.

“수집욕이란 그런 거예요. 남들이 갖지 못한 걸 같고 싶은 것. 그것이 얼마나 비쌀지 몰라도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우월감? 예술품이든 장신구든 비싸면 비쌀수록, 희귀하면 희귀할수록 그것을 손 안에 넣는 다는 것은 결국 자기만족이죠. 수집욕과는 별개로 욕구란 그런 것이니까요.”

자기만족과 욕구. 처음엔 그저 아무래도 좋았던 왕녀란 자리는 헤르세인에겐 너무나 버거웠었다. 하지만 욕구도 욕심조차 없던 왕녀의 자리. 하지만 지금의 헤르세인에겐 이 자리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왕좌란 자리를 꼭 손에 넣을 이유가 있었다.

복수.

어머니를 죽인 그들을 용서할 수 없기에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린 그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 제 멋대로 그 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앉은 국왕을 끌어내기 위해선 그 왕좌란 것이 헤르세인에겐 필요했다.

어쩌면 이것이 자기만족일수도 욕구일지도 몰랐다. 설령 그것이 파멸로 치닫는 욕구일지라도 헤르세인은 그것을 손에서 내려놓을 생각 따윈 추호도 없었다. 그것만이 이렇게 살아 숨 쉬는 원동력이자 복수의 도착점이었으니까.

그때, 샴페인의 양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 유리잔을 덩그러니 쳐다보던 헤르세인은 무의식적으로 윌리스 왕태자를 향해 시선이 옮겨졌다. 하지만 정작 눈을 마주친 건 윌리스 왕태자가 아닌 그 근처에 앉아 있던 카타리아 왕후.

눈을 마주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헤르세인의 표정에는 한 치의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무슨 생각인지 쥐 잡아 먹은 듯한 붉게 칠해진 입술로 깊게 입꼬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 헤르세인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다.

‘왜 저렇게 웃고 있는 거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통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난 카타리아 왕후의 모습에 헤르세인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에게로 닿고 있었다.

“모두 잠시, 주목해 주겠나?”

그 순간 카타리아 왕후가 종을 치자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면서 시종과 시녀들이 수십 개의 크리스탈 와인잔과 와인병을 들며 줄을 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와인잔을 모두에게 나눠주는 동시에 헤르세인도 얼떨결에 와인잔을 받아들 수밖에 없었다.

“오늘, 내 아들의 탄생일을 기념하기 이전에 이 자리에 참석한 그대들을 위해 준비한 나의 특별한 선물이네.”

카타리아 왕후가 신호를 보내기 위함인지 박수 두 번을 치자, 그 신호에 맞춰 와인병을 들고 있던 시종과 시녀들이 제각각 와인잔을 든 귀족들에게 조심히 극상의 자수정 빛 와인을 따라내고 있었다. 그리고 귀족뿐만이 아닌, 헤르세인은 물론 윌리스 왕태자와 조용히 자리에 참석해 있는 케시아 왕녀, 마지막으로 카타리아 왕후까지 와인잔에 한가득 자수정빛 와인을 담아내는 것을 끝으로 카타리아 왕후가 액체가 채워진 와인잔을 높게 들어 모두에게 건배를 올렸다.

“몬테올 왕국과의 전쟁으로 우리의 상처가 아직까지 아물고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네. 또한 한 나라를 책임지는 국모로서 내 아들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연회역시 무리하게 진행시키고 있음을 인지하는 바이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찌해야겠나? 왕실과 귀족들을 단결시키고 다시 이 왕국을 굳건히 지켜야 하지 않겠나? 이 자리는 분명 윌리스 왕태자를 위한 자리이나, 그만큼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모두에게 아들의 뜻을 전하고 싶은 바이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이 사브레 왕국이 다시 우뚝 서, 예전의 광명을 다시 찾을 거라고! 지금은 잠시 흔들릴지 몰라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한다면! 사브레 왕국은 결코 무너질 수 없음을!!”

모두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카타리아 왕후의 말처럼 아직까지 전쟁의 전란이 가시지 않은 시기였다. 거기에다 헤르세인의 혈통 문제가 밝혀지면서 아직까지 수도의 분위기는 안정으로 접어들지 못했다. 더불어 백성의 민심은 계속 바닥을 향해 있고 안 그래도 수도 곳곳이 흉흉한데, 왕태자의 연회까지 겹쳐 이번 연회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귀족들조차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그동안 불안정하던 귀족들의 마음을 안정시켰다. 언제까지고 지속되는 전란만을 생각할 수 없는 노릇. 이럴 때 일수록 귀족들이 힘을 합쳐 사브레 왕국의 명성을 찾는 일이 귀족들에겐 가장 우선순위였다.

“맞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귀족들이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노릇! 사브레 왕국을 위하여 다시 우리가 뭉쳐야 할 때입니다!”

“옳소!”

“맞소!”

하나둘씩 카타리아 왕후의 말에 감하되어 동조하는 귀족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이제는 잔을 높이 올리자 그 모습을 쭉 지켜보던 카타리아 왕후는 짙게 입꼬리를 올려 다시 한 번 잔을 높게 치켜세운 채 건배를 외쳤다.

“사브레 왕국의 부흥을 위하여! 건배!!”

“건배!”

“건배!!”

그녀의 목소리에 맞춰 건배를 외친 뒤, 잔에 든 액체를 마시는 귀족들의 표정은 한결 풀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 썩 표정이 좋지 못한 윌리스는 뜬금없이 와인잔을 내세워 건배를 외친 왕후의 모습을 좋게 볼 수 없었다. 분명 자신의 생일 연회였다. 물론 그 틈에 끼어든 왕후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불만이 있는걸 아니었다. 주목을 온전히 빼앗긴 불만이 아닌, 자신의 생일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왕후의 생각지 못한 행동이 윌리스의 어이없게 만들었다.

‘설마 이러시려고 어머니께서는….’

하지만 왜일까.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윌리스는 또 다른 위화감을 느꼈다. 마치 무언가 더 있을 것 같은 위화감이. 그때, 윌리스를 상념에서 꺼내는 왕후의 목소리가 다시금 회장 안에 울려 퍼졌다.

“그러고 보니 오늘 이렇게 기쁜 날, 헤르세인 왕녀는 윌리스 왕태자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냐?”

그녀의 목소리로 다시 모두의 주목을 받게 된 헤르세인은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은 와인잔을 지나가는 시녀에게 건네주고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침 삼키는 소리조차 주의를 할 만큼 적막이 감긴 연회장. 그리고 오직 헤르세인의 구두소리만이 회장 안을 울렸다.

하나씩 짧은 계단을 밟아 어느새 윌리스 왕태자와 카타리아 왕후, 그리고 케시아 왕녀가 앉아 있는 단상 앞까지 도착한 헤르세인은 윌리스 왕태자의 눈을 마주하며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입술을 뗐다.

“전하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의 정성을 다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살짝 숙인 고개를 들어 헤르세인이 근처에 있던 시종에게 눈짓을 했다. 그리고 시종이 바쁘게 잠시 연회장 바깥으로 나가 다시 돌아오면서 천에 감싸인 커다란 물건을 또 다른 시종과 함께 단상까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정확히 윌리스 왕태자의 맞은편 탁상에 거대한 물건이 올려 지자 시종이 천을 거두어 그것의 실체를 확인시켰다.

“그림이구나.”

“무엇을 좋아하실지 몰라 선물을 고르던 찰나, 그림을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들어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윌리스는 헤르세인이 선물한 그림을 찬찬히 훑었다. 검은 선의 들판위로 지어진 집과 집 근처에 있는 4가지의 색으로 구분되어 홀로 우뚝 솟아난 나무 한그루. 그리고 집을 향해 나아가는 작은 아이의 모습. 배경이 칠해지지 않아 자칫 밋밋해 보이는 그림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단조로우면서도 마치 4계절을 담은 듯한 4가지의 색상을 담은 나무 한그루가 유독 화려하게 보여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었다. 아무리 정적일지라도 헤르세인이 선물한 그림에 대체로 만족한 윌리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안목이 생각보다 괜찮구나. 마음에 든다. 이 그림은 따로 보관토록 하마.”

“마음에 드시니 다행입니다.”

이제 선물도 건넸으니 원래 자리로 돌아갈 생각이던 헤르세인은 이제 막 걸음을 떼려던 찰나였다.

“잠깐, 돌아가기 전에 헤르세인 왕녀, 내게 잔을 채워주겠느냐?”

무슨 생각인지 도통 알 수 없는 얼굴로 입꼬리를 여전히 올린 채, 이제는 빈 잔을 채워 달라 요구하는 왕후의 모습이 헤르세인의 돌아가려던 동작을 멈추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빈 잔을 채우고 싶지 않아도 그대로 무시하며 돌아갈 수 없는 일. 어쩐지 뒤가 수상했지만 그녀가 웃어른 이상, 건방진 모습으로 물러날 수 없기에 헤르세인은 바로 눈앞에 있는 와인병을 들어 조심스럽게 왕후가 비워낸 와인잔에 자수정 빛의 액체를 반 정도 채웠다.

그리고 빈 잔이 채워지면서 카타리아 왕후의 목소리는 따라내는 와인처럼 퍽이나 자연스러웠다.

“네가 채워준 이 와인, 달콤히 마셔주마. 암, 비록 핏줄은 달라도 내가 왕후인데, 내 딸이나 다름없는 네가 따라준 와인이나 다름없지 않겠느냐.”

“....”

왕비가 짙게 웃으며 건배 같은 시늉을 보인 후, 한 모금 와인을 들이켰다. 그리고 와인을 들이키는 와중에도 왕후의 시선은 여전히 헤르세인에게 닿고 있었다. 하지만 왜인지 그 시선이 헤르세인을 알 수 없는 위화감과 불길함을 느끼게 했다. 카타리아 왕후가 와인잔을 내려놓는 동시에 어느새 와인을 전부 비워낸 것이 보였다. 더 이상 그녀와 나눌 오붓한 이야기 따윈 없기에 아직까지 피부를 감싸는 위화감과 불길함을 떨쳐내고자 헤르세인은 서둘러 제자리로 돌아가고자 다시 한 번 발을 계단에 디디던 찰나였다.

“와, 왕후폐하!”

왠지 뒤를 돌면 안 될 것 같은 불길함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하지만 헤르세인의 고개는 이미 왕후를 향해 있었고 어째서인지 붉은 입가에 피를 토해내는 카타리아 왕후의 모습이 헤르세인에게 그대로 비쳐졌다. 그리고 피를 토하는 동시에 카타리아 왕후는 마치 승리자라도 된 것 같은 기묘한 표정을 하며 손가락으로 헤르세인을 가리킨 채, 한 마디를 토해냈다.

“헤르세인… 왕…녀가… 내게… 독…을....”

어쩌면 깨닫기엔 너무 늦어버린 건지도 몰랐다. 그녀가 계속해서 자신을 향해 짓던 알 수 없는 미소가 이 행동이 모두 계획된 것이었음을.

깨지지 않고 바닥을 구르는 와인잔이 보였다. 그리고 정확히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왕후의 모습까지. 이명처럼 웅성 이는 다수의 목소리가 헤르세인의 귓가를 아프게 울렸다.

“왕후폐하!”

“왕후폐하!!”

모두가 왕후의 곁을 다가가며 그녀를 부르길 바빴다. 또한 윌리스 왕태자 역시 헤르세인이 처음 보는 사색어린 얼굴을 하며 왕후를 품에 안아 연신 소리쳤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윌리스 왕태자의 목소리에도 카타리아 왕후의 눈동자만큼은 오직 한 사람에게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똑바로 마주하고 있는 헤르세인은 붉게 칠해진 입술보다 더 진하게 그녀의 입가에 흐르는 피를 보고서 서서히 현재의 상황이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완전히 인식하기 전에 헤르세인은 아무도 보지 못한 왕후의 움직이는 입모양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나의 승리다."

승리? 무엇을 향한 승리인지 헤르세인은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시간을 주지 않을 생각인지 다시 한 번 카타리아 왕후의 숨이 흐려지는 목소리가 애타게 윌리스 왕태자를 붙들며 입술을 움직였다.

“헤르세인… 저 아이가… 내게 독을 먹인게다… 윌리....”

그녀로선 간신히 토해낸 목소리가 마지막 힘이었는지 윌리스를 붙들고 있던 그녀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그리고 이 사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빈느 후작의 목소리가 헤르세인을 향해 떨어진 건 그때였다.

“헤르세인 왕녀가 왕후폐하를 독살하려 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부채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불신의 눈으로 속삭이는 귀부인들과 어린 공녀, 공자들. 마치 자신들의 속삭임이 헤르세인에게 닿기를 바라는 것처럼 헤르세인은 틀림없이 그들의 모든 목소리를 빠짐없이 들을 수 있었다.

“왕후폐하를 독살하려 한다니요?”

“설마 그럴 리가요….”

“그래도 설마가 사람 잡지 않나요? 어쩜 그런 무서운 짓을….”

“언젠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니까요?”

그들의 수군거림이 마치 독처럼 퍼져나가듯 수 십 명의 목소리가 헤르세인을 향해 손가락질 했다. 그러나 그들이 제게 무슨 말을 하든 헤르세인은 한 가지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누명. 하지만 그 누명을 당장 벗기도 전에 다빈느 후작의 우렁찬 목소리가 심판을 내렸다.

“병사들과 기사들은 무엇 하는 것이냐! 지금당장 헤르세인 왕녀를 추포하라!!”

기다렸다는 듯이 연회장의 문이 순식간에 열리면서 병사들은 물론 기사들이 들어와 헤르세인을 향해 다가왔고 그 상태로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헤르세인은 단단히 양팔을 붙잡힐 수밖에 없었다.

“헤르세인 왕녀전하!”

언뜻 그레이스 후작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지만 헤르세인은 아직도 맨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너무 놀라서? 당황스러워서? 아니. 카타리아 왕후가 설마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목숨으로 하여금 이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신의 안일함일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의 행동은 어딘가 치밀하지 않은 성급함이 보였다.

‘스스로 독을 마실 만큼 당장 나를 눈앞에서 치울 생각이었던 건가.’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그녀가 벌인 일을 무어라 설명할 수 있을까. 헤르세인은 병사들에게 추포되어 끌려가는 와중에도 윌리스의 품에 쓰러져 있는 카타리아 왕후의 모습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녀는 아직 죽지 않았다. 독을 마시고 피를 토한 건 변함이 없지만 그녀는 여전히 숨을 쉬고 기절한 듯 눈을 감고 있었다.

“전하! 전하!!”

어느새 병사들의 틈을 비집고 왔는지 눈물어린 표정으로 저를 보는 라즐리와, 사색이 된 그레이스 후작이 보였다. 그리고 병사들의 움직임과 발을 간신히 맞추며 그레이스 후작은 헤르세인에게 당부했다.

“전하!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떡해서든 이 일의 진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전하! 반드시 무사하셔야 합니다!!”

후작이 어떤 염려를 하고 있는지 헤르세인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서서히 후작과의 사이가 멀어질수록 병사들이 저를 이끌고 향하는 장소가 어딘지 짐작될수록 헤르세인의 아래턱에는 힘이 들어갔다.

그리고 도착한 태양빛 한 점 들지 않는 어둠으로 가득 찬 음습한 장소. 소름이 돋을 만큼 철문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완전히 닫힐 때, 헤르세인은 그때서야 고개를 들어 몸을 돌릴 수 있었다. 그나마 어둠속을 밝히는 화롯불 사이로 눈에 비치는 단단한 검은 철창. 더욱이 도망갈 수 없도록 꽁꽁 걸어 잠근 자물쇠.

이곳은 국왕으로 인해 처음으로 발을 디딘 장소. 하지만 이번엔 국왕이 아닌, 카타리아 왕후가 자신을 밀어 넣은 것이었다. 독을 마심으로서 자신을 처리하고 제 아들에게 온전한 왕위를 주기 위해.

‘부부는 닮는다, 이건가….’

어떻게 보면 국왕과 왕후가 쌍으로 자신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이곳에 가둬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하지만 처음엔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왔다면 이번엔 사정이 달랐다. 헤르세인은 이대로 가만히 당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난 이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죽을 생각 따윈 없어.’

어쩌면 이미 전쟁은 시작된 건지도 몰랐다. 단지 상황을 두고 보다 먼저 검 집에서 검을 빼든 건, 카타리아 왕후일 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자신도 검 집에서 검을 빼들어 그녀가 먼저 시작한 싸움을 받아치면 그만이었다.

그저 누가 먼저 죽고, 누가 먼저 승자가 될지가 관건일 뿐.

하지만 그 전에 이 감옥에서 나가야만 했다. 그래야 누명을 벗던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나가야 만이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선 그레이스 후작을 온전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을 오래 끌수록 그레이스 후작이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는다면 불리한 쪽은 자신.

지금은 그저 그레이스 후작을 믿고 기다리는 방법 뿐 이었다.

케시아를 일찍이 본인의 궁으로 보낸지 오래. 윌리스는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마치 죽은 사람마냥 창백한 얼굴을 띠고 있는 카타리아 왕후의 모습. 이미 기사를 움직여 침대에 왕후를 눕힌 윌리스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는 그녀의 모습에 다급해질 수밖에 없었다. 조금씩 숨이 느려지는 것은 물론 독 때문에 입술이 보랏빛을 띠운 채로 시체의 입술마냥 물들어가는 모습에 윌리스는 다급히 의사를 부르고자 시종을 부르려던 찰나였다.

“왕태자 전하.”

언제부터 뒤따라 왔는지 알 수 없었다. 거기다 이곳은 어떤 귀족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왕후의 침실. 윌리스는 당장에라도 후작에게 나가라는 명령을 내리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다빈느 후작은 오히려 윌리스의 앞을 가로막으며 자신의 말을 전했다.

“왕태자 전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궁정의사를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지? 지금 당장 어머니께서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에 궁정의사를 나중에 부르라니! 그리고 지금 누구 마음대로 그대는 이곳에 들어와 있는 것인가!!”

“설명하기엔 이야기가 깁니다. 왕태자 전하, 잠시 실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게 다빈느 후작!”

다빈느 후작은 윌리스를 지나쳐, 침대에 누워 있는 카타리아 왕후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카타리아 왕후 쪽으로 살짝 몸을 숙이자 이상함을 느꼈는지 다른 쪽으로 오해를 한, 윌리스가 얼굴을 구기며 왕족의 몸을 함부로 건드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지금 뭐하는 건가! 감히 일국의 국모의 몸을 함부로 건들려 하다니!”

“그런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지 왕후폐하께서 제게 언질하신대로 해독제를 찾아 꺼내는 것 뿐 입니다.”

“해독제라니? 그게 무슨 말이지?”

어느새 다빈느 후작은 왕후의 소매에 숨겨져 있던 해독제를 찾았는지 그의 손에는 작은 약병이 들려 있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윌리스에게 설명할 시간이 부족한 후작은 약병의 뚜껑을 열어 조심스럽게 왕후의 입에 갖다 대었다. 그리고 그것을 기울여 살짝 입술이 벌어진 그 틈을 이용해 약병에 든 액체를 전부 흘려보내자 결국 참지 못한 윌리스의 진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빈느 후작!!”

그때였다. 약병에 든 액체가 전부 왕후의 입속으로 넘어가면서 동시에 목울대가 움직이는 것을 지켜본 후작은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났다.

“이제 해독제를 드셨으니 깨어나실 겁니다.”

“그게 무슨....”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후작의 말처럼 눈을 감고 전혀 반응이 없던 왕후의 손끝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손끝뿐만이 아닌 느릿하면서도 불규칙 적으로 움직이던 숨이 안정을 찾아가는 것은 물론 신음을 토하며 잠깐이지만 오랫동안 미동 없던 왕후의 눈이 열리면서 어느새 카타리아 왕후는 온전히 눈을 뜰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해독제라 불리는 비아케인 독이 독을 독으로서 중화시키는지 왕후는 눈을 뜨자마자 기침과 동시에 검푸른 빛의 각혈을 토해냈다.

“쿨럭!”

“어머니!”

각혈과 동시에 창백한 안색을 보이던 카타리아 왕후의 얼굴이 조금씩 생기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입술은 핏기가 전혀 없었지만 비아케인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왕후는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진 상체를 간신히 일으켜 윌리스를 보지도 않고 다빈느 후작에게 현재의 상황을 물었다.

“후작… 어떻게 됐나… 헤르세인은….”

“예, 왕후폐하께서 명하신대로 헤르세인 왕녀를 진범으로 몰아넣고 지하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그래? 이제 지하감옥에 갇힌 고 계집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이겠군.”

핏기 없는 얼굴 그대로 카타리아 왕후가 조금은 여유롭게 코웃음을 치자, 곁에서 바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윌리스는 여전히 구겨진 표정 그대로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방금 후작이 어머니께 마시게 한 건 또 무엇입니까?”

“윌리스, 내가 너에게 말해주지 않았느냐. 다 너를 위한 일이라고.”

“저를 위한 일이라니. 대체 무슨 말씀── 설마....”

문득 머릿속을 스쳐지나간 몇 주 전의 기억. 그저 흘러들은 것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윌리스는 그날, 그녀가 집념에 사로잡히듯 혼잣말처럼 뱉어냈던 그 말을 또렷이 기억해낼 수 있었다.

"이 어미가 꼭 너를 왕좌에 앉혀주마.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난 네가 그 자리에 앉는 날을 보고야 말 것이다. 반드시."

본래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던 탄생일. 하지만 이번엔 무슨 일이든 탄생일 연회를 열자던 그녀의 간절한 바람과 반드시 성대하게 열자던 그 모습에 왜 눈치 채지 못했을까. 평소의 그녀의 모습이라서? 그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거절하지 못한 자신의 실수였다.

왕좌. 어찌 탐나지 않을까. 왕족으로 태어난 이상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은 당연한 욕구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렇게 추잡한 방법으로 앉고 싶지는 않았다. 현 국왕이자 아버지인 그가 어떻게 그 왕좌를 쟁취했던가. 아무리 거의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이라 해도 당시, 가물가물한 기억을 갖고 있는 윌리스로선 폐륜을 저지르고 손에 피를 묻히며 왕좌에 앉은 아버지의 행태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만큼은 아버지의 전철이 아닌, 떳떳한 왕자로서, 왕태자로서 왕좌에 앉고 싶었다. 어느 결점조차 없는 길을 걸어 왕좌에 앉고 싶었지만 제 자신만 그렇게 생각하고 다짐하고 있을 뿐, 정작 주변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가운 윌리스의 목소리가 왕후를 향해 비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도 왕후는 오히려 당당히 윌리스의 눈과 마주하며 대답했다.

“이유라니? 다 너를 위해 한 일이다. 네가 온전한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선 헤르세인은 반드시 없애야할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 것을 정녕 모르는 것이냐?”

“설마, 제가 헤르세인에게 질까봐 그것이 두려워 어머니께선 제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멋대로 이 일을 저지르신 겁니까?”

“그래! 다 너를 위한 일 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넌 내게 그런 눈을 하는 것이냐?! 나를 책망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야?! 하지만 명심 하거라! 네가 어떤 눈으로 나를 본다 해도! 나는! 네가 온전히 왕위만 물려받을 수 있다면 이 어미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내 손에 피를 묻히는 한이 있더라도 난 결코 너를 폐하처럼 그리 왕좌에 앉힐 생각 따윈 없어! 네 손에 피한방울은 물론 그 어떤 오물도 네 손에 묻힐 생각이 추호도 없단 말이다!”

“어머니!!”

이 이상 더 듣게 된다면 정말로 화가 날 것 같아 윌리스는 부들거리는 주먹으로 제 분을 어떡해서든 가라앉히고자 했다. 하지만 그녀를 이제는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것도 사실. 윌리스는 다시 한 번 손을 쥐었다 피며 아랫입술을 짓이기듯 깨물었다.

지금까지 제 손으로 쌓아온 업적을 그녀가 무너트린 것 같은 심정이었다. 물론 이해는 했다. 오직 아라네아 왕비만을 바라보던 아버지. 그리고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애정을 받지 못한 어머니가 결국 비틀려 오직 권력과 사치에 그 갈증을 해소하고 하는 것을. 또한 헤르세인이 직계혈통이라는 큰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윌리스는 굴하지 않고 언제든 헤르세인을 꺾어낼 자신이 있었다.

자신은 이 왕실의 하나 뿐인 왕태자이며 여전히 귀족들은 자신의 편이라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공든 탑을 그녀가 무너트렸다. 자신을 위한답시고 그녀는 아들이 정성스레 만들어낸 탑을 무너트리며 이미 완벽하게 그녀의 손으로 빚어진 탑을 가져가라 하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시던 저는 상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스스로 더럽히는 일이 있더라도 왕좌를 차지하는 건 제 몫이고 싸우는 것도 제 일입니다. 어머니께서 관여하실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정말로 제가 바라는 것이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윌리스!”

무엇이란 말인가. 이 모멸감은. 윌리스는 더 이상 그녀를 온전히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결국 거칠게 등을 지고 침실 밖으로 나가는 것만이 윌리스의 최대 인내였다. 하지만 그런 윌리스를 카타리아 왕후는 결코 붙잡지 않았다. 언젠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거라 생각했기에 지금은 그저 당장 중요한 헤르세인을 처리하는 것만이 그녀의 우선이었다.

“네가 이 어미를 원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이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 윌리스. 다 너를 위한 일이니까. 너도 언젠간 이 어미를 이해할 날이 올 거다. 왕좌를 앉는다는 건 그런 것이니까.”

왕후의 독살사건 이후, 귀족들 사이에선 그날의 일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왕후와 윌리스 왕태자를 지지하는 왕당파 귀족들 사이에선 헤르세인을 당장 왕녀의 자리를 박탈하고 죄를 물어야 한다며 상소문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귀족파나 온건파 또는 중립파 사이에선 의문이 나오고 있었다.

헤르세인의 존재는 누가보아도 명실상부 에른스트 왕태자의 딸이자 직계혈통인 왕녀나 다름없었다. 더불어 그녀의 생모이자 죽은 아라네아 왕비가 어떤 인물이던가. 왕비이기 이전, 본래는 왕태자비이자 에른스트 왕태자가 죽지 않고 살아 그대로 왕위를 물려받는다면 왕후가 되었을 인물이 아니었던가.

더욱이 카타리아 왕후가 얼마나 아라네아 왕비를 시기하는지 모르는 귀족은 거의 없었다. 그저 침묵했을 뿐. 그러나 결국 아라네아 왕비는 죽고 말았다. 카타리아 왕후가 직접 관여한 고문으로 인해. 덧붙여 에른스트 왕태자 역시 어떻게 죽었던가. 아우인 위스턴 국왕의 폐륜으로 젊은 나이에 눈을 감지 않았던가.

오히려 헤르세인이 카타리아 왕후에게 독을 먹여도 이상하지 않는 구도였다. 친부와 친모를 그것도 왕후와 국왕이 죽인 것이 아니었던가. 덕분에 헤르세인을 향한 동정여론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증오하지 않는 다면 그녀가 해탈한 성자가 아니고서야 눈앞의 원수를 어떻게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있을까.

하지만 동정여론이 나오는 동시에 왕당파는 어떡해서든 헤르세인의 지위를 박탈하고 왕후를 독살한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어 보였다. 또한 귀족들 사이에선 이런 소문까지 퍼지고 있었다.

왕후가 스스로 독을 마셔 어떡해서든 윌리스 왕태자를 왕좌에 앉히기 위해 수를 썼다는 소문. 왕당파는 그 소문을 적극 부인하며 그럴 리가 있냐고 오히려 헤르세인 왕녀 쪽이 퍼트린 소문이 아니냐며 큰 소리를 쳤지만 정작 다른 귀족들은 그 소문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한 이들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 연회장에서 헤르세인의 행동을 은근히 주시하고 있던 몇몇의 귀족들은 헤르세인의 행동들을 파악하고 있었다. 빈 잔에 와인을 따라달라던 왕후의 명령에 그대로 와인병을 들고서 와인잔을 채웠던 헤르세인. 그 어디에도 독을 타거나 의심되는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물론 미리 와인잔에 수를 썼을 가능성이 충분했다.

하지만 굳이 독살하거면 왜 윌리스 왕태자가 아닌, 카타리아 왕후란 말인가? 그녀를 향한 원한이 있을 지언정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선 오히려 윌리스 왕태자를 독살하는 것이 더 그녀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정적인 윌리스 왕태자는 멀쩡히 살아 있고 카타리아 왕후가 독에 당했다.

그럼에도 카타리아 왕후는 독을 치료했는지 살아있다는 소식이 퍼졌지만 독의 후유증으로 현재 그녀는 며칠째 칩거상태였고 여전히 헤르세인은 왕후를 독살했다는 죄인으로 몰려 지하감옥에 수감 중. 여기서 귀족들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어찌되었든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셈. 이 사건으로 헤르세인 왕녀가 밀려나고 그대로 윌리스 왕태자가 왕위를 이을지, 또는 윌리스 왕태자가 밀려나고 헤르세인 왕녀가 왕위를 이을지 두 사람의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헤르세인의 가장 큰 세력이라 알려진 그레이스 후작 가를 향한 귀족들의 시선이 현재 그곳으로 모두가 집중되고 있었다.

“아버지 벌써 5일째에요. 이러다 왕녀전하께서 큰 변고라도 당하시면....”

“아직 카타리아 왕후 쪽에 별다른 움직임은 없단다. 그리고 이대로 전하께서 변고를 당하시면 그건 그거대로 왕후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

“곤란하다니요?”

“감옥에 갇힌 전하께서 갑자기 변고를 당하시게 된다면 귀족들은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하겠느냐?”

“아....”

후작의 말처럼 헤르세인이 지하감옥에 갇힌 지도 벌써 5일째. 그리고 아이르리스의 말처럼 후작도 피가 말릴 만큼 당장에라도 헤르세인을 감옥에서 빼오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함부로 가문의 사병을 움직일 수도 없는 노릇이며 자칫 잘못 움직였다간 반역죄로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상황에 닥칠지도 몰랐다.

물론 가만히 앉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후작은 아니었다. 사위인 길버트는 물론 사람을 시켜 왕후가 마신 독의 진위를 알아내는 것이었고 원래라면 안 될 일이지만, 가문의 몇몇 사병을 왕실 병사로 사람을 심어 놓아 지하감옥의 상황과 왕실의 주변 상황을 알아 보겠끔 만들었다.

그나마 다행인건 아직까지 카타리아 왕후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만약 그녀가 움직인다면 상황은 다시 급변할지도 몰랐다. 때문에 최대한 정보를 모아 후작은 헤르세인을 어떡해서든 지하감옥에서 구출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 시간을 오래 끌수록 불리한건 헤르세인. 더 시간을 끌기 전에 적당한 시기를 봐서 헤르세인을 어떡해서든 누명을 벗기거나 만약 최악으로 치닫게 되면 가문의 사병을 일으켜서라도 그녀를 감옥에서 꺼내야 했다.

“아버지, 저는 걱정 되요. 전하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상황이 너무 어지러워서 제 스스로조차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헤르세인이 감옥에 끌려간 이후, 후작만큼이나 잠을 제대로 청하지 못한 아이르리스의 얼굴에는 근심과 걱정의 그림자가 짙게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후작은 이내 무언가를 결심했는지 아이르리스에게 대답했다.

“아이르리스, 너 먼저 영지로 내려가 있는 편이 어떻겠느냐.”

“예? 하지만 아버지….”

“안다. 네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하지만 만에 하나 최악의 상황이 된다면 내가 이곳에서 널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단다. 그러니 차라리 이곳보다 네가 좀 더 안심이 머물 수 있는 그레이스 영지로 내려갔으면 싶구나.”

“아버지....”

아이르리스는 후작이 말하고자 함이 무엇인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스스로도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하고 몇 번이나 생각했지만 나온 결론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감옥에 갇힌 헤르세인을 걱정하는 것이 현재의 자신의 위치. 만약 자신도 아버지처럼 머리가 비상하거나 또는 길버트처럼 검을 잘 다루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자신으로 인해 후작은 물론이고 남편의 발목을 잡을 수 없는 법. 아이르리스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먼저 영지에 돌아가 있을게요. 하지만 아버지, 몸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왕녀전하를 꼭 구해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이르리스는 많은 짐을 챙길 것 없이 길버트와 후작에게 인사를 건넨 후, 그레이스 영지로 떠났다. 아이르리스가 떠나는 것에 대해 길버트는 아쉬웠으나 후작의 말처럼 아이르리스가 이곳에 있으면 위험할지도 몰랐고 소가주 이기 이전, 그는 가문을 지키는 기사이기에 계속 그녀의 곁을 지킬 수는 없었다.

그녀로 인해 시끌벅적하던 그레이스 후작가의 분위기는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딸이 영지로 안전하게 떠남으로서 걱정 없이 움직일 준비가 된 후작은 길버트에게 왕성의 현 상황을 물었다.

“현재 왕실 분위기는 어떤가.”

“아직까지 왕후 쪽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쪽에서 심어놓은 자들에 의하면 다빈느 후작이 자주 카타리아 왕후의 침소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가? 다빈느 후작이라면 그러고도 남을 인물이지.”

다빈느 후작이 어떤 인물이던가. 중립파 귀족은 물론, 온건파 귀족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은 자였다. 제 야망을 위해선 그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자. 특히나 그런 비슷한 면이 있는 왕후와 어쩌면 손발이 잘 맞을지도 몰랐다.

“독에 관해선 어떻게 됐나?”

“아직 밝혀낸 것이 없지만 한 가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습니다. 왕후 궁전에 소속된 시녀 한명이 연회 당일 날 시녀직을 그만두고 돌연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담 그 시녀가 어쩌면 이 일의 사건을 풀 열쇠일지도 모르겠군. 길버트, 자네가 계속 수고해주게. 또한 그 시녀의 행적을 최대한 빨리 알아봐주게.”

“예.”

후계문제로 완전히 기사직을 내려놓게 된 클로드는 명예기사라는 훈장과 공로를 받아 기사직을 은퇴하면서 라인하르트 후작의 가르침대로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능숙히 실천하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전, 후작과 함께 윌리스 왕태자의 탄생일 축하를 위해 참가한 연회. 그러나 윌리스 왕태자가 주인공이라 생각한 연회는 한순간의 사건으로 금방 끝이 나고 말았다.

미수로 그친 카타리아 왕후의 독살 사건.

당시 클로드는 후작과 함께 멀리 떨어진 자리에 있어 그 정황을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클로드가 생각하기엔 헤르세인 왕녀는 결코 성급히 카타리아 왕후를 죽일 성정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아무리 원한 관계라 하더라도 당장 눈앞에서 왕후를 죽인다면 불리한건 그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타리아 왕후의 절대적인 지목과 다빈느 후작의 빠른 움직임으로 결국 지하감옥에 갇힌 헤르세인 왕녀의 모습에 귀족들은 흩어지는 동시에 시간이 흐를수록 제각각의 생각을 토론하기 시작했다.

헤르세인 왕녀가 카타리아 왕후를 진짜로 독살하려 했든 아니든, 그 문제를 떠나 귀족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바닥을 기고 있는 백성들의 민심. 그리고 전쟁 이후의 가시지 않은 전란. 또 상소문에는 아직까지 적혀 있지 않은 것이 있으나 요즘 들어 지방 쪽의 영지에서 영지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수도에까지 전해지고 있었다.

그야말로 현재 사브레 왕국은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여전히 두문불출하는 위스턴 국왕과 미수로 그친 독살 사건으로 인해 며칠 때 칩거 중인 카타리아 왕후. 그리고 지금 현재 왕실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틀림없는 윌리스 왕태자이나 왕태자의 역할은 어디까지 국왕을 대신하는 대리청정에 불과했다.

만약 이 상태로 왕위를 쟁탈하는 왕족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이제는 수도에 있는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지도 몰랐다. 그만큼 현재 수도는 불안했고 귀족들조차 연신눈치를 보며 벌써부터 어느 편에 갈라설지 저울을 다는 중이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왕좌를 오랫동안 비워둘 수는 없는 노릇. 나라가 안정해지려면 국왕이 움직여야 했고 현 국왕인 위스턴 국왕으로선 더 이상 백성들의 민심은 물론 나라의 안정을 되찾기란 어려웠다. 결국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헤르세인 왕녀와 윌리스 왕태자의 싸움.

클로드는 요 며칠 째, 후작을 대신하여 서류 처리를 하는 와중에도 왕당파 가문의 후계자로서 윌리스 왕태자의 편을 들지, 아님 새로운 쪽에 힘을 실을지 양 갈래로 갈라진 길목에 멈춰 서있었다.

“클로드, 잠시 들어가도 되겠느냐.”

“예, 들어오십시오.”

본래 이곳은 대대로 라인하르트 후작들이 사용해온 집무실. 하지만 지금의 라인하르트 후작은 슬슬 후작 자리에서 물러나기 위함인지 클로드를 대리자로 하여금 집무실 사용에 허가를 내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버지.”

“그저 네가 어찌 일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와본 것이다. 그러니 날 신경 쓰지 말고 편히 일하도록 하거라.”

“...예.”

가끔씩 라인하르트 후작은 클로드가 일하고 있을 때, 집무실에 방문하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거의 습관처럼 얼굴을 잠깐 비추고 다시 나가는 후작이었던지라 클로드는 다시 서류 작업을 하기 위해 깃펜을 들어 이제 막 손을 움직이려던 순간이었다.

“아버지.”

“내게 할 말이 있느냐?”

세우고 있던 깃펜을 내려놓아 고개를 든 클로드는 조용히 차를 직접 따르고 있는 후작을 보았다. 그리고 후작을 향해 어렵게 입술을 떼어 움직였다.

“헤르세인 왕녀전하 말입니다.”

“고민하고 있는 것이냐?”

“…예?”

“본디 우리 가문은 국왕을 지지하는 왕당파 가문. 그럼 자연스럽게 국왕의 뒤를 이을 후계자인 왕태자를 지지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너는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왕당파 가문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왕태자를 지지할지, 아님 새로운 세력에 힘을 보태줄지.”

제 아무리 가족 간의 많은 일이 있다 해도 라인하르트 후작은 오랫동안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인물이었다. 때문에 클로드가 요즘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다 꾀고 있는 후작은 오히려 담백한 표정으로 우려지고 있는 찻물을 보며 제 아들을 향해 답이 아닌, 본인의 선택을 권했다.

“내 눈치를 보지 말거라. 내 의견을 듣되 그것을 정리하고 선택하는 것은 온전히 네 몫이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아직....”

“너는 이제 곧 내 뒤를 이을 하나 뿐인 후계자이자 라인하르트 가문의 가주가 될 몸. 미련하게 이도저도 아닌 고민을 하다간 결국 해를 입는 것은 너 임을 잊지 말거라. 그리고 헤르세인 왕녀의 문제는....”

그 순간 라인하르트 후작은 아주 잠시였지만 평소처럼 입이 선뜻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길게 침묵할수록 클로드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을 알기에 후작은 겨우겨우 턱을 움직여 쓰디쓴 찻물을 삼키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헤르세인 왕녀에 대한 것 역시 클로드 네 몫이다. 하지만 이건만은 반드시 알거라. 네가 선택한 세력의 힘이 되어준다는 것은 곧 우리 가문의 미래임을.”

후작이 자리를 떠날 때까지 찻잔에 담겨진 찻물은 식지 않았다. 하지만 뜨거운 김이 완전히 사라지고 따뜻한 찻물이 차게 식었을 때,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보던 클로드의 눈빛은 그동안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고민이 사라진 눈빛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함부로 선택할 수 없는 일. 언젠가는 선택할 날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 클로드에게 필요한 건 후작을 대신 해, 책상위에 잔뜩 쌓인 서류를 처리하는 일이었다.

지하감옥에 갇힌 지 정확히 일주일 째. 헤르세인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바깥의 돌아가는 상황을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었다. 물론 그 상황을 남몰래 알려준 건 감옥을 지키는 경비병에게 뇌물을 먹여 함께 찾아온 라즐리와 빈센트 덕분이었다.

"누님! 어디 몸 상한 곳은 없으시죠? 제가 힘만 있었더라면 누님을 이곳에서 금방 나올 수 있게 해드렸을 텐데…."

"걱정 마. 난 괜찮으니까. 그보다 내가 여기에 갇힌 뒤로 왕실 분위기는 어떠니?"

"아, 그게 말이죠…."

빈센트는 마치 이날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왕실의 현 소식을 헤르세인에게 보고서처럼 길게 내용을 전했다. 그리고 그 보고 중에 예상대로 카타리아 왕후는 죽지 않았다. 독을 치료하는 해독제가 따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회가 열리던 그날 이후, 왕후가 조용히 칩거했다는 소식은 헤르세인에겐 조금 의외였다.

그녀의 성격을 생각하면 바로 자신의 목을 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신중한 것인지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는 그녀의 행동에 헤르세인은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빈센트, 혹시 카타리아 왕후를 자주 찾는 이가 있니?"

"거기까진 잘은 모르겠지만 다빈느 후작이 요즘 왕성에 자주 모습을 비추고 있어요."

"…그래?"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 카타리아 왕후를 뒤에서 돕는 귀족은 틀림없이 존재할 것이었다. 헤르세인은 이내 걱정 말라는 표정으로 빈센트를 안심시킨 뒤, 바로 근처에서 걱정 어린 얼굴로 저를 보고 있는 라즐리에게 부탁했다.

"라즐리, 당분간 빈센트를 부탁할게."

"예, 전하. 꼭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거나 빈센트에게 위험한 일이 닥친다면 망설이지 말고 그레이스 후작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살짝 눈에 물기가 어린 라즐리의 모습이 보였으나 오히려 라즐리는 굳세게 마음을 먹었는지 크게 고개를 움직였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 떠올랐는지 라즐리는 주변을 흘끔 살피다가 창살가까이 다가가 작게 목소리를 냈다.

"저어, 전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어떤…?"

"그날 분주해서 제가 깜박하고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그날 아침에 그레이스 후작각하께서 당시 소가주님과 기사님들을 왕성에 보내 아침 정찰 명령을 내리셨는지 기사님들을 보조하기 위해 제 동생이 마침 왕성에 오게 되면서 만나게 됐거든요."

헤르세인은 그날 라즐리가 동생과 만났던 이야기와 동생이 했던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의 그대로 내용을 전달했다. 그리고 라즐리의 말을 전부 전해들은 헤르세인은 생각에 빠졌다.

그레이스 후작이 무엇에 불안하여 이른 아침부터 소가주와 몇몇 의 기사들을 꾸려 아침 정찰 겸 왕실에 그들을 보냈는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었다. 물론 그 뒤로 중무장을 한 다른 가문의 기사들이나 사병들을 전혀 볼 수가 없었지만 문득 거기서 든 의문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우면서도 이상하지 않은 자연스러움. 그러나 가장 이상하면서도 부자연스러운 것.

자신을 지하감옥에 투옥하라고 제일먼저 명령한 사람은 다름 아닌 다빈느 후작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귀족도 감히 왕실의 병사나 기사들에게 명령내릴 수는 없었다. 카타리아 왕후가 쓰러진 직후, 그 자리의 가장 최고 권력자는 윌리스 왕태자. 윌리스 왕태자가 따로 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상, 기사나 병사들이 움직일 일은 없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들이 따르는 주인은 오직 왕족. 그러나 왕족인 윌리스 왕태자가 명령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명령을 내린 것은 다름 아닌 다빈느 후작.

그때 당시 주변이 워낙 소란스럽다보니 그것을 따로 지적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아니, 다빈느 후작이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 부자연스럽기 보단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상황이 그러했으니까.

헤르세인은 라즐리와 빈센트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 여전히 지하감옥에 갇힌 그대로 벽에 등을 기대어 생각에 깊이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빈센트의 말을 듣고서 의심이 되긴 했지만 확신은 없었다. 다빈느 후작이 자주 왕성에 드나든다는 이유만으로 확신하기에는 다른 귀족들도 똑같이 의심해야하는 상황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들었다. 카타리아 왕후를 돕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

‘카타리아 왕후를 돕고 있는 건 틀림없는 다빈느 후작이야. 그럼 카타라이 왕후가 마신 독이랑 그때 들이닥친 병사들도 어쩌면….’

괘씸하단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저 그 상황을 미처 대처 하지 못한 자신의 역량 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뿐. 예지인이 아닌 이상 그들의 계획을 미리 대비한다는 것도 있을 순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에 보기 좋게 당한 건 자신이었고 현재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제 남은 건 그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른 시간 싸움 뿐. 분명, 이 기회를 삼아 카타리아 왕후는 자신의 목숨을 완전히 끊어 놓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헤르세인 역시 이대로 그냥 바보마냥 당한 채, 죽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복수. 그들을 제 손으로 단죄해야만 했다.

‘난 결코 이대로 죽지 않아.’

그렇게 다시 헤르세인이 감옥에 갇힌 지 이틀이 더 지났을 때, 카타리아 왕후는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나 대대적인 공문을 날렸다. 그것은 바로 헤르세인을 완전히 숨통을 끊어 놓기 위한 재판 시행.

그리고 재판이 열린다는 소식에 모든 귀족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역대 재판 중 그 어떤 왕족도 재판에 선 왕족은 없었다. 하물며 재판이 열린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 더욱이 그 소식을 접한 그레이스 후작은 처음으로 분개한 표정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손에 든 공문을 구겨냈다.

“길버트. 아무래도 왕녀전하를 지하감옥에서 지금당장 구출해야겠네. 이대로 있다간 전하께서 목숨을 잃으실 게야. 반란분자로 낙인찍힌다 해도 이미 그것은 각오한 일. 길버트, 자네가 철저히 준비하게.”

이제는 시간 싸움이 아닌 진짜로 서로 피가 튀기는 싸움이 될지도 몰랐다. 그리고 재판 날이 다가 오기 전 날의 깊은 새벽. 헤르세인은 지하감옥으로 잠입한 길버트를 볼 수 있었다.

깊은 새벽이 오기 전, 헤르세인은 자신을 찾은 카타리아 왕후를 볼 수 있었다. 독을 마시고 쓰러진 모습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것처럼 그녀는 멀쩡한 얼굴로 헤르세인을 내려다보며 짙게 미소를 지었다.

"내가 말했지? 나의 승리라고. 이제 곧 너는 재판에 서게 될 것이다."

"...재판?"

"그래, 재판. 재판에 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너도 잘 알고 있겠지?"

재판이란 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관한 깊숙한 지식은 헤르세인에겐 없었다. 하지만 재판에 서는 자는 틀림없이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을 재판에 세운다? 얼마나 그녀가 자신을 죽이고 싶어 하는지 헤르세인은 차가운 조소가 세어 나왔다.

"저를 재판에 세울 만큼 눈에서 치우고 싶으신 겁니까?"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카타리아 왕후는 눈썹을 치켜뜨며 붉은 입술을 끌어올렸다.

"그래. 네 존재가 내 아들의 방해물이니까. 감히 직계혈통을 들먹이며 내 아들의 앞길을 방해하려 들었다. 네년은."

"제가 직계혈통인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작해야 직계혈통이 전부이고 제겐 윌리스 왕태자전하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요."

"네 말처럼 넌 권력이 없는 그저 그런 왕녀에 불과하지. 하지만 네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다. 네가 직계혈통 따위로 내 아들의 앞을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그나마 나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을지도 모르겠지."

자비라. 과연 그럴까? 그녀의 성정과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면 자비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어떡해서든 암살을 해서라도 이 왕국에서 지워내려 했을지도 몰랐다. 헤르세인은 그런 그녀를 향해 더 이상의 높임말 없이 대답했다.

"아니. 당신은 절대로 내게 자비 따위 베풀 위인이 못돼. 내가 그녀의 핏줄인 이상, 당신은 어떡해서든 그 흔적조차 지우려들 테니까. 제 욕심에 질투에 눈이 멀어 아무 죄 없는 그녀의 자식까지 죽이려는 당신을 보면 참 대단하다 느껴질 정도야. 그렇게도 자기를 납득하며 당신의 아들이 왕좌에 앉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닥쳐라! 네까짓 게 나에 대해 무얼 안다고 지껄여?! 그년만 아니었다면! 난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그년이 자초한 거다! 네 어미는! 아라네아 그 계집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

발악하듯 목을 놓아 외치는 그녀의 목소리에 헤르세인의 미간은 이내 구겨졌다. 그리고 조소를 담아 비웃고 있던 입꼬리는 어느새 굳게 다물어진지 오래. 헤르세인은 싸늘히 그녀를 노려보며 메마른 입술을 움직였다.

"빼앗았다고? 내 어머니가? 웃기지마. 빼앗은 건 당신이겠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창살을 움켜쥔 헤르세인은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다. 어떻게 이토록 자기밖에 모를 만큼 이기적일 수 있을까. 애초에 그 자리가 처음부터 누구 것이었던가. 그녀의 것이 아닌, 제 어머니의 것이었고 그녀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전부 어머니의 것이었다. 그런데 모든 걸 빼앗았으면서 다 가졌으면서도 제 욕심을 부리는 그녀를 헤르세인은 지금까지 억눌렀던 분노를 들끓게 만들었다.

"어울리지 않는 그 자리에 앉은 건 당신이야. 그 자리, 누구 덕분에 앉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위스턴 국왕? 그래, 그자가 내 아버지를 죽이고 피로 얼룩진 그 자리를 차지해서 앉은 지금의 자리겠지. 설마 처음부터 당신 거였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 처음부터 그 자리는 정해져 있었어! 내 어머니의 자리였고! 그자가 빼앗은 왕좌도 내 아버지의 것이었으니까! 당신의 것은 처음부터 없었어!!"

"닥쳐라!"

쾅! 하고 맞은편의 창살을 부러지도록 붙잡은 왕후의 눈빛이 살벌하게 빛났다. 이대로 더 목소리를 낸다면 그땐 정말로 죽일 기세로 왕후의 이빨이 한 마리의 범처럼 빠드득 갈리는 소리가 지하감옥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런 왕후의 모습에도 전혀 기죽지 않은 헤르세인은 창살에서 떨어져 오히려 차게 식은 입꼬리를 비릿하게 끌어올렸다.

"왜? 내가 너무 맞는 말을 해서 부정할 수가 없는 건가?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뱉어낸 모든 말들은 한 치의 거짓이 없어. 전부 사실이니까. 당신이 내 어머니를 죽인 건 결코 부정할 수 없어. 그러니 내 손으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그 자리가 당신한테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얼마나 감당하지 못할 버거운 자리인지를."

"그래 어디 한번 해보 거라. 나 역시 내 손으로 너를 끝낼 것이다. 감히 내 아들의 왕좌를 탐하려는 네년을! 반드시 내 손으로 끝장 낼 것이야!!"

왕후가 지하감옥을 떠난 뒤로 헤르세인의 감정은 가라앉으면서도 더욱 차갑게 식어갔다. 이런 식으로 왕후와 직접적으로 마주하며 싸워본 것은 처음이기도 했지만, 그녀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녀가 뱉어내는 이기적인 말을 들을 때마다 헤르세인의 복수심은 화산처럼 불타올랐다.

그렇게 왕후가 떠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지하감옥은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지하의 공간. 시계조차 볼 수 없어 그저 지례짐작만으로 시간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 고작이었던지라 헤르세인은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기 위해 이제 막 눈을 감으려던 찰나였다.

지하감옥 입구에서부터 요란하게 들리는 여러 명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어렴풋이 들린 것 같은 칼에 베인 소리와 숨을 들이키는 비정상적인 소리. 이제 막 감으려던 눈을 바로 떠 헤르세인이 고개를 옆으로 돌린 순간, 멀찍이 떨어져 있는 화롯불 사이로 점점 인영이 드러나는 인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길버트?”

“왕녀전하!”

“어떻게 여기에….”

“전하를 이곳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지금당장 자물쇠를 풀어 문을 열 테니 바로 나오십시오.”

지하감옥의 문지기에게서 열쇠를 빼앗았는지 열쇠꾸러미를 들어 한 번에 자물쇠를 푼 길버트가 철창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길버트가 문을 활짝 열어주었음에도 헤르세인은 선뜻 문밖으로 나설 수 없었다.

“탈출이라니… 그럼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게 된다면 빈센트와 라즐리는….”

다행히 빈센트와 라즐리의 구출도 생각해 두었는지 길버트가 서둘러 대답했다.

“지금 저희 쪽 사병이 빈센트 전하께서 계신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서둘러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하다간 왕성을 빠져나가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처럼 지금 여기서 나가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다시 붙잡히는 것과 별개로 그의 행동이나 곁에 있는 후작가의 기사들을 보건데 이것은 반란이란 의미가 다분해 보이는 행동이었다. 헤르세인은 움직이기 전, 길버트에게 이 모든 것이 그레이스 후작이 결정한 일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후작이 나를 여기서 구출하는 것으로 결단을 내린 건가요? 나를 구출하면 그레이스 가문은 반란이란 낙인이 찍힐 것이 분명함에도?”

그녀의 물음에 길버트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후작이 전한 뜻을 그대로 대답했다.

“예, 후작께서는 전하를 구출하는 것으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전하를 물심양면 돕는 것으로 전하께서 왕좌에 앉으실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는 후작각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자신으로 인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을지도 몰랐다. 그럼에도 어려운 결단을 하며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준 그레이스 후작의 선택에 헤르세인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서두르지요. 왕후와 윌리스 왕태자가 이 사실을 알고 움직이기 전에 저희가 먼저 서둘러 빠져나가야 해요.”

이제 막 옷을 갈아입고 잠이 든 카타리아 왕후에게 뜻하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다. 그것은 바로 헤르세인 왕녀의 탈옥. 탈옥 소식을 듣자마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그녀는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당장 헤르세인을 붙잡으라는 명령을 왕성 전체에 내렸다.

“헤르세인 왕녀를 결코 놓쳐선 안 된다! 만에 하나 헤르세인이 이 왕성을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들릴 시, 너희 모두를 내 손으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목숨만 붙어 있어도 상관없으니 당장 헤르세인을 내 앞으로 끌고 오란 말이다!!”

그렇게 새벽부터 시작된 왕실의 피바람. 어떡해서든 붙잡으려는 왕후와 어떡해서든 왕성을 빠져나가려는 헤르세인의 추격적인 시작되었다. 길버트를 따라 복도를 지나가던 도중 헤르세인은 몇 번이고 칼을 들이밀며 길버트와 그의 사병들에게 덤비는 왕실 병사들과 기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칼을 들며 위협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헤르세인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왕후가 접했는지 위협하는 수준이 아닌, 정말 베어낼 기세로 달려드는 그들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헤르세인 왕녀전하! 이쪽으로 얌전히 오시지요! 이대로 죄인이 되어 목숨을 잃고 싶으신 겁니까?!”

마주치는 기사들마다 헤르세인은 단순히 왕녀가 아닌 이미 그들에겐 죄인으로서 그저 탈옥하는 탈옥자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뱉어내는 말을 들을 때마다 왕후가 그들을 얼마나 압박했는지 짐작은 됐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왕후에게 독을 먹였다는 증거조차 없거늘 어찌 내게 죄인이라 한단 말이냐!”

“하지만 모든 정황이 전하께 가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죽고 싶지 않거든 얌전히 항복하시고 따라오시지요!!”

그때 한 기사가 검을 바짝 들면서 살짝 허점이 보이는 헤르세인의 옆쪽으로 달려들자 그녀의 곁에서 상황을 바짝 경계하던 길버트가 빠르게 검을 맞받아치며 결국 달려든 기사를 냉정히 베어냈다.

“크억!”

“전하! 지금입니다! 뛰십시오!!”

다시금 길버트의 뒤를 따라 헤르세인은 거치적거리는 드레스 자락을 잡고서 구두 따윈 벗어던진 채 맨발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본성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한 상황. 예상보다 왕후가 일찍 눈치 챈 덕분에 본성의 기사와 병사들이 전부 몰려들어 빠져나가기란 쉽지 않았다. 본성의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길버트는 물론, 그를 따르는 사병들까지 벌써부터 지친 기색이 엿보였다.

그리고 다시 달려드는 병사를 해치우며 앞으로 나아갈 때쯤 길버트가 발걸음을 멈춰 조금은 텅 비어진 복도를 경계하며 대답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상태로 전부가 왕성에서 빠져나가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상황이 위험해진다면 제가 어떡해서든 전하만큼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버트가 최후의 미끼역할로 생각하고 있는지 걱정 말라는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헤르세인은 저 혼자 도망치고자 그를 이곳에서 허무히 죽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아니요, 나는 내 사람 그 누구도 죽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나 혼자 빠져나가게 하려고 당신을 미끼로도 방패막이로 조차 쓸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하─!”

“잠시 만요, 저기에 누군가 달려오고 있어요.”

다른 방향의 복도에서 세 명의 사내들이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들의 입은 왕실 병사들의 갑옷차림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다급히 길버트를 부르려 했다. 그런데 길버트는 안심하라는 얼굴을 하며 오히려 그들은 왕실 병사로 위장한 가문의 사병들임을 설명했다.

“걱정 마십시오. 저들은 제가 데려온 수하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빈센트 왕자전하에게 보낸 자들입니다.”

“그런데 빈센트의 모습은 왜….”

하지만 보이지 않는 빈센트의 모습에 헤르세인의 얼굴이 굳어지자 어느새 바로 앞까지 달려온 수하 중 한명이 다급히 길버트에게 보고를 올렸다.

“소가주님! 빈센트 전하께선 무사히 왕성을 빠져나가셨습니다. 다행히 왕자님의 궁 쪽에는 감시하는 병사들이 많이 없어서 수월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만 무사히 빠져나가면 되겠군. 전하, 들으신 대로 빈센트 왕자전하께선 무사히 빠져나가셨습니다. 이제 저희만 이곳을 빠져나가면 됩니다.”

빈센트가 무사히 빠져나갔다면 라즐리도 함께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컸다. 그것이 조금 안심이 된 헤르세인은 고민할 것도 없이 길버트를 향해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통로에 대해 설명했다.

“내가 거처하는 궁전에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통로가 있어요. 그 비밀통로를 이용한다면 왕성을 빠져나갈 수 있을 거예요.”

“비밀통로가 있습니까? 그럼 본성에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 전하의 궁전으로 이동하시죠.”

시간은 촉박했고 궁전으로 향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을 놓아서도 안됐다. 더욱이 비밀통로의 존재를 들킬 수는 없었다. 헤르세인 거의 앞장서서 맨발을 움직이며 길버트와 그들의 사병들과 함께 자신의 궁전을 향해 움직였다.

레인 궁전까지 본성과는 거리가 멀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거리가 아득하게 느껴질 만큼 헤르세인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자신의 궁전을 향해 죽을힘을 다하여 뛰어야 했다. 이토록 폐가 찢겨질 기분이 들만큼 뛰어본 적이 있었던가? 거기다 어디에서 튀어나왔는지 모를 왕성의 병사들과 계속해서 부딪치는 바람에 헤르세인은 점점 탈출의 시간이 지체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길버트도 그의 뒤를 따라온 수하들도 그것을 느꼈는지 지금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한 이들이 쉴 틈 없이 움직이던 다리를 굳건히 멈춰 세웠다.

“여긴 저희가 막을 테니 길버트님께서는 어서 왕녀전하를 데리고 무사히 빠져나가십시오!”

스스로 방패막이가 되어 헤르세인과 길버트가 도망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체하겠다는 그들의 방법은 효율적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길버트 또한 빠른 판단력으로 그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임을 부정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길버트가 직접 선별하여 데려온 수하들이자 오랫동안 후작가에서 동고동락 하듯 가족처럼 지내온 이들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길버트의 망설임을 눈치 챘는지 방패막이가 되겠다며 자처한 3명의 수하가 길버트를 지나치며 마치 하나의 벽이 되어 검을 뽑아 들었다. 그리고 길버트의 망설임을 깨끗하게 없애주듯 그들은 하나가 되어 바짝 검을 잡고 외쳤다.

“길버트님! 여긴 저희들에게 맡기시고 어서 전하를 모시고 뛰시란 말입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 따윈 없었다. 이 자리에 남은 그들의 말처럼 헤르세인을 보호하고 이 성을 온전히 벗어나야할 의무가 아직까지 길버트에게 남아 있는 것이었다. 길버트가 다시 움직이는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수하들 역시 헤르세인 주변을 보호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헤르세인 역시 길버트의 뒤를 따라 맨발인 채로 레인 궁전을 향해 다시금 움직였지만 앞으로 몇 번이고 나아갈 때마다 제자리에 멈추기를 몇 번이고 반복해야 했다. 이곳의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왕성의 병사들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 질릴 정도로 헤르세인의 앞을 가로막았고 그럴 때 마다 길버트의 수하들이 제자리에 멈춰 희생을 선택했다.

“가십시오! 여기는 저희가 막겠습니다!!”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세 명, 네 명, 다섯 명. 점점 숫자가 늘어날수록 함께 뛰어온 그들이 스스로를 희생할수록 헤르세인은 분노가 타오르는 동시에 아랫입술을 깨무는 것이 고작이었다. 지금당장 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하물며 여느 기사들처럼 검조차 쥐어본 적도 없는 몸. 그들의 짐덩이가 되고 싶지 않아 맨발이 긁혀도 가시가 박혀도 희생한 자들에 비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에 헤르세인은 있는 힘껏 뛰었다.

“전하!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야합니까?”

어느새 도착한 레인 궁전. 헤르세인은 자신의 궁전을 살필 겨를도 없이 바로 비밀통로가 있는 층수를 설명하며 다시금 계단을 밟으며 뛰어야 했다.

“제 침실이 있는 층 쪽의 가장 구석진 서재에 비밀통로가 있어요! 그곳으로 가야 해요!”

왕녀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도둑질을 일삼던 그녀에게 뛰는 것은 언제나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때의 기억이 까마득한 과거가 돼서일까. 왕녀가 된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뛰어본 적이 없는 헤르세인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토록 목숨 걸며 뛰어본 것은 너무도 오랜만이기에 다리 전체가 찢어질 것처럼 통증이 왔다. 하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다. 지금 자신을 지키며 누구보다 목숨을 걸고 있는 자들이 바로 눈앞에 있지 않던가.

어린아이 같은 칭얼거림 따윈 결코 뱉어낼 순 없었다.

“이제 여기서 왼쪽 복도를 따라 이동해야 해요.”

서둘러 길안내를 하며 이제 막 코너를 꺾던 헤르세인은 문득 눈에 비친 자신의 침실 문을 볼 수 있었다. 뜀걸음으로 고작해야 10발자국 채 안될 침실과의 거리. 문득 침실에 있는 하나의 물건이 떠오른 헤르세인은 그것을 취하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침실을 외면할지 선택해야만 했다.

이대로 침실에 있는 물건을 외면하고 비밀통로가 있는 곳을 향해 뛰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 최선의 선택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물건을 외면하고 가기엔 너무나 소중했고 이대로 이 궁전을 나간다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 역시 컸다.

‘그 사람이 내게 남긴 유일한 유품… 하지만 그것을 내 욕심으로 가져가다 지금 이 상황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제 욕심을 채워 그가 제게 남긴 유일한 유품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 아닌, 현재 이 상황을 빨리 이 자리에 남아있는 모두와 함께 벗어나야한다는 책임감. 그가 남긴 유품을 두고 떠나는 것은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두 번 다시 이곳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보장 역시 없었다.

자신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니까.

억지로 침실 쪽을 외면하며 헤르세인은 길버트와 함께 비밀통로가 있는 서재를 향해 다시금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밀통로가 있는 장소에 도착해 헤르세인은 숨을 헐떡이며 모두가 어서 서재 쪽으로 들어가도록 손짓했다.

“이곳이에요. 어서 들어가요.”

소리가 세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서재 문을 닫은 다음, 헤르세인은 책꽂이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 비밀통로가 열릴 수 있는 장치를 찾아 단숨에 숨겨진 또 다른 문을 열었다.

“정말로 비밀통로가 있었다니….”

길버트가 의외로 놀란 눈을 했지만 지금은 여유롭게 감상할 시간 따윈 없었다. 헤르세인이 어서 들어가라고 신호를 주자, 길버트가 선두를 시작해 나머지 그의 수하들이 뒤를 따라 비밀통로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헤르세인이 들어가는 것을 끝으로 헤르세인은 다시 안쪽의 장치를 만져 비밀통로의 문을 닫음으로서 완전히 입구를 봉쇄했다.

“여기서 쭉 이동하다 보면 왕성 바깥의 숲과 이어진 버려진 민가와 연결된 문이 있어요. 우린 그곳에 도착할거예요.”

곰팡이 냄새와 먼지뿐인 비밀통로. 최대한 서두른다고 빠른 걸음으로 헤르세인은 계속 걷고 있었지만 특유의 긴 비밀통로 구조 때문인지 생각보다 출구에 도착하는 시간은 오래 걸렸다. 물론 혼자였다면 더 오래 걸렸겠으나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거의 뛰다시피 출구를 향해 뛰어온 헤르세인은 곧이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미세한 빛줄기의 형태에 손가락을 가리켰다.

“빛이 세어 나오고 있어요. 저쪽이 출구에요.”

헤르세인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모두가 빠르게 이동했다. 그리고 눈앞을 가로 막은 벽을 향해 길버트가 먼저 몸을 움직여 벽을 짚고서 힘을 밀어냈다. 그의 힘을 따라 앞을 가로막은 벽이 서서히 열리면서 완전히 빛이 쏟아져 내리자 어둠에 적응되었던 모두의 눈이 잠시 동안 미간을 찌푸리며 빛에 적응해야 했다. 하지만 빛을 적응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여전히 모두가 미간을 살짝 좁힌 채로 빠르게 바깥으로 나아갔다.

“이런 곳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길버트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건지도 몰랐다. 자신 역시 처음엔 이런 비밀통로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 말이다. 비록 유용하게 비밀통로를 썼던 과거가 있었지만 헤르세인은 애써 그 생각을 억지로라도 꾹꾹 눌러냈다. 지금 당장 과거의 기억을 생생히 빠질 틈 따윈 없었다.

헤르세인은 창가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주변 환경을 살펴본 후, 고개를 틀어 길버트에게 이제부터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인지 물었다.

“빠져나오긴 했지만 이제는 또 어디로 이동해야하는 거죠?”

헤르세인처럼 마찬가지로 창가에서서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는지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며 길버트가 대답했다.

“일단 수도 밖으로 완전히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후작님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전하, 혹시 말 타실 줄은 아십니까?”

아무래도 말을 타고 이동할 생각인지 길버트의 물음에 헤르세인은 아쉽게도 고개를 저어야만 했다.

“타본 적이 없어요. 여태껏 타볼 상황이 되지 못해서요.”

“그럼 저와 함께 타고 이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주십시오.”

“아니요, 제가 불편을 따질 상황이 아님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 후작과 만나기 전까진 저는 무조건 길버트, 당신의 말을 따르도록 하죠.”

언제 일지는 모르겠지만 헤르세인은 오늘 이후로 말 타는 것을 배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길버트와 함께 비밀통로가 이어진 빈 집을 나와 광장으로 향했다. 광장으로 향하기 전, 길버트는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자 주의를 기울였고 모두가 눈에 띄지 않는 도시 외곽 쪽에서 몸을 숨기고 있을 동안, 헤르세인은 길버트와 함께 말을 가져오는 후작가의 사병들을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무사히 말을 가져온 길버트의 수하가 빠르게 다가왔다.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 광장 주변으로 왕성의 병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하의 말을 듣던 길버트의 표정은 사뭇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다. 안 그래도 촉박한 시간 속에 광장 주변으로 왕성의 병사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면 붙잡히는 건 시간문제였다.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도망치는 것이 현재로선 이 방법뿐이기에 길버트는 말에 오르기 전 헤르세인이 말에 오를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다.

“전하, 말을 거칠게 몰수도 있으니 최대한 떨어지지 않도록 저를 붙잡으십시오.”

고개를 끄덕일 것도 없이 길버트의 도움을 받고서 말의 안장에 올라탄 헤르세인은 처음타보는 말의 아찔한 높이에 살짝 현기증이 왔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느낄 새도 없이 가뿐히 말의 안장으로 올라탄 길버트가 고삐를 잡는 동시에 말이 거세게 움직이자 헤르세인은 최대한 떨어지지 않고자 길버트의 허리에 제 팔을 감싸 안았다.

“이랴!”

길버트를 선두로 뒤이어 그의 수하들이 하나 둘씩 말을 몰며 뒤따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말의 속도가 빠른 동시에 위치상 광장을 지날 수밖에 없는 도로 구조상 4마리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말의 모습은 타인의 눈에 포착되기 쉬웠다.

“잡아라! 헤르세인 왕녀다!!”

“저쪽이다! 어서 잡아라!!”

벌써 광장에 모여든 병사들 때문에 헤르세인의 모습은 금방 발각되었다. 하지만 말의 속도를 따라잡기에 병사들의 뜀박질은 거리를 잡기 불가능이었고 어느새 도시를 돌파할 관문이 보이기 시작했다.

“전하! 꽉 잡으십시오! 지금부터 관문을 막고 있는 병사들을 돌파해야 합니다!”

고개를 옆으로 기울일 여유 따윈 없었다. 헤르세인은 길버트의 허리를 꽉 잡았고 동시에 관문을 돌파하는지 말의 빠른 돌진에 사색이 된 병사들의 도망치는 소리가 간간히 들린 것 같았다.

“전하! 관문 밖으로 완전히 나왔습니다! 이대로 그레이스 후작가의 별장 루트를 통해 본가가 있는 영지로 이동하겠습니다!”

길버트의 허리를 잡던 헤르세인의 힘은 살짝 빠졌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경계를 풀 순 없었다. 헤르세인은 고개를 돌려 눈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도시의 관문을 볼 수 있었다. 허둥지둥하며 창과 검을 들고 쫓아오려는 관문의 병사들 모습과 관문 뒤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왕성의 모습.

이로서 완전히 카타리아 왕후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카타리아 왕후의 독살 사건 이후 헤르세인이 지하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은 수도에 있는 귀족들의 귀에 이미 들어가 있었다. 그러다 재판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그녀의 탈옥 소식은 귀족들에겐 무척이나 떠들썩한 주제가 되었으며 사교모임을 연 귀부인들 사이에서도 헤르세인의 이야기는 떠나질 않았다.

한편 수도에 있는 모두가 헤르세인에 관하여 떠들고 있을 동안 무사히 그레이스 후작과 만나 그의 별장을 거쳐 무사히 본가가 있는 영지에 안착한 헤르세인은 며칠이 지나도록 밤을 세가며 후작과 함께 앞으로의 행보에 관한 논의를 계속 주고받으며 계획을 짜고 있었다.

“오늘은 편히 쉬시는 게 어떠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걱정스레 묻는 후작의 권유에도 헤르세인은 고개를 저으며 쉬기를 거부했다. 물론 그녀의 행동처럼 계획은 치밀히 짜야만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 다분하기에 밤을 새가며 병력을 구사하고 전략을 짜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 일의 핵심인 헤르세인이 있는 이상, 그녀의 상태도 중요했기에 후작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이번엔 진지한 자세로 헤르세인에게 쉬기를 권고했다.

“당장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나, 전하께서는 저희에게 없어선 안 될 존재와도 같습니다. 전하께서 무탈하셔야 전하를 따르는 이들도 걱정 없이 전하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이만 침실에 돌아가셔서 쉬십시오. 정말로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전하.”

“…그렇게 내 안색이 안 좋은가요?”

“예, 전하.”

망설임 없이 바로 고개를 끄덕이는 후작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결국 고르게 숨을 토하며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후작께서 강하게 말하시니 오늘은 이만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다시 뵙지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하녀를 통해 말씀해주십시오.”

이곳에 묵으면서 워낙 후작이 잘 대해줬기에 헤르세인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없었다. 지금 당장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그녀에게 가장 급한 것은 병력의 문제. 하지만 당장 병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알기에 그것을 잠시 접어두고서 헤르세인은 침실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누님!”

마침 침실로 돌아가던 도중 맞은편에서 부딪친 빈센트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잠시 동안 피곤함을 지우며 빈센트의 맞은편으로 걸어갔다.

“침실로 돌아가는 중이니?”

“예, 누님. 누님도 침실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그보다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후작이 보는 눈과 빈센트가 보는 눈 역시 비슷했는지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제 뺨을 건들며 입술을 달싹였다. 거울을 제대로 본지가 언제였던가. 분명 두 사람의 말대로라면 현재 자신의 꼴은 엉망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빈센트를 봐서 일까. 어느 정도 생각과 심적으로 조금은 여유가 생긴 헤르세인은 옅게 입꼬리를 올려 빈센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내 걱정 해주는 거니?”

그러자 당연하듯이 빈센트가 두 손 가득 주먹을 불끈 쥐며 고개를 크게 위 아래로 움직였다.

“물론이죠! 누님께서는 좀 더 쉬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요.”

“어째서?”

“그야… 누님께서는 누가 말리지 않으면 도통 쉬시질 않으니까요.”

틀린 말은 아니었다. 쉴 생각조차 없을 만큼 지금 상황에선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고 나아갈지가 관건이었으니까.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헤르세인 역시 빈센트가 이곳에서 적응하고 있을지 걱정이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왕성에서만 살았던 빈센트였다. 그런데 자신으로 인해 왕성을 벗어나 그레이스 후작의 영지까지 내려와 생활을 하는 건 어쩌면 왕자의 신분으로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헤르세인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부드럽게 금발의 머리를 쓰다듬던 손끝을 내려 자연스럽게 헤르세인의 손끝은 빈센트의 뺨에 닿고 있었다. 그리고 간지럽히듯 엄지손가락으로 뺨을 살짝 쓸어내리자 빈센트는 수줍은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생각지 못한 행동을 보이는 헤르세인을 불렀다.

“누, 누님?”

“빈센트.”

“네, 말씀하세요.”

“어디 불편한 곳은 없니?”

그제야 그녀의 행동에 이유를 알게 된 빈센트는 부드럽게 미소를 그리며 고개를 위 아래로 정확히 끄덕였다. 그녀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제는 눈빛과 표정만으로도 알 것 같아 빈센트는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표정으로 헤르세인의 손을 맞잡았다.

“전혀 없어요. 불편한 게 있기는커녕 그레이스 후작이 너무나 저를 배려해줘서 오히려 그게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그래도 미안하구나. 나로 인해 너까지 도망치게 만들어서.”

빈센트는 고개를 저었다. 어째서 제 누이는 그런 말을 하는 걸까. 이유를 알고 있음에도 스스로를 탓하는 누이에게 빈센트는 그녀가 죄책감을 갖지 않길 바랐다.

“누님 탓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계속 그곳에 남았더라면 분명 저는 그들의 인질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로 인해 누님을 곤란하게 만들었겠죠.”

“빈센트….”

“그러니 누님, 제가 미안해하지 마시고 죄책감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곳에 있는 이상, 누님은 누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꼭 해내시면 돼요.”

올곧은 눈으로 저를 보고 있는 푸름의 눈동자. 그리고 자신의 바라는 일이 꼭 해내길 바라는 어린 응원의 말. 손끝과 턱 끝에 힘이 들어갔다. 헤르세인은 뺨을 쓰다듬던 손을 내려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두 손에 힘을 주었다. 그것은 빈센트가 말한 것처럼 이 싸움에서 이겨 왕좌에 앉겠다는 의지와도 같았다.

“꼭, 이 싸움에서 이겨서 너와 나 당당히 우리가 있어야할 왕성으로 돌아가자.”

“네, 누님. 제 작은 힘을 보태서라도 누님의 힘이 되어드리겠어요.”

빈센트와 헤어지고 조용히 침실로 돌아온 헤르세인은 마침 이부자리를 깔끔히 준비하고 있는 라즐리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마무리가 끝났는지 라즐리가 곁으로 다가왔다.

“전하, 피곤하시죠? 어서 쉬세요. 바로 주무실 수 있도록 세숫물이랑 갈아입을 잠옷과 좀 더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수면에 좋은 찻잎도 준비 해두었습니다.”

“응, 고마워.”

라즐리의 도움을 받으며 헤르세인은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어 바로 침대에 눕기 전, 그녀가 준비해둔 차를 마셨다. 그리고 차를 다 마시기 전에 라즐리의 밤 인사를 받고서 어느새 침실에는 헤르세인 혼자 뿐 이었다.

“....”

풀벌레 소리도, 부엉이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침실의 고요한 적막. 지하감옥에서 빠져나온 후, 헤르세인은 후작의 영지에 도착한 순간부터 쉴 틈 없이 잠을 자지 않고 달렸었다. 워낙 상황이 급변했던지라 잔다는 생각조차 잊은 채, 헤르세인은 후작과 함께 앞으로의 싸움에 관한 일만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것을 다시 정리하여 계획을 짜야만 했다.

그렇다보니 너무 무리하게 달린 탓일까. 이제 그 체력이 고갈되었는지 라즐리가 준비해준 찻물 덕분에 두 모금 정도 마셨을 뿐임에도 헤르세인은 지독한 피곤이 몰려오고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헤르세인의 기준으로 쉰다는 것과 잠을 잔다는 것은 그저 짧지도 그렇다고 길지 않은 아주 잠깐의 손에서 흘러내리는 모래알 같은 시간. 어차피 달디 단, 긴 잠은 없었고 여느 때처럼 자동적으로 눈을 붙이고 저절로 눈이 떠지면 여전히 이른 새벽일뿐인 시간에 불과했다.

아직 채 식지 않은 찻잔을 내려두고서 헤르세인은 자리를 떠나 침대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이불속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운 후, 눈을 감은 순간 헤르세인은 실로 오랜만에 조금은 긴 잠에 빠질 수 있었다.

헤르세인이 지하감옥에서 탈출한 지, 정확히 일주일 째 되던 날. 아직까지 왕성에서 헤르세인을 찾기 위해 움직이는 병사들의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었다. 더욱이 헤르세인이 기어코 수도를 벗어나 그레이스 후작의 영지로 숨어버렸다는 소식을 접한 카타리아 왕후의 히스테릭은 끝에 달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어떻게! 그년을 붙잡았는데!! 근데 그년 하나 못 잡아서 이 사단을 만들어?!”

헤르세인의 탈출 이후로 제정신이 아닌 왕후였지만 완전히 손에서 놓친 것은 물론, 그레이스 후작의 영지로 숨었다는 소식을 접하자 카타리아 왕후는 마치 정신을 놓아버린 광인처럼 주변에 있는 물건이란 물건을 모두 집어던지고도 화를 삭이지 못했다.

쨍그랑─!

이로써 벌써 몇 개째 깨진 도자기와 찻잔일까. 카타리아 왕후의 궁전에 소속된 시녀들은 물론 하녀들 역시 왕후가 무언가를 던질 때마다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다. 저러다 혹시라도 자신들이 눈에 띄어 집어던져 깨지는 도자기 마냥 머리채를 잡히지 않을까, 또는 채찍질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에 몇몇 시녀들은 거의 울상으로 왕후 궁전의 소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헤르세인! 헤르세인!! 헤르세인──!!!”

이제는 도자기도 모자라 눈이 뒤집혀 액자까지 부실기세로 분노를 표출하는 왕후의 모습에 그 누구도 감히 나서는 이는 없었다. 하지만 그나마 시녀들과 하녀들의 유일한 구세주라 할 수 있는 윌리스 왕태자의 등장으로 왕후의 히스테릭은 조금 가라앉을 수 있었다.

“어머니, 또 분을 못 이기시고 이러시는 겁니까?”

“윌리스! 너 역시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내가 우스운 것이야?!”

“그런 게 아니라고 대체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윌리스는 웬만하면 이곳에 발걸음을 옮기고 싶지 않았다. 안 그래도 왕태자로서 제 아버지를 대신 해, 왕실업무를 대리청정 하는 것은 물론 그것 말고도 윌리스가 해야 하는 일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거기다 왕후의 독살 소동으로 죄인이 된 헤르세인의 갑작스러운 탈옥소식과 함께 그 일을 처리해야하는 일 또한 어떻던가? 어떡해서든 헤르세인에 관한 소문을 퍼지지 않도록 억누르려 했으나 귀족들의 입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바람과도 같았다.

귀족들을 신경 쓰랴, 헤르세인 문제로 신경 쓰랴. 더욱이 매번 침실에서 술만 마시고 있는 제 아버지를 신경 쓰랴. 윌리스는 몸이 부족할 만큼 신경써야할 것이 한 두 개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을 모른 채, 헤르세인을 붙잡지 못하고 재판에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를 표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윌리스는 정신적으로 지쳐가고 있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아무리 어머니라 해도 저 역시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윌리스! 네가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 계집을 몰아넣었는데!! 내가 내 목숨을 바쳐 널 위해! 그 계집을 죽이려 했는지 그걸 알고도 네가 감히 내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어머니께서 어떤 의도로 그렇게까지 일을 계획하셨는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나서지 않아도 될 만큼 저는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그 행동이! 저를 얼마나 무능력하게 만드셨는지 알고는 계신 겁니까?!”

“윌리스!!”

이 이상 말을 섞는 건, 감정소모일뿐더러 이런 식으로 말싸움하고자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가 되지 못했다. 윌리스는 냉정히 등을 보이고 돌아서, 문 밖으로 나서기 전 한 번도 그녀에게 보여주지 않던 싸늘함을 보여주었다.

“어머니께서 시작하고 저지르신 일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벌이신 일을 없던 일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어차피 헤르세인과는 대치했어야 하는 일. 그 일이 어머니 덕으로 앞당겨진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윌리스….”

“헤르세인은 오늘부로 어머니를 독살하려한 악질의 죄인으로서 현상수배범 전단지가 전국 각지에 뿌려질 것입니다. 그러니 헤르세인에 관한 일은 이제 저에게 온전히 맡기시고 당분간 어머니께서는 이 궁에 한발자국도 나오지 마십시오.”

“그, 그게 무슨 말이냐. 나오지 말라니? 지금 네가 나를 이 어미의 발을 꼼짝 없이 묵어 두겠다는 것이냐?! 윌리스! 어찌 네가 내게 이럴 수 있어!!”

카타리아 왕후는 윌리스가 제게 내린 말을 믿을 수 없는지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윌리스는 전혀 듣지 못한 싸늘한 표정 그대로 왕후의 침실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문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비병에게 눈짓을 하자, 왕후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활짝 열려 있던 침실의 문은 굳건히 닫혀 잠기고 말았다.

하지만 문이 닫혔음에도 문을 거세게 두드리며 소리를 내지르는 왕후의 목소리. 그럼에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윌리스는 앞으로 이 문을 지키고 있을 경비병에게 단단히 주의를 일러두었다.

“내 명이 떨어지기 전까지 절대로 어머니를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라. 또한 그 누구도 이곳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도록.”

얼마 후, 수도부터 시작해 모든 지방으로 하여금 헤르세인의 현상수배가 떨어졌다. 왕후를 독살하려 했다는 죄명과 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탈옥했음을 유독 강조한 윌리스 왕태자. 역사상 사브레 왕족 중 독살을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 범죄처럼 현상수배에 걸린 왕족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그 전례를 뒤집어 버리듯 윌리스 왕태자는 헤르세인에게 현상금을 걸어 그 누구라도 이 일에 나서기를 적극 강조했고, 그대로 왕위를 물려받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그 누구도 모르는 이가 없었다.

여느 때처럼 나랏일을 하고자 왕성으로 모여드는 귀족들의 발걸음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는지 서로 아는 얼굴을 만난 귀족들이 은근슬쩍 무리 속으로 들어가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언제까지 이 주제가 끝날지 모를 헤르세인과 윌리스 왕태자에 대한 이야기를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식은 들으셨겠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왕족을 악질적인 범죄자 마냥 현상수배범으로 만들다니요?”

“그러게 말입니다. 물론 헤르세인 왕녀전하께서 이 사단을 낸 건 사실이나 그래도 엄연히 왕족이 아닙니까? 왕국 역사상 그 어떤 죄를 저지른 왕자들에게 조차 현상수배 같은 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현 국왕폐하부터 보십시오. 모두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의 국왕폐하께선 그 자리를 어찌 앉으셨습니까? 결국 혈육을 모두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분이 아니십니까?”

그들의 말처럼 가장 죄악이라 할 수 있는 폐륜을 저지른 위스턴 국왕조차 당당히 왕좌에 앉고 있는 현실이었다. 그런데 독살 사건 하나로 도망친 왕녀에게 현상수배를 내린다? 물론 도망친 왕녀를 빨리 잡기 위해서 현상수배를 내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헤르세인이 독살하려던 카타리아 왕후는 멀쩡히 살아있음은 물론, 요즘 들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본인의 궁전에 연금되어 있다는 소식만이 퍼져 있을 뿐이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물론 현재 정무를 대신 이끌고 있는 윌리스 왕태자 전하의 업무처리 능력이 떨어진다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왕태자전하께서 내리신 헤르세인 왕녀전하에 대한 수배명령이 아직까지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다르게 생각하면 왕태자전하께서 이번 일을 계기로 그 자리에 굳히기를 하려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당장 왕위를 물려받는 것에 가장 유력한 후보는 윌리스 왕태자전하가 아닙니까?”

헤르세인의 수배가 떨어진 건 당장의 일. 앞으로 그녀의 행보는 물론 나라 전체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아무튼 간 당분간 저희도 몸을 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토록 점잖던 왕태자전하께서 처음으로 왕후폐하를 연금하지 않았습니까? 분명 이번 기점을 시작으로 왕실에 피바람이 불 것입니다.”

과연 헤르세인과 윌리스 왕태자의 싸움이 어떻게 될지 그 미래를 아는 이는 없었다. 단지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는 왕위를 쟁탈하기 위해 커다란 피바람이 불어 닥칠지, 혹은 한쪽만 감쪽같이 사라질지 알 수 없는 법. 하지만 한쪽이 사라진다 해도 결국 왕위를 차지하는 승자만이 살아남는 법. 귀족들은 서로 몸을 낮추고 당분간 이 사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어느 쪽으로 저울을 기울일지 두고 볼 따름이었다.

그레이스 후작은 제 딸에게 조차 보여주지 않던 싸늘하게 가라앉은 얼굴을 하며 길버트가 가져온 헤르세인의 현상수배 전단지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어떤 상황에도 표정한번 흐트러지지 않던 후작이었으나 이번 윌리스 왕태자가 전국으로 뿌린 현상수배 전단지에 대한 당혹과 놀라움이 컸는지 후작은 몇 번이고 주먹 쥐고 펴기를 반복했다.

“제가 아무래도 윌리스 왕태자를 카타라이 왕후와는 다르게 보고 있었나 봅니다. 설마, 왕후처럼 이런 저급한 방식으로 전하를 범죄자로 만들다니요!”

“…그렇습니까?”

“전하! 이 일은 그냥 넘어가선 안 될 문제입니다! 그 어떤 역사를 뒤져봐도 왕족에게 악질 범죄자 마냥 현상수배가 된 왕족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러다 뒷목 잡고 쓰러지지 않을까 싶을 만큼 그레이스 후작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현상수배 전단지를 눈빛으로 찢어버릴 정도로 노려보는 후작과 달리, 그것을 무심히 내려다보고 있는 헤르세인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다. 물론, 윌리스 왕태자가 자신에게 설마 현상수배를 내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자신을 현상수배범으로 만들만큼 왕후의 성격마냥 똑같은 행보를 보인 그의 행동이 의외이긴 했다.

‘나를 현상수배범으로 낙인찍고 그 기세를 몰아 제자리를 굳힐 생각인건가?’

현상금이 얼마가 되었든, 전단지에 자신의 죄목이 어떻게 쓰여 있든 헤르세인에겐 중요치 않았다. 애초에 전부 만들어진 거짓 뿐 이었고 고작 현상수배 전단지에 흔들릴 만큼 헤르세인이 슬럼가에서 살았던 시절은 현상수배 보다 더 지독한 시절을 떠올리겠끔 만들었다.

“이 싸움에서 이기고 현상수배 전단지에 적힌 죄목들은 전부 거짓이라 말하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귀족들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시간도 많이 흘렀고요.”

처음에는 다빈느 후작의 지목과 그의 선동으로 움직이는 귀족들은 분명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다수의 귀족들은 점차 생각이 바뀌고 추론할 것이 분명했다. 귀족들은 아라네아 왕비가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을뿐더러 왕족의 사생활을 깊이 알고 있는 이들은 없었다. 때문에 그들의 시선으로 헤르세인 왕녀란 존재는 처음엔 단순한 이름뿐인 왕녀였을지 몰라도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동시에 이제는 감히 비웃을 수 없는 유일한 직계혈통의 왕녀.

하물며 직계혈통의 왕녀라 해도, 귀족 모두가 부정하지 않을 것이었다. 헤르세인 왕녀는 카타리아 왕후를 독살할 만큼 힘을 갖지 않은 존재임을. 물론 직계혈통이란 핏줄의 힘은 거대했지만 핏줄의 힘과 실질적으로 사람을 좌지우지 하는 권력의 힘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 두 가지 중, 헤르세인에겐 권력은 없었고 그저 순수성만 따질 직계혈통의 힘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런 왕녀가 카타리아 왕후를 독살한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왕후를 독살할 만큼 헤르세인 왕녀에겐 이득이 없다는 것을 귀족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랐다. 오히려 독살을 하여 이득을 얻을 대상은 가장 왕위와 가까운 윌리스 왕태자 아니던가.

물론, 다빈느 후작의 선동에 넘어가 그것을 그대로 믿는 소수의 귀족 역시 존재할지도 몰랐다. 어디에나 늘 예외는 있는 법이었고 헤르세인 역시, 마음으론 누구보다도 카타리아 왕후를 제일먼저 처리하고 싶은 1순위의 인물이기도 했다.

“그렇다 해도, 전하의 말씀처럼 저희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선 병력이 더 필요합니다. 수도에 있는 대다수의 귀족들은 아마 이번 기점으로 윌리스 왕태자의 눈치를 보느라 대다수가 움직임을 자중할 것입니다. 윌리스 왕태자가 전하를 현상수배범으로 만든 것은 전하뿐만이 아닌 귀족들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와도 같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 당장 힘이 되어줄 귀족들의 병력이 필요합니다. 또, 보급과 지원을 대줄 상단 역시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일단 수도 쪽에 있는 귀족들보다 지방 쪽에 퍼져 있는 귀족들을 먼저 상대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은….”

헤르세인은 더 이상 현상수배 전단지에 시선을 두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런 종이는 없었던 것처럼 다 식어버린 차를 모두 마신 후, 매섭게 찻잔을 내려두며 실로 오랜만에 단알의 이름을 꺼내었다.

“단알. 정식으로 가주가 된 것은 아니나, 어찌됐든 임시가주로 인정한 윌리스 왕태자입니다. 그러니 내일 당장 단알로 가, 엘리카와 만나겠어요.”

“당장 내일 말입니까? 다행이도 저희 쪽 영지와 단알로 가는 길이 가깝긴 하지만… 그녀를 믿을 수 있을지….”

현상수배 전단지 때문인지 아무래도 엘리카의 배신이 염려된 후작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단숨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었다. 제 아무리 안전해 보이는 돌다리라 해도 자칫 잘못하다 무너져 내릴 수도 있지 않던가.

“그럼 당장 내일은 말고 엘리카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녀에게서 답신을 받는 대로 단알로 내려가도록 하죠. 상황이 급한 건 우리 쪽이긴 하지만, 현상수배 전단지가 전국으로 퍼진 이상, 주의하며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예, 저도 그렇게 움직이는 편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럼, 즉시 프레이 가문에 편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뇨, 편지는 제가 직접 쓰도록 하죠.”

헤르세인이 편지를 직접 쓴 이후, 그레이스 후작이 단알에 있는 엘리카에게 가장 빠른 말로 하여금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다음 날. 늦은 오후가 될 때쯤 마찬가지로 가장 빠른 파발로 프레이 가문에서 엘리카가 헤르세인에게 답신을 보냈다.

"엘리카 밀스 프레이입니다.

헤르세인 전하, 그동안 편지 한통 보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전하께서 단알을 떠나신 이후, 눈코 뜰 새 없이 프레이 가문을 이끄는 것과 단알의 안정문제로 잘 시간이 부족할 만큼 바빴습니다. 이토록 일에 치여 본 건 생에 처음 있는 일인지라 저 역시 정신이 없어 미처 이쪽 소식을 전달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시간이 되어 전하께 편지를 보내려던 찰나 전하의 소식과 오늘 새벽의 시간에 전하께서 보내신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레이 가문은 전하께 큰 빚이 있는 것은 물론, 저는 언제나 전하의 힘이 되어줄 준비가 되었으니 부디 안심하시고 제가 직접 전하께서 계시는 그레이스 영지에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신- 혹시 이 편지가 의심되시거나 제가 의심되시면 그레이스 후작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제가 영지에 도착한 순간 저를 단신으로 끌고 가 볼모로 써도 된다고 말입니다."

편지를 읽고 나니 문득 그녀가 저를 인질로 붙잡아 끌고 가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치고 올라, 저도 모르게 입 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그레이스 후작은 아까부터 편지 내용이 궁금했는지 다급히 헤르세인을 불렀다.

“전하, 프레이 가문에서 보낸 편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직접 보세요. 특히 제일 밑 부분을요.”

“예? 대체 무슨….”

헤르세인에게서 편지를 받은 그레이스 후작이 빠르게 눈을 굴리며 어느덧 제일 밑 부분에 써진 추신을 읽어 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헤르세인처럼 단알에 있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는지 후작은 표정은 영 좋지 못했지만 엘리카에 대한 약간의 경계심을 풀며 마른입을 뗐다.

“그녀가 전하를 어찌 생각하고 있는지는 대충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정말로 전하의 힘이 되어준다면 저 역시 환영이니 말이지요. 그래도 본인을 직접 보고 이야기를 나눠야 제 의심이 풀릴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전하.”

“물론이에요. 후작께서는 계속해서 제가 만나는 귀족들마나 그런 식으로 제게 상기시켜주세요. 저 역시 제 사람이 아닌 자는 온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봐야 이제 막 싸움이란 것에 걸음마를 땐 왕녀에 불과하니까요.”

또 다시 날이 밝아오고 헤르세인은 그레이스 후작과 함께 엘리카를 맞이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였다. 물론 거창히 준비하는 것은 없었다. 마치 가문에서 그저 늘 있던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평범히 손님을 반겼다.

“헤르세인 전하.”

“오랜만이네요, 엘리카 공… 아니, 프레이 백작?”

프레이 가문의 인장이 박힌 마차가 아닌, 날렵하게 생긴 백마에서 가뿐히 내려 정복을 입고 예를 차리는 엘리카의 달라진 인상을 볼 수 있었다. 그녀를 안 본지 기껏해야 한 달 채, 될까 말까인데 그 사이 무언가의 변화가 있었는지 단알에서 보았던 인상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에 헤르세인은 놀라면서도 오히려 지금 그녀의 모습이 보기 좋게 느껴졌다.

“보기 좋네요, 그 모습.”

“아, 그런가요? 아무래도 드레스를 입고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보다 이렇게 정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편이 더 효율적이어서요. 칭찬이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보다 백작이 아닌 편히 엘리카라 불러주십시오. 아직은 정식 가주가 아닌지라 백작이라는 칭호가 어색해서 말이죠….”

그녀가 뺨을 긁적이며 호칭을 편히 불러줄 것을 부탁하자 헤르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리고 방금의 말은 칭찬이에요. 지금의 그 모습을 다른 누군가 본다면 분명 당신을 임시가주가 아닌 프레이 가문의 가주라고 모두가 생각할 테니까요. 당당해지세요, 엘리카.”

“예, 전하.”

헤르세인은 옅게 올라간 미소와 함께 바로 옆에 있던 그레이스 후작과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후작도 아직까지 경계를 풀고 있지 않으나 경계의 허물을 한 꺼풀 벗어냈는지 후작이 손을 내밀며 엘리카를 환영했다.

“그레이스 영지에 온 걸 환영하네,”

헤르세인이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엘리카는 프레이 가의 임시가주를 맡으면서 빠르게 단알을 안정시켜갔다. 물론 단알의 안정기가 접어들기까지에는 수 개 월,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녀의 빠른 일처리와 업무성과가 훌륭한 덕분인지 확실히 단알은 예전과는 다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하지만 엘리카는 분명 한 시도 움직일 틈이 없는 바쁜 업무에 시달리는 몸임에도 헤르세인에게 그 은혜를 갚고자 그레이스 영지까지 전속 사병들을 이끌고 찾아왔다.

“조금은 고민했어요. 엘리카, 그대에게 내 힘이 되어주길 부탁할지 말지를. 당장의 단알을 생각하면 아직까지 당신의 힘을 빌리기엔 무리니까요. 그럼에도 이곳까지 날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해줘서 정말로 고마워요.”

“별말씀을요. 오히려 제가 전하께 힘이 되어드리는 것은 당연한걸요? 물론, 전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저와 함께 했던 동료들 덕분에 단알의 사정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제 존재의 문제로 걱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를 대신할 유능한 보좌관에게 단알의 업무를 맡기고 온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또, 이곳에 도착하기 전까지 빠른 전서구를 통해 업무얘기도 서로 주고받으며 오던 길이었어요.”

“다행이네요. 이제는 정말로 단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헤르세인은 그레이스 후작의 추가 적인 설명을 들으며 엘리카에게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리고 무척이나 진중하게 이야기를 경청하던 엘리카 역시 후작의 설명을 들으며 병력 문제와 병력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의 무기가 될 물자조달 등 상세히 콕콕 집어 재차 질문을 하고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엘리카가 몸소 적극적으로 나서준 덕분인지 그녀를 만났음에도 말을 섞기 전까지 완전히 신용하지 않던 그레이스 후작은 이내 경계를 풀어 목이 마를 정도로 어느새 이야기는 토론까지 진행되고 있을 쯤 이었다.

“잠시 쉬시고 차를 드시는 게 어떠세요? 벌써 세 분 모두 이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은지 세 시간이 훌쩍 넘은 건 아시죠?”

라즐리와 함께 다과를 챙겨온 아이르리스가 싱긋 웃으며 세 사람이 마주하고 앉은 테이블 위로 갓 구운 쿠키가 담긴 바구니와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찻잔에 찻물을 따르기 전 아이르리스는 엘리카에게 첫 인사를 건넸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아이르리스 룬 아르네 그레이스 라 합니다. 편히 아이르리스라 불러주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프레이 가의 임시가주인 엘리카 밀스 프레이 라 합니다. 그래도 아직 이제 막 얼굴을 뵌 분이니 당분간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말씀 높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아이르리스 부인.”

“네, 언제든 편하실 때 되면 ‘부인’은 빼주세요. 저 역시 엘리카님께서 어색하지 않도록 똑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엘리카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차를 좋아하세요?”

“아, 저는 레몬 티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르리스가 라즐리와 함께 차를 준비하고 어느새 자리는 티타임이 되었다. 아이르리스까지 자리에 함께하며 차를 나누면서 이야기의 꽃을 피웠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토론으로 인해 딱딱했던 분위기는 쉬폰 케익처럼 말랑하게 바뀌고 있을 쯤 이었다.

“저는 일이 따로 있어 먼저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저녁식사시간이니 그때까지 휴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작이 자리를 비켜주게 되면서 헤르세인과 아이르리스, 그리고 엘리카 이렇게 세 사람이 남게 되었다. 접객실의 내부는 아직까지 어색한 공기가 감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친화력이 좋은 아이르리스의 덕으로 이야기꽃이 피면서 어느새 어색한 공기는 사라지고 세 사람의 자잘한 웃음은 끝나지 않았다.

저녁시간이 다가오고 후작의 배려로 식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엘리카는 그레이스 일가와 헤르세인이 앉은 또 하나의 자리에 앉아 하녀들이 나르는 음식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단알과는 다른 그레이스 가문의 특색 있는 요리에 엘리카는 눈으로도 맛을 즐기며 생각보다 더 괜찮은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한 엘리카와 헤르세인, 그리고 그레이스 후작은 새벽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입을 움직이며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으며 계획을 수정하기를 반복했다. 중간마다 길버트까지 참여해 어쩌다 가끔씩 서로가 의견이 충돌될 때가 있었지만 아이르리스의 등장으로 한껏 올라갔던 열의는 어느새 진정될 수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안 그래도 이곳까지 오느라 피곤했을 텐데 괜히 새벽까지 붙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에요. 간만에 열띤 토론을 한 것 같아 꽤 재밌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쉬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전하, 그리고 그레이스 후작님과 소가주님,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엘리카가 먼저 자리를 뜨게 되면서 어느새 그녀가 오래 앉고 있던 자리는 빈자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를 시작으로 모두가 잠자리에 들고자 하나 둘씩 자리를 뜨게 될 쯤, 자리에서 일어난 헤르세인은 지도와 체스 말처럼 병력의 깃발을 띄고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을 때였다.

“걱정되십니까? 전하?”

“아직 안가셨군요.”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지 일찍 잠이 들곤 하지만 반대로 점점 잠이 짧아지더군요. 그래도 아직까진 버틸 만합니다. 그래서 무슨 고민이십니까, 전하.”

왕실의 병력을 가리키는 작은 목각 깃발을 들어 그것을 손장난처럼 가지고 놀던 헤르세인은 꽤 오랫동안 침묵을 유지하다 입을 뗐다.

“아직 왕실의 병력에 비하면 저희의 병력은 턱없이 부족하겠죠?”

“예, 아직은 그러합니다. 거기에 보급과 물자를 대줄 상단도 아직 구하지를 못했으니…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분명 저희를 도와줄 상단이 있을 겁니다.”

그리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 만에 하나 자신의 힘이 되어줄 귀족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면? 상단도 없다면 그땐 어떻게 되는 걸까. 아니, 어떻게 될 것도 없이 그것은 바로 죽음이나 마찬가지였다. 감옥에서 탈출하고 나서부터 시작된 싸움. 겉으론 왕위 쟁탈싸움이란 이름이 붙여졌을지 몰라도 이것은 엄연히 왕위에 도전하는 반란이나 다름없었다.

그 반란의 최후가 승리일지 패할지 그 미래를 짐작하지 못할 뿐. 헤르세인은 목각 깃발을 내려두고서 창가에 다가가 새벽의 깊은 밤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앞날처럼 그 어떤 것도 짐작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감음의 깊이. 헤르세인은 이윽고 다시 뒤를 돌아 여전히 자리를 떠나지 않은 그레이스 후작에게 자신의 결의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결코 이 싸움에서 패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나약해질 틈 따윈 없어야 되요.”

“예, 전하. 소신은 물론 반드시 전하를 도울 이들과 함께 전하를 왕좌에 자리에 앉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침실로 돌아온 이후, 헤르세인은 잠에 들지 않았다. 그레이스 후작과 라즐리가 아무리 잔소리처럼 쉬라고 했음에도 도통 쉴 수가 없었다. 잠에 들어도 잠에 들지 않아도 현재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헤르세인을 더더욱 잠들지 못하게 했다.

오히려 한번 생각에 빠지면 빠질수록 도통 피곤할 새도 없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헤르세인은 또 다시 아침이 되도록 생각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잠을 자지 못한 원흉은 다름 아닌 상단 때문이기도 했다. 자신의 힘이 되어줄 귀족들은 둘째 치더라도 결론 적으로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건 결국, 상단이었다.

상단이 있어야 전쟁 물자가 원활히 보급될 것이고 상단이 있다면 타국으로까지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 다른 무기들을 조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수도 내의 상단을 생각하면 이미 윌리스 왕태자와 손을 잡은 상단이거나 혹은 대다수의 귀족들이 상단 내의 곳곳에 손을 뻗고 있어 헤르세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적당한 상단이 떠오르지 않았다.

또 지방내의 작은 상단을 생각하면 그건 그거대로 규모가 작아 물자를 보급한다 해도 수도만큼의 상단이 갖고 있는 물량을 버틸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했다.

‘어떻게 하면 적당한 상단을 찾을 수 있을까.’

잠도 들지 않은 채, 제자리에 앉아 생각에 빠져 있기를 수 시간. 그리고 이제는 습관처럼 탁자를 두드리는 검지손톱의 끝은 살짝 무뎌져 있었다. 헤르세인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쯤, 언제 문을 두드렸는지 결국 문을 열고 빈센트가 조심스럽게 헤르세인을 불렀다.

“누님?”

“....”

“누님!”

“…아… 빈센트?”

빈센트의 목소리로 완전히 현실에서 깨어난 헤르세인은 의아한 얼굴로 빈센트에게 물었다.

“잠깐 생각할게 있어 못 들었구나. 그보다 무슨 일이니?”

“아, 그게 곧 아침 드실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내려갈까 해서….”

“...아침?”

헤르세인은 혹시나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가린 암막의 커튼을 가볍게 거두었다. 그리고 암막을 거두자 눈이 부시는 햇살에 헤르세인은 잠시 눈을 감으며 시력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

시력이 돌아오자마자 헤르세인은 멍하니 벌써 아침 해가 떠오른 창밖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저 잠깐, 고작해야 한 두 시간 정도 상단에 관해 정리하고 생각하고 있다 여겼지만 얼마나 자리에 꼼짝 없이 앉아 집중했는지 이미 아침 해가 떠오른 후였다. 거기다 이 맘 때쯤이면 진즉에 라즐리가 문을 두드리고도 남았을 거라 생각해 헤르세인은 빈센트에게로 시선을 향했지만, 빈센트는 눈치 챘는지 라즐리가 부탁한 것을 설명했다.

“라즐리가 누님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아까 제게 한번 왔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누님이 식당에 안 내려 오셔서 제가 라즐리 대신 온 거예요.”

“아....”

언제 다녀갔는지 모를 라즐리의 배려에 헤르세인은 옅게 입꼬리를 올리며 조금 피로해진 눈가를 마사지하듯 문질렀다. 잠을 자지 않아 녹초가 될 만큼 피곤한 것은 아니나, 빈센트가 목소리를 내지 않았더라면 제 생각에만 갇혀 머릿속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을지도 몰랐다. 오히려 빈센트 덕분에 잊고 있었던 누군가를 떠올린 헤르세인은 미소를 덧그렸다.

“덕분에 생각이 정리 된 것 같아. 고마워 빈센트.”

“저어 누님… 혹시 제가 방해한건 아니죠?”

“그럴 리가. 그보다 식당까지 같이 가겠니? 마침 배가 고프구나.”

“물론이죠!”

헤르세인이 먼저 손을 내밀자 누구보다 기쁘게 그녀의 손을 잡고서 작은 신사가 에스코트 하듯 누이와 함께 이동하는 빈센트의 얼굴은 무척이나 아침의 햇님처럼 밝았다. 어느새 빈센트의 작은 손짓에 이끌려 금방 도착한 1층의 식당.

이미 긴 식탁에는 그레이스 일가와 엘리카가 착석해 식사를 하고 있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포크질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헤르세인의 등장으로 모두 먹던 행동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헤르세인은 적당히 손짓을 하며 그들이 예를 갖추지 않고 평범히 식사해주길 바랐다.

“죄송해요, 전하. 기다린다고 기다렸는데 저희가 그만 너무 배가고파서… 그보다 전하! 설마 못 주무신 건 아니지요?”

아이르리스가 호들갑스럽게 헤르세인을 상태를 살피자 덩달아 맞은편에 앉은 후작과 엘리카 역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헤르세인의 안색을 살피기 바빴다. 하지만 그녀의 호들갑만큼 그다지 피곤하지 않은 헤르세인은 빈센트와 함께 자리에 앉아 물로 목을 축이며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요. 그보다 모두에게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어느새 제 앞으로 먹음직스러운 샛노란 오믈렛이 따끈한 김을 내며 헤르세인의 뱃속에 들어가길 기다렸지만, 정작 오믈렛이 아닌 식탁에 앉은 모두에게 시선을 주고 있던 헤르세인은 천천히 입술을 열어 식당에 오기 전, 빈센트 덕분으로 떠올린 상단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어쩌면 상단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부턴가 잊고 있었던 아클레아 상단. 그리고 그 상단을 이끄는 로렌드 그레이엄. 그를 자신의 상단으로 만든다면 이보다 더 든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아클레아 상단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직접적으로 확인한 것은 없으나 그를 통해 루드비카가 제게 해주었던 물질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능력이 있는 인물은 틀림없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개인적인 감정을 생각한다면 헤르세인은 로렌드가 불편하기도 했다. 앞으로 보아도 거꾸로 보아도 뒤집을 수 없는 루드비카와의 관계. 그리고 그가 빈센트로 하여금 제게 건넸던 루드비카의 편지를 생각하면 헤르세인은 그가 아닌 다른 상단을 찾고 싶었다. 그럼에도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 아클레아 상단을 생각한다면 아클레아 상단만큼 자신의 힘이 되어줄 상단은 더 이상 떠오르지 않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거듭 고민한 끝에 헤르세인은 선택했다.

직접 그를 대면하며 이야기 해볼 것을.

“아클레아 상단이라… 확실히 아클레아 상단은 여타 다른 상단과는 다른 대규모의 상단이긴 합니다. 저 멀리 동대륙의 물품을 쉽게 구하는 것도 그렇고 희귀한 품목들을 거래하는 것을 보면 거래 수완은 뛰어나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하께선 아클레아 상단과 안면이 있으신 겁니까?”

후작의 물음에 헤르세인은 고개를 단호히 저었다.

“고작 해야 두 번 정도 본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이야기를 길게 나눈 적도 없고 말이죠. 때문에 어찌 될지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또, 저 말고도 카타리아 왕후나 윌리스 왕태자 쪽에서 아클레아 상단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보장도 할 수 없으니까요.”

“예… 하지만 아클레아 상단만큼의 대규모 상단을 찾기란 힘든 것도 사실이지요. 아마 마르지 않는 물자를 댈 수 있는 곳이 아클레아 상단이 유일할지도 모르니… 하지만 진짜 문제는....”

후작의 근심이 표정으로 나오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헤르세인 역시 표정이 어두워질 수 밖에 없었다.

“예, 문제는 아클레아 상단이 수도에 있다는 점이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수도로 가냐는 것인데….”

현재 헤르세인에겐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어딜 가든 왕성의 병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특히나 수도로 가는 것은 그야말로 호랑이 소굴로 들어가는 꼴. 당장 움직이기엔 수배령이 발목을 잡았고 그저 가만히 앉아있기에는 조금씩 제 목을 옥죄올 카타리아 왕후와 윌리스 왕태자가 있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헤르세인은 후작에게 물었다.

“혹시, 아클레아 상단과 연락할 방법이 없을까요?”

“상단과 연락할 방법 말입니까? 글쎄요… 방법이… 아니, 어쩌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후작이 무언가를 떠올렸는지 밖에서 대기하던 집사에게 말을 전했다. 그리고 30분이 지나지 않아 노크소리와 함께 어떤 인물이 문을 열고 실내 안으로 들어섰다.

“이 사람은....”

“제가 꾸리고 있는 상단주 입니다. 인사하게.”

생각보다 젊은 상단주가 헤르세인에게 인사를 건네자 헤르세인은 가만히 후작과 상단주의 모습을 살폈다.

“제가 상단주를 오라고 한 이유는 이자를 통해 아클레아 상단과 연락을 하려 합니다.”

“아클레아 상단과 말인가요? 대체 어떻게….”

그러자 그 의문을 해결해줄 젊은 상단주가 예를 갖추며 설명을 시작했다.

“그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전국 각지에는 다양한 상단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수도의 상단주들이 마당발이 큰 이유는 마당발이 큼으로서 누구보다 거래품목에 대한 소식을 빨리 접하고 그에 따른 이윤과 이득을 얻고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경쟁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도에 있는 간판을 걸고 상단을 여는 대규모 상단과 다르게 저희처럼 후작각하의 이름으로 소규모 상단을 꾸리는 저희에겐 대규모 상단에서 파는 품목을 취하기 위해선 연락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마디로…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규모 상단에서 천금을 줘도 얻지 못할 품목을 저희 귀족 상단에서는 가주님의 재산으로 언제든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대규모 상단의 요청으로 품목을 구하기도 하죠.”

“그럼 아클레아 상단과는....”

“예, 다행이도 아클레아 상단과 몇 번의 거래가 있었던지라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 연락을 취할 방법이 있다는 소식에 헤르세인은 안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진 안심하기 이른지 후작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전하,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쪽과 연락을 취한다 해도 그 과정에 저희 쪽의 정보가 세어나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연락이 닿는다 해도 이쪽에서 정보를 들키지 않기 위해 익명으로 연락을 취하면 아클레아 상단이 무시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지도요. 하지만 계속 안전한 방법만 찾다가 오히려 우리 쪽이 더 불리해질지도 모르겠지요.”

어떻게 해야 안전하면서 로렌드 그레이엄이 자신임을 단숨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때, 한참을 생각하다 불현 듯 한 사람을 떠올린 헤르세인은 후작을 향해 한 가지 방법이 있을 설명했다.

“이 방법이 통할지 모르겠지만 후작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아클레아 상단주를 움직일 방법을.”

아르펜소 백작의 후원은 물론 모든 귀족들이 후원자가 되길 자청하던 천재 피아니스트, 라비올라 쟌. 라비올라는 여름의 마지막 연주회를 끝으로 오랫동안 휴식기를 취하고 있었다. 그래도 피아노에는 여전히 손을 떼지 않은 채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던 그는 점심쯤에 날라온 한 편지로 인해 연습도 마다하고 옷을 갖춰 입어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그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봄꽃을 연주했던 붉은 장미의 모습을. 그리고 붉은 장미와 함께 했던 푸른 나비. 푸른 나비는 붉은 장미를 기억하며 당신을 ‘에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푸른 나비를 만나러 나와 주시기를.』

언뜻 보면 팬레터 같으면서도 연애편지와도 같은 문장들. 하지만 라비올라는 문장들을 읽자마자 단숨에 기억해낼 수 있었다. 두 번 다시 잊지 못할 추억과도 같은 기억. 아무리 긴 휴식기에 피아노를 간간히 멀리하고 있음에도 라비올라는 자신의 삶을 바꾼 붉은 장미를 잊을 수 없었다. 하지만 푸른 나비. 붉은 장미는 분명 기억하고 있으나 푸른 나비까지 자세히 기억나지 않아 라비올라는 흐릿한 기억을 어떡해서든 떠올리며 편지에 적힌 ‘에델’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다.

봄꽃 그리고 에델. 피아노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피아노에 몸을 담고 있던 라비올라는 그 두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 봄꽃. 이것은 에델의 봄꽃을 만든 낭만파 작곡가, 모르트가의 연주곡이었으며 에델은 모르트가가 에델의 봄꽃을 만든 수도 바깥의 작은 꽃의 숲, 에델의 숲을 가리키는 뜻이기도 했다.

편지를 보낸 이가 왜 굳이 에델의 숲까지 불렀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붉은 장미를 언급한 이상, 마치 그가 부르기라도 한 것 같아 라비올라는 무조건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분명 여기일 텐데....”

한참을 달려 도착한 에델의 숲. 마차에서 내려 작은 오솔길을 따라 홀로 걷기 시작한 라비올라는 주변을 살피며 편지의 주인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거의 숲의 중간까지 도착 했을 때, 연못가에 서 있는 로브를 뒤집어 쓴 정체불명의 인영에 라비올라는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떼었다.

“저, 저기… 혹시 제게 편지를 보내신 분이십니까?”

그때, 등을 지고 서있던 정체불명의 인물이 로브를 벗고 얼굴을 드러내자 라비올라는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다.

“당신은....”

“나를 기억하나요?”

라즐리는 뒤집어쓰고 있던 로브를 벗었지만 여전히 얼굴에는 가면만을 쓴 채, 라비올라를 쳐다보고 있었다. 헤르세인과 똑같은 남색의 가발과 헤르세인이 썼던 비슷한 가면. 현재 라즐리는 헤르세인을 대신 해, 이곳에 와 있었다.

본래라면 헤르세인이 왔어야할 자리. 하지만 헤르세인이 직접 간다고 했음에도 후작과 길버트가 극구 말리는 덕에 이 자리는 헤르세인 대신 라즐리가 분장을 한 채로 와있는 상태였다. 언제 어디서 습격할지 모를 적을 조심하기 위해 제 주군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만 라즐리는 조금 두려운 한편으론 자신이 대신하여 왔다는 것이 후회되지 않았다.

언젠가는 은혜를 갚아야 겠다 생각은 했지만 막상 라즐리에겐 그 은혜를 갚을 기회가 없었다. 오히려 저를 배려해주고 불편한 것이 없냐는 헤르세인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라즐리는 더 없이 기뻤다.

하지만 저를 배려해주는 그녀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찰나, 라즐리는 제게 드디어 기회가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손을 번쩍 들어 누구보다도 자신이 할 수 있음을 어필했다.

"제, 제가 할게요! 제가 왕녀전하를 대신해 에델의 숲으로 가겠습니다!"

물론 헤르세인은 달갑지 않아 했다. 아무리 제 사람에게 표현하지 않는다 해도 헤르세인은 이미 라즐리를 제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으로 인해 누군가가 목숨을 잃는 것을 더더욱 지켜볼 수 없었던 헤르세인은 라즐리에게 반대했었다.

"나 대신 도맡아 하지 않아도 돼. 나로 인해 네가 목숨을 잃는 건,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이 일은 병력이 깔려 있는 수도 가까이 가는 일이라 더더욱 위험해."

그러나 라즐리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물론 이 일 말고도 그녀에게 은혜를 갚을 일은 다양하고 많을지도 모르지만, 라즐리는 처음으로 제 주인을 잃고 싶지 않았다. 처음으로 마음 우러러 따르고 싶은 주인. 그리고 왕좌에 앉아 빛나는 모습을 비추는 제 주인을 라즐리는 꼭 보고 싶었다. 때문에 라즐리는 그 어떤 때보다 단호히 그리고 걱정 말라는 빙긋 웃는 얼굴로 헤르세인의 허락을 구했다.

"전하, 제가 말씀드렸었죠? 언젠가는 꼭 전하께 은혜를 갚고 싶다고… 그리고 지금 전하께서 얼마나 무척 중요한 때인지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일수록 제가 나서는 게 맞으니까요. 그러니 전하, 제가 대신 그곳에 가겠습니다. 부디 허락해주세요. 저도 전하를 돕고 싶습니다."

"라즐리...."

결국 헤르세인은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만일의 대비해 헤르세인은 후작에게 라즐리의 호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을 부탁했고 덕분에 지금 그녀가 서 있는 숲에는 몸을 숨긴 호위 기사들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그것을 전혀 모르는 라비올라는 가발과 가면 쓴 라즐리를 헤르세인으로 착각했는지 오히려 반가운 얼굴을 하며 라즐리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런…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날 루드비카 씨의 피앙세 분을 봤음에도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 가지만 몰두하면 주변을 거의 잊어버리는지라… 그보다 제게 어째서 편지를....”

드디어 기다리던 질문이 나오자 라즐리는 가면 밑의 미소를 그리며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하고자 했다.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예? 부탁이라니… 대체 어떤...?”

“그전에 제 연인이 몬테올 왕국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건 알고 계시나요?”

모를 리가 없었다. 라비올라는 아르펜소 백작을 통해 루드비카의 죽음을 알고 있지만 상세히 알고 있는 것은 없었다. 몇 십 년에 다시 만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그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무리한 부탁임에도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기꺼이 연주를 들려주던 모습까지. 어찌 잊을 수 있을까. 물론 온통 루드비카에만 신경을 집중하여 정작 피앙세가 함께 했음을 완전히 잊고 있었지만 지금 눈앞에 다시 나타난 피앙세가 아니었다면 라비올라는 루드비카가 저를 위해 연주해주었던 기억만 간직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젊은 나이에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으셨으니... 저 역시 그 소식을 아르펜소 백작님께 듣고 난 이후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당신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쩌면… 제 연인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이윽고 라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감정을 담은 목소리로 최대한 라비올라가 동조할 수 있겠끔 구구절절이 그레이스 가에서 연습한 그대로 대본을 읊었다.

“살아생전 그 사람에게 둘도 없는 유일한 친우가 있었지요. 하지만… 몬테올 왕국과 전쟁이 터지고 그 사람이 전쟁으로 떠나기 전 제게 남긴 것이 있습니다.”

“이건....”

라즐리는 단단히 밀랍으로 봉인된 편지지를 그에게 넘겨주며 다시금 말을 이어갔다.

“본래라면 제가 마땅히 했어야할 일이지만 저는 머지않아 다른 귀족가의 자제와 혼인을 치르게 된답니다. 안 그래도 엄격한 집안인 탓에 저를 호위하는 감시가 많아 그가 제게 남긴 그 편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더군요. 집밖을 나서기라도 하면 바로 감시가 붙고 그렇다고 하녀에게 맡기기엔 그 편지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지라….”

“저런….”

“그러다 문득 당신이 떠올랐습니다.”

라즐리는 라비올라가 편지를 들고 있는 손을 제 두 손으로 꼭 잡으며 한가득 동정심을 유발했다.

“아… 저, 저기….”

라즐리의 적극적인 행동에 라비올라는 상당히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제 손을 맞잡은 그녀의 손을 보고 있었다. 물론 갑작스럽게 잡힌 이성의 손길에 라비올라는 몸을 뻘쭘히 움직였지만 동정심을 유발하는 라즐리의 행동에 점차 넘어가는지 어느새 라비올라는 점차 진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무리한 부탁인건 알고 있습니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만큼 당신에게 있어 제 연인의 존재가 더 컸던 것이니까요.”

“그, 그건 아닙니다. 단지 제가 하나에만 몰두를 하면 주변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는 그거에 개의치 않으니까요. 그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사람이 저를 통해 친우에게 남긴 그 편지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례임을 무릅쓰고 그 사람과 어느 정도 인연이 있는 당신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을 찾을 능력도 되지 못하고 또… 혼처가 정해진 이상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방도가 도무지 없는 상태이지요.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귀족가의 여식으로 태어난 이상, 정략적인 혼처가 정해지면 혹시라도 추문이 일어날 것을 방지해 대부분 저 같은 여인들은 집안에서 꼼짝없이 있어야하는 처지니까요.”

라비올라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라즐리의 목소리에 동조했다. 아르펜소 백작의 후원을 받는 입장으로서 연주회 말고도 수많은 귀족가의 저택에서 단독 연주회를 경험한 라비올라는 특히나 고위 귀족가의 공녀들이 얼마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지 알고 있었다. 비록 신분은 그들보다 한참이나 낮은 평민에 불과했지만 평민이기에 자유롭게 살아온 라비올라는 가끔씩 공녀들을 볼 때면 새장에 갇힌 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몇 번이 있었다.

“설령 이런 만남으로 추문이 퍼진다 해도 저는 반드시 그가 남긴 편지를 그 사람의 유일한 친우에게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추문이 어떻게 된다 해도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요? 제가 사랑하는 이는 끝내 눈을 감았지만 그를 사랑했던 만큼 그가 죽기 직전 제게 남긴 편지만큼은 꼭 전해주고 싶은 이 마음을요.”

“피앙세분....”

“이렇게… 결례를 무릅쓰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제 연인의 편지를… 그 사람의 편지를 저를 대신해 그가 가장 아꼈던 친우에게 전해주시면 안될까요?”

울음기가 섞인 목소리. 그리고 살짝만 툭 치면 떨어질 것 같은 그녀의 눈물방울이 라비올라의 시선을 흔들었다.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어찌 사내가 되가지고 거절할 수 있단 말인가. 더욱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루드비카의 일이었다. 이내 결심한 라비올라는 누구보다도 그녀의 바람을 이뤄주기라도 할 듯한 결의의 표정으로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피앙세분의 편지를… 루드비카 씨의 편지를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라비올라가 먼저 떠나가고 여전히 연못가에 덩그러니 남아 있던 라즐리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의 숨을 쉬며 이제 막 얼굴을 가린 가면을 벗으려던 찰나였다.

“아직 가면은 벗지 마, 누나.”

“라, 라피스.”

주변의 나무를 통해 꽁꽁 숨어 있던 라피스와 몇몇의 호위 기사들이 일반 평민 복장을 한 채, 모습을 드러내자 어느 정도 안심이 된 라즐리는 라피스의 얼굴을 보며 벗기려던 가면을 도로 착용하고 로브를 뒤집어썼다. 그리고 후다닥 라피스의 곁으로 다가가 자신의 연기가 어땠는지 라즐리는 서둘러 물었다.

“어, 어땠어? 혹시 내 연기 이상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

“저택에 있을 때는 그렇게 연기를 못하더니… 누나는 실전에 강한가봐?”

“노, 놀리지 말고!”

라즐리의 작은 버럭에 라피스는 키득키득 웃다가 이내 표정을 진지하게 바꾸며 고개를 천천히 위 아래로 움직였다.

“대충 보니까 상대방 쪽은 믿는 눈치인 것 같았어.”

“그, 그래? 그럼 다행이고… 아니… 다행이면 안 되지, 꼭 그 사람이 편지를 잘 전해줘야 될 텐데 말이야.”

“뭐, 우리 쪽에서 일단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감시를 붙이긴 했으니까 이제 두고 봐야겠지.”

하녀이기 이전 평민이기에 귀족에 관한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눈치로 하녀 일을 다져온 라즐리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 더욱이 저택에서 종이에 적힌 연기를 요구하는 대본을 읽을 때, 제 주인이 얼마나 많이 다독여 주었던가. 처음에는 연기란 것을 해본 적이 없어 많이 당황스럽고 어색했으나 막상 저택에서 연기한 것이 실전이 되니 라즐리는 이 일을 해내야겠다는 사명감을 지울 수 없었다.

덕분에 그 절심함이 사명감이 감정을 끌어주게 된 것일까. 라즐리는 아직까지도 자신이 눈물을 흘릴 듯 말들, 그리고 목소리를 은근히 훌쩍이던 저의 연기를 제대로 기억할 수 없었다.

“후우… 아직도 다리가 떨려….”

“그 정도였어?”

“당연하지… 내가 혹시라도 연기인 걸 상대방이 알아차리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 그리고 내 인생에 연기할 일도 없었고….”

이제는 진정됐지만 라비올라와 함께 있을 때만 해도 라즐리는 로브 속에 감춰진 제 두 다리가 얼마나 떨렸는지 혹시라도 라비올라가 봤을까 불안하기도 했었다. 다행이 그것을 눈치 채기는커녕 오히려 동조하며 제 일인 듯 거절도 없이 편지를 받고 바로 떠나는 라비올라의 모습에 라즐리는 그때서야 떨리는 다리가 서서히 멎고 있음을 알아챌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은 여운 때문인지, 그리고 평소보다 몇 배나 말을 길게 해온 탓에 라즐리는 어쩐지 목이 탔다.

“목말라….”

“목말라?”

“응… 그래도 지금 내 목이 타는 것보다 이 일을 어서 전하께 알리는 게 중요하니까. 어서 돌아가자. 전하께 지금쯤 계속 기다리고 계실거야.”

라피스가 고개를 주억이며 주변에 있던 선배 호위기사들에게 대답했다.

“이제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라즐리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헤르세인은 길버트와 후작에게 동생인 라피스를 붙여줄 것을 부탁했다. 길버트는 처음엔 아직 견습기사인 라피스를 호위에 붙이는 것에 무리라 생각했지만 그녀의 연기가 안정적일 수 있도록, 또 실전도 어느 정도 익혀야 한다는 판단 하에 라피스는 다른 견습기사들 보다 조금은 이르게 선배 기사들을 따라 라즐리의 호위임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누나, 걸을 수 있겠어? 정 못 걷겠으면 내가 업어줄까?”

장난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으나 이미 앞서가는 호위기사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라즐리는 고개를 저으며 괜히 라피스의 한쪽 뺨을 주욱 늘렸다.

“괜찮아 이정도 쯤음. 그리고 견습기사가 돼서 너무 나한테 신경 쓰면 어떻게? 저렇게 선배들처럼 네가 맡은 일에 소임을 다해야지.”

“아이 그거보아 내 뺘으 에 꼬이응데?(아니 그것보다 내 뺨은 왜 꼬집는데?)”

“아무튼, 고마워. 라즐리.”

살짝 라피스의 뺨을 꼬집던 라즐리의 손끝은 어느새 라피스의 뺨을 톡톡 문질러주며 빙긋 웃고 있었다. 사명감과 절실함이 완벽함은 아니더라도 연기를 해내게 만들었지만 라피스가 곁에 없었더라면 어쩌면 불가능할지 모를 임무였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라피스가 곁에 있음으로 안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었던 라즐리는 이런 자신을 위해 무리하게 라피스까지 호위로 붙여준 제 주인을 향한 감사함과 충심이 넘쳐흘렀다.

‘감사드려요, 전하. 저택에 무사히 돌아가거든 더 열심히 전하를 보필하겠습니다.’

현재 필릭스는 보이지 않는 검은 기운이 물씬 나오는 것 같은 하나의 문에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왜인지 함부로 열어선 안 될 것 같은 봉인의 문쯤 보인다면? 이유는 간단했다. 지금 저 문 너머 있는 이들은 무척이나 대단한 신분이기 때문이었다.

“저, 필릭스님. 이러다 진짜로 우리 상단 왕실에 소속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좋기야 하겠지.”

“좋기야 하겠지? 반대로 안 좋다는 뜻이에요?”

“글쎄....”

필릭스는 물론 작업 물을 운반하는 이들 중, 접객실에 수시로 눈알을 굴리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만큼 지금 단장실에 들어가 있는 이가 대단한 신분, 그것도 입이 떡 벌어질 왕족이기 때문이었다.

윌리스 왕태자. 현 국왕의 차기 후계자이자 왕실의 실권을 쥐고 있는 고귀한 자. 물론 어디까지나 귀족들이 떠드는 말에 불과했다. 왕족과의 거래를 해본 경험은 몇 번 있지만 이렇게 왕족이, 그것도 왕태자가 직접적으로 발걸음을 한 경우는 한 번도 없기에 필릭스와 대부분의 상단 직원들은 물론이고 상단을 이끄는 로렌드 역시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왕태자와 함께 접객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기를 한 시간이 흘렀을까. 도통 소리도 들리지 않고 문이 열릴 기미가 없어 보이는 통에 오히려 필릭스는 로렌드가 죽은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던 찰나였다.

“헙!”

필릭스의 옆에서 일을 보조하던 부하직원이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자, 자연스럽게 문으로 시선을 옮긴 필릭스는 문을 열고 함께 나오는 로렌드를 볼 수 있었다. 다행이도 숨은 붙어 있는 모습에 필릭스는 안심했다.

“그럼, 잘 생각해보게. 내가 자네에게 건 조건들을 생각하면 썩 나쁘지 않을 제안일테니. 더욱이 이 상단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도… 잘 생각해주길 바라지.”

호위 기사를 이끌고 왕태자가 상단 건물을 완전히 빠져나가자 그때서야 폭풍이 지나가기라도 한 것처럼 저마다 숨을 크게 들이 쉬며 직원들은 각자 로렌드의 안색과 이미 자리에도 없는 왕태자의 흔적을 찾기 바빴다. 그리고 자신의 집무실로 향하는 로렌드의 모습에 잠시 처리 중이던 서류를 내려놓고서 자리에서 일어난 필릭스는 문이 닫히기 전, 무사히 집무실로 들어와 로렌드에게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왕태자와 무슨 이야길 하신 거예요?”

“너도 그게 궁금한가보군.”

“당연하죠. 그것도 왕태자가 직접 여기까지 찾아오셨는데 궁금하지 않을 래야 않을 수 없잖아요.”

오랫동안 쓰고 있던 안경을 벗고서 로렌드는 잠시 눈가의 피로를 없애고자 검지와 엄지를 움직여 살살 마사지를 해주듯 피로를 풀어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피로가 가셨을 때, 책상을 너저분하게 한 서류더미에 흘긋 시선을 주던 로렌드는 일할 마음이 싹 가셨는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대어 눈을 감고 마른 입술을 움직였다.

“손을 잡지 않겠냐고 그러더군.”

“손이요?”

“정확히 말하자면 왕실 군대의 보급로가 되어달라는 뜻이지.”

“보급로요? 어째서요? 왕실은 우리의 손을 빌려 쓰지 않을 만큼 자금도 있을 테고 대 귀족들의 사병도 있을 텐데요?”

로렌드는 한쪽 눈을 뜨다가 이내 몸을 다시 일으켜 목을 옥죄던 단추와 타이를 풀어 흘러내린 앞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리고 대충 두 손에 깍지를 껴 대충 대답했다.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비하고자.”

“전쟁이요? 몬테올 왕국과의 전쟁은 끝났잖아요?”

정말 모르겠다는 필릭스의 물음에 로렌드는 설명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 결국 설명하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어차피 싫어도 알게 될 또 다른 전쟁. 셈을 하는 눈보다 아직까지 세상을 보는 눈이 부족한 필릭스에게 로렌드는 조금 귀찮지만 설명하기로 마음먹고 필릭스에게 물 한잔 부탁했다.

“일단 물 한잔 좀.”

“네, 잠시 만요.”

근처 탁상에 있던 주전자에서 금방 물을 따라낸 필릭스는 로렌드에게 투명한 물이 담긴 유리잔을 건넸다. 그리고 그것을 단숨에 들이 킨 로렌드는 어느 정도 갈증이 해소 됐는지 빈 유리잔을 무의미하게 술잔 돌리듯 돌리며 나지막이 입술을 뗐다.

“평민인 너도 알고 있겠지? 왕실에 또 다른 왕녀가 존재함을.”

“예, 물론이죠. 죽은 왕비의 사생아인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사생아가 아닌 현 국왕의 형제였던 에른스트 왕태자의 핏줄이자 가장 왕좌에 가까운 직계혈통인 왕녀. 맞죠?”

“그래. 그 때문에 굳건했던 왕실 서열구도 애매하게 바뀌어 버렸으니까.”

“음… 대충 단장님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가요? 왜 굳이 형제끼리 싸워야 되는 건데요? 그냥 서로 양보하면 되는 일 아닌가요?”

평민인 필릭스가 그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건지도 몰랐다. 하지만 상단주이기 이전, 비루한 귀족가의 자식으로서 상인으로서 자라온 로렌드에겐 그 일은 평민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왕족에게 있어 피라는 것은, 혈통이란 것은 떼어내려야 떼어낼 수 없는 것이자 그것이 곧 힘이자 권력이기도 했다. 때문에 특히나 남매가 아닌 형제에겐 왕좌와 권력 그리고 서열이란 것은 더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다.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밥을 먹고 제아무리 한배에 태어났음에도 왕좌란 것은 사이좋은 형제조차 척을 지게 할 만큼 왕족들에겐 왕좌는 반드시 쟁취해야할 가장 큰 권력과도 같았다.

“네 말처럼 서로 양보하면 그만이지. 하지만 어디까지나 필릭스, 네가 봤을 때 그리고 다른 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양보하면 그만이겠다, 생각하겠지만 왕족에게 있어 양보란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애초에 양보란 것을 배우지 않거든. 특히나 왕족은. 웬 줄 알아?”

“글쎄요.”

“왕족으로 태어난 이상, 무언가를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누군가 무언가를 주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

“당연하다라....”

“그리고 생각보다 윌리스 왕태자와 헤르세인 왕녀의 악연은 질긴 셈이지. 생각해봐.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는 차기 국왕이 될 왕태자였고 어머니 역시 왕태자비였지. 그런데 왕좌와 무관하던 동생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고 제 형제와 친부를 죽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 간신히 태어난 왕녀는 자신의 신분조차 모르고 살았고 반대로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따라 왕자가 된 아이는 왕태자로서 자라나게 되었고.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이윽고 이제는 이해가 되는지 필릭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단순한 양보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었다.

“왕족이란 건 생각보다 참 복잡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 왕태자랑 어떻게 하실 건데요? 거래를 한다면야 우리 상단이 이득이겠지만 또 전쟁을 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곤란하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나라 경제도 좋지 못하는데… 또 이번에 새로 들어올 타국 물품들도 전보다 들여온 게 없잖아요. 우리가 왕태자 손을 잡는다 해도 적자는 적자에요. 뭐, 혹시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아니, 있기는 하지만….”

로렌드는 미간을 좁히며 아까 전 윌리스 왕태자가 제게 건넨 거래에 대한 내용들을 떠올렸다.

"어떤가, 이번 일을 잘 마무리 하고 내가 안정적으로 왕좌에 앉는다면 아클레아 상단을 외교 사절단의 특별 상단으로 끼어주도록 하지. 그렇게만 한다면 그대의 상단에도 손해는 아닐 터."

왕태자의 말처럼 손해는 아니었다. 왕국에서 임명된 외교 사절단의 특별 상단으로 들어간다면 거래 품목은 늘어나는 셈이었고 발을 더 넓혀 타국과 위험부담 없이 거래를 할 좋은 기회인 셈이었다. 하지만 그 손을 덜컥 잡기에는 큰 이득은 보이지 않았다. 어차피 타국과의 거래 협상은 흔한 서류에 조차 진행 하에 있었고 왕태자의 말처럼 특별 상단으로만 들어가기엔 매력적이지 않은 조건이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왕태자의 거래에 대한 조건을 일일이 셈을 하고 따지고 들쯤, 무슨 일인지 문을 두드리는 노크소리에 제일먼저 반응한 건 곁에 있던 필릭스였다.

“무슨 일이야?”

“아, 필릭스님. 그보다 단장님은 안에 계시죠?”

“응, 그런데 단장님은 왜?”

“단장님을 찾는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

손님이라는 단어를 들었는지 한참을 서류에만 시선을 박고 있던 로렌드가 시선을 들어 저를 보고 있는 두 사람에게 물었다.

“손님이 누구지?”

라비올라가 아클레아 상단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상단 중에서도 가장 이름이 알려진 상단이자 몇 번이나 거래를 한 적이 있던 그로선 오히려 쉬울 정도였다. 하지만 피앙세, 즉 라즐리에게서 루드비카의 유언장이나 다름없는 편지를 제 손으로 전하는 것이 생각보다 떨리고 막중한 일인 것 같아 라비올라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으로 타인 앞에서 연주를 선보이기 직전인 그 떨리는 기분. 거기다 괜스레 손에서 땀까지 배어나와 라비올라는 혹시라도 제 땀으로 인해 편지가 젖을까 몇 번이고 옷에 손을 닦아내며 아클레아 상단주가 오기를 기다렸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오랜만입니다.”

“아, 로렌드 씨.”

어느새 옷을 단정히 하고서 문을 열고 로렌드가 접객실에 들어오자 라비올라는 오뚝이 인형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로렌드에게 인사를 건넸다. 로렌드가 자리에 앉자 동시에 따라서 자리에 앉은 라비올라는 침을 꿀꺽 삼켰고 왠지 긴장해 보이는 그의 모습에 로렌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디… 불편한 곳이라도…?”

“아,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의 상단에는 무슨 일로…?”

“저, 그게 로렌드씨에게 전해드릴 것이 있어 왔습니다.”

“제게 말입니까?”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는 로렌드와 달리, 라비올라는 혹시나 편지에 제 땀이 묻어있지 않은지 확인하고서 떨리는 손끝으로 편지를 로렌드에게 건네주었다.

“이건 편지 아닙니까?”

“예, 편지입니다. 그분의 피앙세 분께서 꼭 로렌드 씨에게 전해 달라 부탁하셔서 말입니다.”

“그분?”

그분이라니? 대체 누굴 말하는지, 또 피앙세라 불리는 사람 역시 로렌드는 도통 감을 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편지를 단단한 붉은 밀랍을 뜯어내기 전 라비올라에게서 생각지 못한 이름이 나온 순간, 로렌드는 밀랍을 뜯으려던 행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피앙세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친우 분이신 로렌드씨에게 꼭 이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그분… 그러니까 루드비카 씨가 죽기직전 피앙세 분께 로렌드 씨에게 남길 편지를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앙세 분의 사정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라 제가 대신하여 그 편지를 전달하게 되었고요”

“...루드비카.”

로렌드는 붉은 밀랍을 뜯어내기 전 다시 한 번 편지를 한 바퀴를 돌리며 편지 상태를 확인했다. 그리고 뒷부분 아래에 쓰여 있는 간결한 글씨체를 본 순간, 처음 본 글씨체임에도 로렌드는 어쩐지 그 피앙세라는 인물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분이 왜....’

카타리아 왕후의 독살사건 이후, 재판을 받기 직전 도망쳐 지명수배가 내려진 최초의 왕족이자 왕녀. 귀족을 상대로 장사하는 이상, 로렌드 역시 모르지 않았다. 더욱이 그날 이후로 사라진 헤르세인에 관한 소식을 그 누구도 접한 사람이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녀가 무슨 이유로 라비올라를 대신 하여금 편지를 보냈는지, 또 편지에는 무슨 내용을 썼는지 편지를 뜯어보기 전까지 알 수가 없는 로렌드는 라비올라가 돌아갔음에도 그 편지를 열기까지 오래 걸렸다.

호위를 해줄 용병 두 명을 고용해 마차를 타고 이동 중인 로렌드는 한참 동안이나 손에 들고 있는 편지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이미 오래전에 떼어버린 붉은 밀랍과 살짝 열린 봉투에는 편지를 읽은 흔적이 있었지만 그날, 라비올라가 다녀간 이후로 딱 한번 밖에 편지를 읽지 않은 로렌드는 여전히 몸에서 편지를 한시도 떼어내지 않았다.

소중해서도 단순히 각별해서도 아니었다. 유일했던 친우가, 유일하게 모든 것을 던져 사랑했던 여인이기 때문일까. 그래서인지 편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미 이 세상에 없는 루드비카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루드비카, 네가 죽고 벌써 얼마나 지난 거냐….”

딱 한 번 다녀갔던 루드비카의 무덤. 처음에는 ‘일’ 때문이란 이유로 로렌드는 루드비카의 무덤을 멀리했었다. 그런 핑계를 댈 만큼 멀리한 이유는 하나였다. 루드비카의 죽음을 정말로 실감할 것 같아서. 분명 엊그제만 하더라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를 대했던 친우의 얼굴을 알기에 그 모습을 잊지 않았기에 로렌드는 저도 모르게 루드비카의 죽음을 외면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만나는 귀족들마다 족족 루드비카의 얘기를 빠트리지 않는 그들을 볼 때면 로렌드는 실감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루드비카의 죽음을. 더 이상, 제 친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멍청한 새끼, 그러게 왜 그딴 불길한 얘기 따위를 해서… 결국은 이런 꼴로 땅속에서 잠이나 쳐 자고 있는 거냐… 야… 루드비카… 이 미친 새끼야…."

처음으로 저 혼자 무덤에 갔던 날. 로렌드는 화가 나면서도 실로 오랜만에 눈물이란 것을 흘렸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죽음이후로 한 번도 흘려본 적이 없었던 눈물. 그런데 그 이후로 흘린 적이 없던 눈물을 망할 둘도 없는 친우가, 단 한 명뿐인 죽마고우가 제 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이었다.

두 번 다시 잊지 못할 루드비카와의 마지막 기억. 그리고 루드비카의 무덤까지. 오랫동안 별일을 다 겪긴 했지만 로렌드는 자신할 수 있었다. 이번 해는 결코 잊지 못할 기억뿐임을.

하지만 기억은 과거의 추억에 불과한 것이었을까. 로렌드의 일상은 다시 평범하게 돌아와 또 다른 바쁜 일상으로 루드비카를 잊게 만들었다.

“어째서 그분은 내게 이런 편지를 보낸 걸까, 루드비카.”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라비올라를 통해 전해진 한 장의 편지. 그 편지를 읽음으로서 로렌드는 간단히 선택할 수 있었다. 만난다는 것과 만나지 않는다는 것. 단순히 루드비카의 연인이었다는 이유로 그녀의 얼굴을 볼 이유는 로렌드에겐 없었다. 하지만 단순하고도 담백할 뿐인 문장들의 편지임에도 로렌드는 직접 그녀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제게 편지를 보낸 진심을 듣고 싶었다.

"진짜, 그레이스 영지에 가시려고요? 평소라면 어떤 귀족이 불러도 시간이 금이라며 꿈쩍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거긴 왜요?"

수도에 있는 상단을 떠나기 전, 필릭스가 제게 한말을 로렌드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말처럼 언제나 시간을 금처럼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던 로렌드에게 공적이 아닌 사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도 했다.

“로렌드님, 이제 곧 그레이스 영지 초입입니다.”

가장 빠른 마차로 이틀을 걸쳐 드디어 영지의 초입에 들어섰는지 마부와 함께 앉아 이동하던 한 용병이 작은 창문을 두드리며 로렌드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용병의 목소리 덕에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던 로렌드는 마침내 창문을 통해 펼쳐지는 푸른 숲이 우거진 그레이스 영지의 초입구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편지를 들고 있는 로렌드의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긴장보다도 그녀와 대면하게 되면 과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 어떻게 그녀를 마주보며 대해야할지 로렌드는 그레이스 후작저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그 어떤 것도 정할 수 없었다.

“고마워요, 여기까지 발걸음을 해줘서.”

“아닙니다. 오히려 의외였습니다. 제게 그런 편지를 보내실 거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김이 올라오는 찻물을 뒤로 하고 서로 맞은편에 앉은 두 사람의 시선은 전혀 맞부딪치지 않고 있었다. 무심히 시선을 내리깐 채로 찻잔을 응시하는 헤르세인과 그리고 그런 그녀를 어떻게 보아야할지 일부로 찻잔에 시선을 주고 있는 로렌드의 시선. 하지만 무의미한 침묵을 싫어하는 로렌드는 바로 입술을 떼어 본론을 물었다.

“왕녀전하께서 라비올라 쟌을 통해 보내신 편지를 읽었습니다. 제 상단의 도움을 원하십니까?”

“네, 아클레아 상단만큼의 자본력과 끊이지 않을 보급품을 대줄 상단이 제겐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귀족을 상대하시는 분이니 잘 아실 테지요. 지금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한참 동안이나 찻잔을 응시하고 있던 로렌드는 시선을 들어 이제는 온전히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뭐라고 설명해야할까. 이렇게 빨리 자신의 상황을 무덤덤하게 설명하는 그녀를 보니 자신이 예전에 보았던 그녀가 맞는지 로렌드는 의문이 들었다.

처음 의식 없이 보았을 때만하더라도 로렌드가 보았던 헤르세인의 모습은 누가보아도 왕녀의 모습이 아닌 그저 비쩍 말라 있던 단순한 인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루드비카의 부탁으로 두 번째로 보았던 그녀의 모습은 확실히 처음 봤을 때와는 어딘지 모르게 달라져 있었다.

물론 그때 당시만 해도 루드비카와 헤르세인이 아직 연인관계가 아닌 것도, 특히나 루드비카가 일방적으로 그녀에게 더 깊이 빠져 목을 매고 있음을 로렌드는 알고 있었지만 당시 로렌드가 보았던 헤르세인은 루드비카에게 어느 정도 마음을 품은 풋풋한 모습과도 같았었다.

하지만 루드비카의 죽음 이후와 루드비카가 제게 남긴 편지를 타인을 통해 전달한 것을 빼면 로렌드는 그날 이후로 헤르세인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주한 것은 처음이기도 했다. 정확히는 세 번째의 만남.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직접 마주한 그녀의 모습은 로렌드를 상당히 놀라게 만들었다.

‘루드비카의 죽음이… 한 사람의 분위기를 이렇게 확 바뀌게 만들 수 있던 건가?’

인형처럼 감정이 전혀 묻어있지 않은 얼굴. 그리고 눈을 내리깔고 있음에도 그 속에 돋보이는 코발트빛의 눈동자는 빛이 없는 심연처럼 그저 고요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묻어있는 서늘함은 딱 한번밖에 우연치 않게 왕성에서 보았던 아라네아 왕비를 연상시켰으며 그녀가 입고 있는 수수한 드레스는 오히려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고아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 로렌드는 저도 모르게 눈이 피로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있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그녀는 자신이 고작 몇 번 보았던 풋풋한 과거의 모습이 아닌 왕족시해범이란 수배낙인이 찍혔음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일국의 고아한 왕녀임을.

아무리 긴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지만 설마 이런 식으로 그녀와 비즈니스적인 얘기를 나누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로렌드는 작게 숨을 들이켜 눈가를 만지던 손짓을 멈추고 어느새 다 식어버린 찻잔을 들어 올려 말라버린 목을 축였다. 그리고 찻잔을 내린 동시에 로렌드는 눈빛을 달리하며 루드비카의 친우가 아닌, 아클레아 상단주 로렌드로서 자세를 바로 했다.

“그럼 말씀해주시죠. 제가 왕녀전하의 도움이 되어 이득이 될 얘기를. 왕녀전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는 뼛속까지 장사치에 불과합니다. 손해가 될 일은 결코 하지 않죠. 더욱이 지금의 아클레아 상단을 대규모 상단으로 만든 것도 다 제 손으로 일궈낸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제 손으로 망칠만큼 저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저는 모험도 도박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손해이니까요.”

“그 말은 즉, 내게 도움을 주는 것이 일종의 모험이자 도박이라는 말이군요.”

로렌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품속에 넣어두었던 안경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안경을 고쳐 끼며 이틀 전 윌리스 왕태자가 저를 찾아온 이야기를 덧붙였다.

“왕녀전하께선 모르시겠지만 이틀 전, 제 상단으로 윌리스 왕태자전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

“그리고 왕태자 전하께서는 제게 이런 제안을 하셨죠. 본인이 안정적으로 왕좌에 앉게 된다면 저의 상단을 외교 사절단의 특별 상단으로 끼어준다 하셨지요.”

윌리스 왕태자가 아클레아 상단을 언젠간 찾아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로렌드의 입을 통해 이야기를 들으니 왕태자 쪽도 당장 상단 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왕태자의 말처럼 그가 왕좌에 앉게 되고 아클레아 상단을 외교 사절단의 특별 상단으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결코 나쁜 제안이 아니었다.

물론 어디까지나 나쁜 제안이 아닐 뿐이지 세세하게 따지고 본다면 로렌드의 입장에선 썩 좋은 제안은 아닐지도 몰랐다. 이미 수도에서는 이름이 난 대규모의 아클레아 상단. 더욱이 상단은 물품을 수입하고 거래하며 그것을 또 어딘가에 파는 것이 목적인 장사치들이기에 특히나 사브레 왕국이 아닌, 사브레 왕국에서 볼 수 없는 타국의 물품이 그들에겐 더 좋은 돈벌이 수단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넓은 마당발에다 타국과의 거래를 할 만큼 대규모의 입지를 다진다 해도 상단은 상단에 불과했다. 상단이 아무리 마르지 않은 재산이 있다 해도 그것은 거래를 통해 얻게 된 또 다른 비용의 돈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귀족은 특히나 대 귀족은 이미 광산이며 오랫동안 축적한 재산이며 얼마든지 현금으로 대체할 것들이 넘쳐나기에 대 귀족에게 있어 돈이란 것은 가문이 몰락하지 않는 이상, 마르지 않는 것과도 같았다.

더욱이 가끔씩 대 귀족들 중에 대규모 상단이 갖지 못한, 거래를 할 수 없는 희귀 품목들을 대 귀족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개인 상단을 통해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었다. 그것이 귀족의 특권이자 일반 상단주들 조차 한수 접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특권. 수도에서도 이름난 대규모 상단들이 굳이 대 귀족 아래의 개인 상단과 거래하는 이유가 이것이기도 했다. 세상 그 어떤 희귀한 것이든 그 어떤 품목이든 손에 넣어 상단의 이득을 취하려는 그들. 그리고 일반이든, 대규모 상단이든 가질 수 없는 또 마당발로 가문에서 만들어낸 개인 상단을 통해 희귀 상품을 제일먼저 쟁취하여 그것을 보여주려는 대 귀족.

헤르세인은 생각했다. 이것을 로렌드가 모를 리 없음을. 특히나 이름이 정평 난 아클레아 상단이라면 더더욱. 헤르세인은 로렌드가 오기 전, 후작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다. 그리고 윌리스 왕태자가 대충 아클레아 상단과 접촉하여 어떤 제안을 할지 예상도 했지만 어쩐지 그대로 비껴나가지 않아 그쪽도 상당히 급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을 알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후작과 얘기를 나눈 그대로 지금의 상황을, 로렌드의 말을 예상 했기에 헤르세인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던 입술을 떼어냈다.

“윌리스 왕태자가 말한 그대로 나 역시 아클레아 상단에게 제안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상황을 생각하면 내가 말한 것보다 윌리스 왕태자 쪽이 더 신뢰가 갈 테지요. 나는 그대의 말처럼 모험이자 도박에 불과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왕녀전하께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걸까요?”

헤르세인은 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고 있는 로렌드를 볼 수 있었다. 그를 이렇게 얼굴을 맞대어 본 건 처음이지만 그의 하나 뿐인 친우인 게 놀라울 만큼 두 사람의 성격은 그야말로 불과 얼음과도 같았다. 하지만 자신을 단순히 그 사람의 과거의 연인으로서 봐주는 것이 아닌, 왕녀로서 봐주는 것이 고마웠다. 또 철저히 본인의 생계를 위해 이득만을 생각하는 그 모습 역시 헤르세인은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가 떠올리는 건 왜 일까.

조금은 아릿해진 눈을 내리감으며 헤르세인은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눈을 떴다. 그리고 로렌드를 향해 자신이 생각한 모든 것들을 헤르세인은 풀기 시작했다.

“난, 윌리스 왕태자와 다릅니다. 윌리스 왕태자가 그대와 단순한 거래자로서 일을 함께하자 했다면 난 아닙니다. 나는 그대와 함께 손을 잡고 이 일을 거래가 아닌 동업자로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물론 그대는 그대의 이익을 위해,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사브레 왕국은 타 왕국이나 제국보다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동업자로서 서로의 이득을 위해 손을 잡자고 하는 발언과 달리, 헤르세인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경청하고 있는 로렌드를 향해 헤르세인은 그레이스 가에서 오랫동안 생각한 하나의 주제를 꺼냈다.

“말 그대로이지요. 몬테올 왕국과의 전쟁 이전 사브레 왕국은 전혀 전쟁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지 않았고 각국의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알지도 못했지요. 더욱이 전쟁을 시작으로 우리 쪽이 얼마나 불리했는지… 단순히 병력의 차이가 아닌 그들이 가진 무기에 관한 것입니다.”

로렌드는 정확히 헤르세인이 저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 수 있었다. 말 그대로 몬테올 왕국뿐만이 아닌 다른 왕국과 제국에 해당되는 이야기였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반대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은 무기. 시대가 변할수록 무기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무기의 형태도 사용도 보급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물론 제국이란 것이 왕국보다 큰 이유는 병력차이와 우두머리의 전술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에 맞는 무기가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기에 제국은 감히 그 어떤 왕국조차 함부로 칠 수 없는 거대한 산이나 다름없었다.

또한, 무기를 개발하는 인재나 다양한 대장장이들 넓게 제국으로 퍼져 있어 언제든 그들은 좋은 자원과 좋은 원료로 무기를 만들고 공급할 수단이 있었다. 하지만 제국 만큼이라 할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병력으로서는 당연히 질 수 밖에 없는 왕국역시 무기는 중요했다.

몬테올 왕국과의 전쟁 이전 여러 나라를 도는 떠돌이 상인과의 거래로 잠시 동안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로렌드는 그가 말 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지나친 관심일 수도 있겠지만 몬테올 왕국은 아직 소드 위주로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왜...."

"아, 다름이 아니라 요즘 각국의 정세가 심상치 않은 건 알고 계시죠? 특히 이 얘기는 많이 들어 아실 겁니다. 베르디올 제국의 상단들이 요즘 크게 무기사업을 벌리고 있다고. 뭐, 당연한 얘기기도 하죠. 그쪽 지역은 무기 개발을 하기에 광산이나 자원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게 풍부하고 황제조차 무기 개발에 대한 자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니...."

"...."

"그리고 베르디올 제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것이 그… 화승총… 이라고 하던가요? 아무튼 그 총을 가지고 수많은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또 들리는 소문으론 화승총 말고도 새로 개발되고 있는 총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소문일 뿐이지만 어쩌면 베르디올 제국이 무기사업을 기점으로 막대한 이득이나 그것을 실험으로 어떻게 나올지... 아무튼 베르디올 제국은 그렇게 강한 무기들을 자주 개발하면서도 독점하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죠. 독점만 한다면 베르디올 제국에서 들이는 이득이 상당할 테니까요. 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몬테올 왕국이 상당한 거금을 들여 베르디올 제국의 화승총 제조법을 포함하여 여러 무기들을 들였다고 하죠. 어찌되었든 이제 단순히 입고 먹고 하는 타국 수출품이 아닌, 무기가 중요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떠돌이 상인의 말처럼 언제부턴가 입고 먹고 하는 거래 품목은 정체되어 있다 시피 했다. 그것은 귀족들의 당연한 소비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욕구와 충족을 만족시킬 새로운 소비품이 떠오르지 않는 이상, 다른 상단들도 어느 정도의 이득을 취하되 늘 제자리걸음 일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귀족, 특히나 귀부인들과 공녀들의 소비품일 뿐이지 계속해서 거액으로 소비되는 무기는 달랐다.

타국과의 동맹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언제나 동맹국이 아닌 나라는 늘 전쟁에 대비해야 했으며 그 전쟁에 중요한 것은 바로 보급품, 즉 병사들이 소비할 무기들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왕실의 외교단들이 신경써야할 문제들이 귀족들을 맞춤 적으로 거래하는 상단들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나라가 무너지면 손해를 입는 것도 상단이었으며 상인들이 수입해서 들여온 소비품을 귀족들이 소비해주지 않는 이상, 상인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었다.

결국은 떠돌이 상인 마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소규모의 품목만을 챙겨 돈을 버는 것이 전부일 뿐.

그런 생각을 그녀도 똑같이 한 것일까. 헤르세인과 눈이 마주친 로렌드는 나지막이 입술을 뗐다.

“그 말씀은 즉, 왕녀전하께서는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무기 거래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단 말씀이십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에 안주하고 세상의 흐름을 모르는 외교단을 갈아엎고, 세상의 흐름을 읽어 그것에 대비하고 우리의 이득을 취할 외교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외교단을 그대, 아클레아 상단이 맡아주길 나는 바라고 있습니다. 갑과 을로서가 아닌 서로와 서로의 이득이 될 동업자로서.”

“....”

갑과 을이 아닌 철저한 서로의 이득을 취할 동업자. 윌리스 왕태자조차 감히 생각지 못한 발상이기도 했다. 그녀의 말처럼 어느 하나 틀린 것이 없었다. 상단의 이득을 보기 이전, 지금의 사브레 왕국의 상황을 본다면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그것을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이 귀족과 국왕이 살아있기 때문이지만 평민들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했다. 언제 굶어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식량난이 점점 로렌드의 귀까지 들어왔고 나라의 상황이 좋지 못하니 경제 역시 좋지 못해 높이 솟아오른 물가에 평민들의 원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러다 폭동이라도 잃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도 있지만 만에 하나, 이 상태로 또 다시 외부에서 전쟁이 터지기라도 한다면 사브레 왕국은 그야말로 지도상에서 없어질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라의 문제와 별개로 나라가 망할지라도 상단이 우선인 로렌드에게 있어, 헤르세인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다. 그 모험이, 도박이 자칫 잘못하다간 한순간에 없어질지 모를 위험부담이 있었고 제 아무리 윌리스 왕태자보다 혹할 제안일지라도 여전히 로렌드의 마음은 완전히 움직이지 못할 때였다.

“그대의 발이 닿지 않는 세상의 끝까지 전부… 그대의 손으로 거래하고 싶지 않나요?”

“...예?”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왕좌에 앉게 된다면 아클레아 상단을 새로운 특수 외교단으로 설립할 것은 물론, 제국조차 손에 뻗치지 못한 땅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협력 자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만큼 사브레 왕국의 바뀌어야 하고, 어느 왕국도, 제국조차 접하지 않은 신문물을 들여 사브레 왕국을 굳건히 만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요.”

신대륙의 발견. 그리고 그 어떤 왕국도 제국도 접하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여 그것을 거래한다. 단 한 번도 꿈꿔 본적이 없는 이상 같은 말이기도 했다. 하지만 상인이라면 한 번쯤 손에 넣어보고 싶은 것이 평범하고 흔한 것이 아닌, 욕구와 소비를 충족할 새로운 것이었으며 로렌드는 그것에 목말라 있었다. 귀부인과 공녀들 사이에 불고 부는 제품이란 것은 결국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했고 오히려 상인보다 더한 것을 추구하고 욕구하며 남들보다 뒤쳐진 유행을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들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녀가 왕좌에 앉아 왕위를 계승한다 하에 조건이었다. 만약 윌리스 왕태자가 승자가 되어 왕좌를 앉는다면 지금의 이야기는 전부 사라지고 그저 똑같은 일상처럼 귀족들을 만족시킬 흔한 물품을 거래로 하여 안정적인 이득을 취할지도 몰랐다. 안정, 그리고 목숨을 내놓을 도박일지 모를 모험.

문득, 로렌드는 떠올렸다. 만약 이 상황에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대답할지를. 어쩌면 평소대로 그 성격 그대로 대답할지도 몰랐다.

"안 되도 무조건 해봐야 하는 거야. 평범한 돌이 네 손에 10개 있다 하더라도, 그 중 하나는 반드시 보석이든 돈이든 너에게 득이 되는 것이 있을 테니까." 라고.

완전한 갈등은 사라졌다. 단지 선택의 기로에만 서 있을 뿐. 그리고 로렌드의 표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던 헤르세인 역시, 로렌드가 선택한 순간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인 이상, 최후의 최후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법. 단지 헤르세인은 그 시간을 많이 줄 수는 없었다.

“시간을 드리지요. 단, 내일 이 저택을 떠나기 전까지.”

“내일 떠나기 전까지라…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군요.”

“나에겐 시간이 없으니까요. 당장 그대에게 선택하라 제촉할 수도 있지만 내일까지의 시간을 배려해주는 것 뿐 입니다. 그만큼 내겐 시간이 절박할뿐더러 모든 상황이 내겐 불리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어나보겠습니다.”

로렌드가 완전히 자리를 떠나기 전, 헤르세인은 마지막 한 마디를 남겼다.

“무엇을 선택하던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그대도 나도 이 왕국도 변해야 한다는 것만 알아주길 바라지요.”

“…예, 그럼.”

그렇게 로렌드가 집사의 안내를 따라 자리를 떠나고 홀로 접객실에 남은 헤르세인은 때마침 들어오는 후작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맞은 편 자리에 앉아 후작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이야기는 잘되셨습니까?”

“글쎄요… 그래도 최대한 아클레아 상단주가 우리와 손을 잡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을 흔들 말들은 전부 전했다고 생각해요.”

“예, 결국 선택은 그의 몫이겠지요. 무엇을 선택하던 아클레아 상단주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저희와 전하께만 불리할 뿐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그가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 어떤 말에 마음이 흔들리던 흔들리지 않던,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상단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이니 말입니다.”

“내일이면 오늘 던진 주사위가 결정 나겠지요?”

주사위는 던져진지 오래였다. 다만 결정이 나기까지 내일이란 시간이 걸릴 뿐. 헤르세인은 더 이상 입에 대지 않은 찻잔에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 어떤 것에 미련 없이 오직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뿐이기에 헤르세인은 망설이지 않았다.

“엘리카와 소가주를 불러주세요.”

고작 상인임에도 불구하고 극진히 손님을 대접해준 그레이스 후작 덕분에 손 하나 까딱할 것 없이 로렌드는 그레이스 저택에서 하루를 편히 보낼 수 있었다. 물론 함께한 호위 용병과 마차를 이끈 마부까지 섬세히 배려해준 덕분에 오히려 로렌드는 이렇게까지 대접받아도 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그 어느 것 하나 불편함 없이 로렌드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

간단한 조식을 끝내고 떠나기 전인 점심쯤의 시간이 되었을 때, 로렌드는 다시 접객실에 어제처럼 헤르세인과 마주보며 자리에 앉고 있었다.

“결정 했나요?”

실이 될지 득이 될지 모를 가장 중요한 때임을 알면서도 로렌드에게 묻는 헤르세인의 목소리는 담백하면서도 초조함 따윈 없었다. 오히려 거절하더라도 진심으로 존중해줄 것 같은 그녀의 모습에 로렌드는 피식 웃다가 이내 진지한 얼굴로 자신의 결정을 대답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험과 도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떠나 전하께서 제게 말씀하신 그 말이 저를 결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

“한낱 장사치에 불과 한다 해도, 그 장사를 하며 먹고 살 땅이 없는 이상 상단이 무슨 소용일까요. 물론 이리저리 타국을 떠돌아다니며 장사를 하고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저는 애초에 그럴 려고 아클레아 상단을 만든 것이 아니니까요. 왕녀전하께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업자가 되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제 발이 닿지 않는 세상의 끝까지 뻗어나가 제 손으로 거래하고 싶지 않느냐는 말씀. 그 말씀이 저를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왕녀전하를 도와드리기로. 하지만 저는 장사치이고 특히나 말뿐인 계약을 신용하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내 말이 증명되고 실용될 계약서를 달라?”

“그렇습니다.”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로렌드가 눈치채기 전에 다시 표정을 원래대로 되돌린 헤르세인은 바로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라즐리에게 눈짓해 로렌드의 앞으로 한 장의 서류를 건네도록 했다.

“이것은....”

“그대가 말한 계약서입니다.”

“그 말은 즉....”

헤르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에 관한 짧은 항목들을 알려주었다.

“나머지는 알아서 읽어도 좋아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계약서에 동의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나도, 그대도 이로서 완전한 동업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내 목에 걸고 있는 왕의 증표를 걸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내가 불리한 조건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왕의 증표를 걸었음으로 나는 거기에 적힌 모든 계약들을 지킬 의무가 있고 내 기분대로 그 계약서를 찢을 수 없겠끔 장치를 만들었으니까요. 또, 만에 하나 내가 거기에 적혀 있는 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계약서를 내 마음대로 찢는다면 지금 내가 걸고 있는 왕의 증표를 당신에게 양도하겠다는 계약서이기도 합니다.”

“어째서… 그렇게까지....”

왕의 증표, 그것이 어떤 것이던가. 사브레 왕국의 오랜 가보이자 왕이 될 후계자만이 갖고 있는 그 누구도 함부로 가질 수 없는 특별한 목걸이임을 누가 모를 수 있단 말인가. 물론 말로만 들어봤을 뿐이지 헤르세인을 통해 실물로 본 건 처음이기에 로렌드는 저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오히려 왜 그렇게까지 자신에게 불리할 조건들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로렌드는 그녀의 생각을 알고 싶었다.

하지만 헤르세인의 생각은 달랐다. 이것을 단순한 감수가 아닌 최종 목적지에 쓸 도구에 불과하기에 또 언젠가는 왕실에서 없어져야할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기에 헤르세인에겐 왕의 증표, 즉 솔루에 목걸이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남긴 하나의 유품이면서도 왕가의 저주스런 목걸이로 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물론 이것을 거래의 도구로 생각했을 때, 주위에 있던 엘리카와 길버트, 그리고 후작은 극구 말렸었다. 사브레 왕국의 단 하나 뿐인 가보를 그렇게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그러나 왕족이 살아 있는 한, 사브레 왕국이 이어지는 한 언젠가는 이 목걸이로 하여금 또 다른 피바람이 일어날 것은 자명했다. 완전히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미연의 방지는 될 수 있기에 헤르세인은 이것을 제 손으로 끝내기를 결심했다. 윌리스 왕태자 쪽에선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기인 했으나 이것을 갖고 있음으로 결국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던 건, 이 목걸이 증명 덕분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로렌드에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생각한 헤르세인은 목에 걸린 솔루에를 손에 들고서 나직이 입술을 뗐다.

“말 뿐인 것보다 이것으로 하여금 믿음을 주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했을 뿐이지요.”

지금 제 눈으로 보고 있는 그녀가 진짜 헤르세인 왕녀가 맞는 것일까? 그렇지 않고서야 윌리스 왕태자조차 감히 할 수 없는 행동력이었다. 하지만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손을 내밀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다시 본 순간, 로렌드는 저도 모를 확신이 들었다.

그녀라면 정말로 가능할지 모른다고. 사브레 왕국 최초의 여군주가 나올지도 모를 그런 확신을.

로렌드가 이끄는 아클레아 상단이 합류하게 되면서 보급품에 관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아클레아 상단의 소식을 들었는지 본격적으로 중소귀족들이 움직였지만 반대로 대귀족들은 아직까지 미동 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꿈쩍없는 대귀족들 중, 예술가들을 아낌없이 후원하기로 정평 나있는 알베르셋 백작과 레위니온 백작이 그레이스 영지까지 찾아와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전달했다.

“알베르셋 백작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왕녀전하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제 가문의 사병은 물론 앞으로의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물신양면 왕녀전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저희 두 사람이 왕녀전하께 받치는 맹세이기도 합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두 백작이 헤르세인에게 건넨 것은 다름 아닌 일종의 뇌물과도 같았다. 맹세란 이름으로 가려진 뇌물이자 그 속에 또 다시 가려진 보물. 알베르셋 백작이 건넨 것은 ‘바다의 눈물’이라 불리는 현재 지도상에 없어진 멸망한 왕국의 가보로 알려진 목걸이였으며 레뉘니온 백작이 건넨 ‘빙트의 욕망’이라 불리는 순수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팔찌는 유명한 대장장이가 만들어낸 세상에 하나 뿐인 팔찌라고 전했다.

하지만 두 백작이 일종의 보물이라 하는 상당한 것을 왜 맹세로 하여금 자신에게 주려하는지 헤르세인은 이해되지 않았다. 물론 두 사람이 힘을 보태주는 것은 반가운 일이긴 하나,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보물로 하여금 그들이 그것을 바치는 행위가 헤르세인은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째서 내게 이런 것을 주는지 이해되지 않군요. 이 자리에서 두 백작께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는 예술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며 그다지 액세서리에 대한 흥미 또한 없습니다. 그러니 도로 가져가시지요.”

오히려 맹세라고 떠다미는 액세서리 보다 힘이 보태질 두 백작의 사병에 더욱 관심이 갔기 때문에 헤르세인의 단호한 거절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레위니온 백작이 예상했는지 크게 고개를 저으며 설명 했다.

“뇌물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왕녀전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요?”

“예, 왕녀전하께서는 이것들의 가치와 흥미를 느끼지 못하신다 하셨지만 귀족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저희 두 사람이 왕녀전하께 바치는 이것들은 타국의 황제나 국왕조차 감히 탐을 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왕녀전하께 바침으로써 수도에 있는 귀족들은 물론, 지방에 퍼진 귀족들조차 이리 생각하겠지요. 이 두 개의 보물을 가진 왕녀전하의 존재가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할 세력이 되었음을.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저와 또 함께 한 알베르셋 백작이 될 테지요.”

“그 말은 즉, 아직까지 어느 세력이 붙을지 결정하지 못한 대귀족들의 결심을 굳힐 행동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왕녀전하.”

레위니아 백작의 말은 단순했다. 대귀족에 속하는 자신들이 본보기가 되어야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귀족들이 그것을 듣고 움직인다는 것. 확실히, 레위니아 백작과 알베르셋 백작의 위치를 생각하면 대귀족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더욱이 두 백작은 중립파가 아닌 귀족파에 속하는 철저한 정치인들이었으며 이름난 귀족파의 두 백작이 자신의 힘이 되어준다는 것은 카타리아 왕후가 펄쩍 뛸 이야기이기도 했다.

“그러니 거절하지 마시고 왕녀전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애초에 저도 그렇고 이 자도 그렇고 저희들의 저택에는 상당한 보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하께 바치는 것은 그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아끼는 컬렉션 중 하나이지요. 물론 아깝다는 것이 아닌 그것을 전하께 바친 저희들의 결심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레위니아 백작을 대신 해, 다시금 의견을 피력하는 알베르셋 백작의 모습에는 여유가 묻어 있었다. 그 어떤 표정에도 자신이 건넨 보물에 아쉽다는 모습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헤르세인은 결국 그것들을 받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서 두 분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지요.”

분명 알베르셋 백작과 레위니아 백작은 자신의 힘이 되고자 윌리스 왕태자의 세력이 되기를 포기한 것이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다르게 눈을 떠 본다면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움직이는 귀족에 불과했다. 하지만 귀족들의 사병을 쓰려면 결국 세력이란 것이 필요했고 그 세력을 쓰기 위해선 서로간의 교환이 있어야만 했다.

누구보다 자신의 이익이 될 동아줄을 빨리 붙잡아야 하면서도 썩은 동아줄이라 생각하면 금방 그것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 어쩌면 그만큼 눈치가 빠르기에 귀족들의 세력이 그들이 힘이 아직까지 건제하는 건지도 몰랐다. 특히 수도의 정치에서 빠른 눈치로 살고 있는 귀족들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며칠 후. 알베르셋 백작과 레위니아 백작의 결정이 수도까지 전해졌는지 헤르세인은 그레이스 영지에서 꼼짝하지 않았음에도 수도로 퍼진 소식들을 금방 접할 수 있었다. 특히나 제 편이 아무도 없으리라 단언했다던 카타리아 왕후가 그 소식을 듣고 뒷목을 잡고 쓰러졌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으나 헤르세인에겐 그닥 감흥이 없었다. 오히려 길버트를 통해 들은 윌리스 왕태자의 행동이 헤르세인을 놀라게 만들었다.

“정말로 윌리스 왕태자가 그렇게 움직였단 말인가요?”

“예, 저도 의외이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알베르셋 백작과 레위니아 백작이 전하의 편으로 결정한 것에 위기감을 느낀 듯싶습니다.”

“위기라....”

확실히 윌리스 왕태자 쪽을 생각하면 이 상황은 그에게 좋지 않은 위기일수도 있었다. 물론 그의 세력에 선 귀족들은 굳건한 지지를 보이며 미동조차 하지 않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왕태자의 세력인 왕당파일 뿐, 중립파와 귀족파는 달랐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들의 이득을 생각하여 철저히 계산적으로 움직일지 모를 귀족파.

또, 왕당파도 그렇다고 귀족파도 아닌 중립만을 유지할 그들이 본격적으로 중립을 버리고 움직인다면 어쩌면 귀족파 보다 더한 세력이 될지 모를 중립파. 윌리스 왕태자는 자신을 지지하는 왕당파보다 중립파와 귀족파에 더 신경을 썼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져 버렸고 특히나 손을 잡길 원했던 아클레아 상단까지 힘이 되어주길 거절한 이상, 윌리스 왕태자는 본격적으로 움직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귀족들의 이탈을 막는 수도 봉쇄. 어찌 보면 극단적인 선택에 귀족들이 무기를 들고 일어날지 모를 선택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함으로서 본격적으로 움직일 귀족들의 움직임을 막는 것이 윌리스 왕태자의 당장의 최선책일지도 몰랐다.

그럼에도 결국 빠져나갈 귀족은 반드시 생겨날 것이고 그 선택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귀족들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윌리스 왕태자를 좋게 보지 않을 것이었다. 제아무리 왕태자라 해도 귀족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사병의 수는 무시할 수 없으며 그들을 억압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결국 불리해지는 건 윌리스 왕태자 쪽. 헤르세인은 며칠 사이 크게 불어난 사병의 수와 자신의 세력으로 모인 귀족들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곁에 있는 아이르리스를 향해 대답했다.

“신기하지 않나요? 고작 백작 두 명이서 움직였을 뿐인데 그렇게 꼼짝 않던 귀족들이 움직일 줄은… 물론 지금 당장 힘을 보태주고 있는 것이 대다수가 중소귀족이지만 윌리스 왕태자를 몰아세울 대귀족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한건 사실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윌리스 왕태자가 그렇게 움직인 이상 분명 대귀족들도 오래 인내하지는 못 할 테니까요.”

처음 보았던 그레이스 영지의 모습은 숲이 울창하면서도 그레이스 가문의 가신들과 성 밑으로 영지민들이 밭을 가꾸어 사는 모습이었음을 헤르세인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클레아 상단을 시작으로 알베르셋 백작의 사병들과 레위니아 백작의 사병, 그리고 여러 중소귀족들의 사병이 모여들면서 어느새 영지 전체는 갑옷과 제복을 입은 사병들만이 헤르세인의 눈에 담기고 있을 때였다.

“혹시 전하께서 따로 생각해두신 대귀족이 있으신가요?”

“내가 생각한 대귀족 말인가요?”

아이르리스가 묻는 질문은 평범하면서도 누구나 묻게 될 질문과도 같았다. 하지만 불현 듯 머릿속을 스친 한 가문이 떠오른 건 왜일까.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입 안이 쓰게 느껴졌지만 이내 모른 척 하며 태연히 아이르리스를 향해 대답했다.

“아니요, 하지만 모든 대귀족들의 힘이 필요한건 사실이지요. 그들의 힘만 있다면 이렇게 시간을 끌 것도 없이 금방 윌리스 왕태자를 치고도 남았을 테니까요.”

“제가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한 것 같네요….”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한건 아니니까요. 단지 내가 좀 더 힘이 있었더라면… 왕녀로서 자랐다면 어느 정도 내 힘이 되어줄 대귀족이 극소수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답니다. 물론 왕녀로서 자랐다 해도 온전히 나를 믿고 지지할 대귀족이 있을지 의문이 들긴 했지만요.”

딱 한 번, 그런 생각을 안 한건 아니었다. 만약 왕녀로서 자랐다면 제 힘이 되어줄 대귀족과 정면으로 윌리스 왕태자와 싸우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한 번의 생각이란 것이 헛된 망상임을 알려주듯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 아무리 왕녀로서 자랐다 해도 형제를 죽이고 왕좌를 차지한 위스턴 국왕이 살아있는 한, 어머니를 죽인 카타리아 왕후가 살아있는 한,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단숨에 왕태자 자리에 앉은 윌리스 왕태자가 살아있는 한 그 어떤 귀족조차 제 힘이 되어줄 이가 없음을.

오히려 카타리아 왕후의 계략에 일찍이 고립되는 것은 물론, 숨을 거두었으면 거두었지 지금의 나이까지 살아있다면 그것은 기적일지도 몰랐다.

그렇기에 이렇게 아무것도 못한 채, 눈을 감을 순 없었다. 피를 흘리고 상처를 입으면 입었지 검 한번 들지 못하고 복수의 ‘복’조차 꺼내지 못한 채, 죽는 건 더 비참한 것이 아닐까?

‘이제 몇 발자국 만 더 나아가면 검 집에 있는 검을 빼낼 수 있어. 그리고 그때부터가 모든 것이 시작이 될 테지… 더 이상 그 어디에도 물러날 곳은 없어. 내가 가야할 길은 오직 앞뿐이니까.’

애초에 도망친다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지만 헤르세인은 단 한 번도 물러난다는 생각을 염두 하지 않았다.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가야겠다는 결심만을 굳혔을 뿐. 복수를 버린 삶을 복수가 아닌 평범한 삶을 헤르세인은 생각하지 않았다.

‘어머니… 아버지....’

헤르세인은 목에 걸려 있던 펜던트를 꺼내 손에 쥐고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다.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자 아버지가 남긴 유품, 그리고 왕실의 하나 뿐인 가보이자 왕을 증명하는 증표. 수많은 이름들이 펜던트 속에 담겨 있었지만 헤르세인에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목에 걸린 증표로 하여금 자신의 핏줄을 당당히 증명하고 왕좌에 앉는 것. 그리고 복수를 이루는 것. 헤르세인에겐 그것이 목표이자 끝이기도 했다.

“아이르리스.”

“예, 전하.”

“나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 왕좌에 앉겠어요. 그리고 내 복수를… 이룰 겁니다.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서도. 그리고....”

차마 입 밖으로 나올 수 없는 한 사람이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음에도 어쩐지 알 것만 같아 아이르리스는 끝내 물을 수 없었다. 그저 대답할 수 없는 침묵이지만 아이르리스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부디 이 싸움에서 헤르세인이…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도, 길버트도 그 누구도 다치지 않기를.

또한 바라옵건대 헤르세인, 그녀가 완전한 복수의 길로 젖어들지 않기를 바라며 아이르리스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또 기도 할 뿐이었다.

자신을 지지하는 각 왕당파의 수장들을 앞에 두고서 윌리스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상단을 이용하여 보급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상단 중, 가장 큰 상단으로 알려진 아클레아 상단까지 찾아갔으나 결국 윌리스는 다른 상단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생각과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싶어 찾아갔으나 아클레아 상단주의 생각은 달랐는지 결국 헤르세인과 손을 잡았단 소식에 윌리스는 처음으로 미묘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어째서 내가 아닌 헤르세인과 손을 잡은 거지?’

헤르세인이 아클레아 상단주와 어떤 거래를 했는지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아클레아 상단주가 혹할만한 거래를 하기엔 윌리스가 알고 있는 헤르세인의 능력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아직 권력조차 잡아본 적이 없는 애송이에 불과한 왕녀. 단알에서의 능력을 잠깐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헤르세인은 이제 막 정치에 발을 붙이려는 갓난아기에 불과했다.

물론 그녀를 지지하는 그레이스 후작의 힘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나 결국 그레이스 후작도 중립파를 이제 막 버린 귀족일 뿐, 어마무시한 사병을 가진 대귀족들과는 힘이 달랐었다.

하지만 하늘의 장난일지 몰라도 아클레아 상단주를 시작으로 알베르셋 백작과 레위니아 백작, 그리고 중소귀족들까지 헤르세인을 지지하는 소식이 계속 들릴 때마다 윌리스는 보고 싶지 않음에도 듣고 싶지 않음에도 전부 듣고 볼 수 있었다. 회의실에서 흔들리는 귀족들의 모습과 전보다 자신의 의견에 강경하게 나오는 귀족들의 모습까지. 그것을 차츰 실감함으로서 윌리스는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순 없어. 오히려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지는 건 내 쪽.’

아클레아 상단과 손을 잡지 못한 것은 아까웠으나 이 왕국에 존재하는 상단은 결국 아클레아 상단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윌리스는 금방 아쉬움을 버릴 수 있었다. 오히려 헤르세인을 지지하고자 움직이는 귀족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게 된 순간, 윌리스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이후로 수도를 벗어나는 귀족은 전부 왕실에 반기를 드는 반역자로서 간주할 것이니 지금부터 나 왕태자의 이름으로 수도를 전면 봉쇄하겠소."

물론, 그 명령에 반기를 드는 귀족들이 적었다고 할 수는 없었다. 대다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들고 일어나 반대의 의견을 토했지만 윌리스는 그들의 의견을 싹 무시해야만 했다. 어차피 수도 봉쇄에 대한 시간을 길게 끌 생각 따윈 없었으며 귀족들이 완전히 돌아서기 전, 헤르세인을 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면 그뿐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헤르세인을 치기 이전, 결국은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것도 시간의 문제. 윌리스는 오랫동안 잠겨 있던 생각을 그만두고 살짝 삐뚤게 앉아 있던 자세를 바로 해, 나직이 입술을 뗐다.

“밀로유스 상단에서 보급되는 무기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소?”

“무기 보급에 관한 문제는 그곳 상단주가 수월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렇군, 그럼 그레이스 영지 상황은 어떠한가?”

무기 보급문제와는 별개로 윌리스에겐 그 어떤 것 보다 중요한 것이 헤르세인의 동태였다. 때문에 헤르세인의 동태를 확인할 첩자를 발렌티스 백작에게 맡겼으나 무슨 일인지 발렌티스 백작의 표정은 썩 좋지 못했다.

“그, 그게....”

“표정이 어찌 그렇소? 백작.”

“소, 송구하옵니다. 첩자들을 계속 그레이스 영지 쪽에 보내고 있음에도 헤르세인 왕녀에 대한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움직임이 없다?”

“예에… 왕태자 전하.”

헤르세인의 세력이 되는 귀족들의 소문은 누구보다 빠르게 수도에까지 퍼지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헤르세인에 대한 움직임이 없다는 소식은 수도에 전해지는 귀족들의 소식보다 믿기 힘들었다.

“그렇담 셋 중 하나 겠군. 정말로 움직일 생각이 없거나… 혹은 이미 첩자의 존재를 알고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던가, 혹은 첩자를 전부 처리하고 거짓된 정보를 뿌리고 있거나.”

그렇지 않고서야 헤르세인이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자신뿐만이 아닌, 헤르세인의 상황도 생각해보면 시간이 없음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결국 어느 쪽이든 시간을 끈다는 것은 서로에게 유리하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

윌리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원탁위로 둘러싸인 사브레 왕국의 진형을 향했다. 수도를 봉쇄한 왕실의 병력과 각 귀족들의 사병. 그리고 수도를 벗어난 그레이스 영지에 모여 있는 헤르세인의 병력. 각기 색이 다른 작은 깃발이 하나의 선을 두고 대립하듯 멈춰 있었다.

이제는 누가 먼저 선을 넘고 선공을 치느냐의 싸움. 팔걸이에 걸쳐 있던 윌리스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어느 쪽이든 양보할 수 없는 싸움. 태어났을 땐 아니었을지 몰라도 지금 이 자리에 또 왕태자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자신이었다. 그렇기에 물러날 수 없었다. 이 싸움에도 왕좌에서도.

“밀로유스 상단에게 전하게. 보급품 문제가 끝나는 즉시, 우리는 그레이스 영지로 진군할 것임을.”

공중을 울리는 총성과 함께 숲속에 숨어 있는 새들이 다급한 날개 짓을 하며 하늘위로 솟아올랐다. 그리고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던 헤르세인은 어느새 몸을 틀어 제게 다가오는 로렌드를 아니, 정확히 그가 들고 있는 타국의 신식무기를 보고 있었다.

“소리도 그렇고 과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중률이나 화력도 상당합니다. 단지 문제라면 이것을 격발하는 부싯돌 문제와 장전의 시간이 조금 걸린 다는 것이 단점이죠.”

“그럼 그 옆의 화승총은 어떤가요?”

“화승총을 말씀드리자면 격발방식이 다르고 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베르디올 제국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라면 화승총은 이것 보다 새로 개발되기 전의 주 무기라 보시면 됩니다. 또, 화승총은 제가 들고 있는 머스캣과 다르게 격발방식이 오래 걸리고 아무래도 비가 오면 거의 쓸 수가 없다보니 비가 오는 한정으로 단점이 많습니다. 물론 아직까진 화승총 보급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위력이나 명중률이나 대단하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머스캣은 비오는 날엔 쓸 수는 있는 건가요?”

로렌드는 고개를 저어 격발방식이 다름에도 물에 젖으면 소용이 없음을 덧붙였다.

“격발방식이 조금은 다르지만 아무래도 머스캣은 마찰로 인한 장전이기 때문에 부싯돌이라 해도 물에 젖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물에 젖지 않은 부싯돌로 새로 바꿀 수는 있지만 그래도 물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로렌드에게서 머스캣을 건네받은 헤르세인은 유심히 총기를 살펴보았다. 가구 특유의 느낌이 나면서도 금속의 차가움이 돋보이는 신식의 무기. 날카로운 검과 대비되는 또 다른 묵직함과 작은 구멍으로 하여금 그것을 발사하여 과녁을 멀리서 뚫은 위력까지. 헤르세인은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다.

더 이상 검으로 지배하는 세상이 나오지 않음을. 물론 기사들에게 있어 검이란 것은 떼려할 수 없는 전유물이겠지만 시대는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그에 맞는 무기를 갖춰야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갖추기 위해선 보급문제를 떠나 언제 어디서든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이 필요했고 또 자원을 쓸 돈이 필요 했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알고 있던 로렌드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시다시피 머스캣은 베르디올 제국에서도 이제 막 개발한 신식무기입니다. 그게 좀 더 보급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또 화승총과 다른 신식무기란 점에 대량으로 아직까진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베르디올 제국이 안정적으로 머스캣을 생산하지 않는 이상 화승총 쪽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의 말처럼 베르디올 제국은 이제 막 머스캣을 생산하는 단계에 불과했다. 더욱이 무작정 화승총이나 머스캣 제조법을 사기엔 대장장이들의 인력이 부족했고 그것을 만들어낼 학습역시 부족했다. 결국은 제조법 대신 화승총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사병들에게 보급하는 방법 뿐. 하지만 각 귀족들의 사병에 전부 보급하기엔 너무나 많은 거액이 필요했고 장전의 시간을 생각하면 모든 사병에게 화승총을 보급하는 건 효율적이지 못했다.

헤르세인은 머스캣 대신 화승총에 시선을 두며 곁에서 지켜보던 후작에게 물었다.

“화승총 부대를 따로 만들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어떨까요? 아무리 위력과 명중률이 활보다 뛰어나다 해도 단점인 장전시간과 그 장전시간 때 받을 피해를 생각하면 각 귀족들의 사병에 화승총을 보급하기엔 무리인 듯 싶군요.”

“예,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혹시 전하께서 괜찮으시다면 궁수부대를 전면 개편하는 게 어떠신지요?”

“궁수부대를요?”

헤르세인의 옆에서 로렌드의 머스캣 시범을 관찰하던 후작 역시 많은 생각을 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의견을 알렸다.

“검을 주력부대와 다르게 궁수부대 역시 주력부대이긴 하나 궁수부대는 다른 부대와 다르게 활의 소모가 많이 필요한 부대이기도 합니다. 검이야 실전 때 진검을 쓰고 연습 때는 목검을 쓰면 된다지만 궁수부대는 실전도 연습도 똑같이 소모를 합니다. 또, 아무래도 가장 앞에 서서 활약하는 부대이다 보니 오히려 화승총을 가지고 이참에 개편하는 편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미 화승총을 이용하고 있는 다른 타국에선 궁수부대 대신 화승총 부대를 따로 만들 정도로 화승총을 주력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렌드까지 후작의 의견에 동의하자 헤르세인은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좋습니다. 이참에 다른 중소 귀족들과 의견을 나누어 새로운 부대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직까진 우리에겐 화승총을 만들 인력이 거의 없다보니 제조법을 사서 직접 만드는 것보단 구입하여 쓰는 편이 낫겠죠. 후작께서 부대가 완전히 만들어지거든 로렌드 상단주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로렌드 상단주는 부대의 인원을 계산하고 대량의 화승총과 화약 구입을 해주시고요. 혹시 화승총 구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요?”

헤르세인의 물음에 로렌드는 고개를 저어 문제가 없음을 피력했다.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베르디올 제국이 안 된다 해도 이미 화승총을 만들어 무기사업을 벌이는 상단들은 많으니까요.”

“예, 그럼 다른 무기 보급에도 힘을 써주길 부탁드리지요.”

“알겠습니다.”

로렌드가 먼저 자리를 뜨고 과녁만이 있는 벌판에 남게 된 헤르세인은 아직 자리를 뜨지 않은 후작을 향해 물었다.

“영지에 퍼져 있는 첩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골치 아픈 첩자들은 알베르셋 백작과 레위니아 백작이 잘 처리했습니다. 남은 건 윌리스 왕태자에게 혼동을 줄 어리숙한 첩자들뿐이지요.”

“첩자들의 색출이 모두 다 끝나면 준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레이스 후작마저 자리를 떠나고 호위기사들을 남겨둔 채, 벌판에 홀로 남게 된 헤르세인은 과녁이 있는 곳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로렌드가 시범을 보이고자 과녁을 뚫은 파열된 구멍이 헤르세인의 시선에 닿았다.

“....”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단순한 과녁. 하지만 머스캣으로 뚫린 파열된 구멍을 본 순간, 헤르세인은 그 구멍이 정확히 윌리스 왕태자와 카타리아 왕후, 그리고 위스턴 국왕을 향해 쏜 자신의 마음을 대변한 것 같아 구멍을 덧그리던 제 손끝을 멈추며 헤르세인은 나직이 속삭였다.

“이제… 곧 이야… 곧… 모든 것이 끝날 시간이….”

달이 지고 태양이 떠오르는 새벽과 아침의 경계. 헤르세인은 평소에 입고 있던 드레스 대신 아이르리스가 디자이너를 불러 특별 제작해준 하얀 제복을 입고서 마지막, 라즐리가 걸쳐준 검은 천의 망토를 어깨에 두를 수 있었다. 처음으로 입어보는 바지와 다리를 드러내는 굴곡이 어색했지만 움직임에 있어서는 활동성이 좋아 헤르세인은 금방 익숙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완벽한 마무리를 위함인지 망토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라즐리가 황금색의 단추를 채워줌으로서 두 발자국 정도 물러나자 헤르세인은 라즐리를 향해 짧은 인사를 남겼다.

“고마워, 도와줘서.”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밖에 없는 것 같아… 죄송스러울 뿐이에요.”

두 손을 모아 고개를 푹 숙인 라즐리의 모습이 비쳤다. 헤르세인은 두 발자국 떨어진 라즐리의 곁으로 다가가 두 손을 모은 그녀의 손 위로 제 손을 겹쳐 잡으며 나직이 입술을 뗐다.

“죄송스러워 할 것 없어. 내가 내 할 일을 끝낼 때까지, 넌 이곳에서 네가 해야할 일을 하면 되는 것뿐이니까. 누구에게나 해야 할 몫이 있는 것뿐이야. 난 나의 일을, 넌 너의 일을. 그러니 날 위해서 너를 희생할 필요는 더더욱 없고.”

“전하....”

“그러니 내가 없는 동안 빈센트를 부탁할게. 라즐리.”

그 한마디가 라즐리의 마음을 움직인 걸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울적한 표정을 짓고 있던 라즐리의 얼굴은 금방 결연어린 표정으로 바뀌어 반드시 빈센트를 지킬 것을 맹세했다.

“전하께서 돌아오시는 그때까지 이 라즐리, 반드시 빈센트 왕자전하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전하… 부디 몸조심하시고 꼭 돌아오세요.”

“응.”

헤르세인은 후작저에 얼마나 오랫동안 몸을 의탁하고 지냈는지 그 시간을 셈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래 의탁한 만큼 작은 정이라도 들은 탓이었을까. 평소보다 다른 마음가짐으로 떠나는 침실은 헤르세인의 발길을 떨어지지 않게 만들었다. 그러나 언제까지 정체할 수는 없는 법. 헤르세인은 발걸음을 움직여 다시금 앞을 향해 나아갔고 어느덧 수십 개의 계단을 밟고 내려와 활짝 문이 열린 저택의 입구 밖으로 나설 수 있었다.

“전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전하의 목소리만 저들에게 들려주시면 됩니다.”

각 사병들에게 향하고 있는 후작의 시선을 따라, 헤르세인의 시선 역시 그레이스 저택내로 몰려 있는 사병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저택뿐만이 아닌 눈에 닿지 않는 영지내의 사병들을 떠올리며 헤르세인은 오랫동안 다물어져 있던 입술을 떼어 후작과 귀족들은 물론, 무기를 들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사병들을 향해 처음으로 큰 목소리를 외쳤다.

“내 이름은 헤르세인 드 아벨린 미르세니안. 왕비로서 눈을 감은… 그리고 본래 죽은 내 아버지, 에른스트 왕태자의 반려였던 내 어머니 아라네아 드 라니아 미르세니안. 나는 그녀의 딸이며 하나 뿐인 왕실의 적통 에른스트 왕태자의 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지지하고 내 힘이 되어줄 그대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난 잊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 위스턴 국왕과 그의 일가를 왕실에서 몰아낼 것이며 사브레 왕국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대들에게 왕녀로서가 아닌 헤르세인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헤르세인이 사병들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자 그레이스 후작은 물론, 다른 중소귀족들과 저택내에 있는 사병들, 그리고 아이르리스와 엘리카, 길버트까지 놀란 눈을 하며 헤르세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끝낼 생각이 없던 헤르세인은 다시금 고개를 들어 좌중을 압도할 큰 목소리로 모두를 향해 외쳤다.

“오랫동안 슬럼가에서 살아왔던 나는 언변이 좋지 못하지만 이것만큼은 그대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나라는 왕 혼자서 일구는 나라가 아니란 것을. 또, 이 나라가 존재하기까지 그대들이 있기에 나라가 있는 것이고 그대들이 존재하기에 왕이 있음을. 그러니 이 전쟁을 단순히 나 개인적인 일이 아닌, 이 싸움으로 뒤바뀔 사브레 왕국의 새로운 미래로 생각해 주세요. 물론, 내 개인적인 복수심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난 내 복수심을 이용해서라도 이 나라를 바꿀 것이며 그대들의 땀과 피로 하여금 나는 사브레 왕국을 더 이상 나약한 왕국으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나와 이 자리에 있는 모두의 손으로 사브레 왕국을 바꾸어 주세요! 그대들이 새로운 사브레 왕국의 시대가 될 것이고 그대들이 사브레 왕국의 새로운 주역이 될 것임을!!”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헤르세인의 목소리와 그 말이 사병들은 물론 중소귀족들까지 마음을 움직이고 굳건하게 만들었는지 저 마다 손에 쥐고 있던 무기를 번쩍 들어 크게 환호를 질렀다.

“와아아아아아!”

“새로운 시대를 위해!”

“헤르세인 왕녀전하를 위해!!”

“헤르세인 왕녀전하! 만세!!”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이 헤르세인은 미리 준비된 마차가 아닌, 그동안 후작의 영지에서 속성으로 배운 승마를 기억하며 준비된 백마 위에 올라탔다. 시간을 쪼개어 길버트에게서 처음 승마를 배웠을 때만 해도 말을 다루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알았을 때, 헤르세인은 승마를 포기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감옥에서 탈출했던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릴 때면 헤르세인은 포기하려던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 모두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여기까지 왔던가?

승마든 무엇이든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그 덕분일까. 죽기 살기로 승마를 배우니 헤르세인은 승마를 오랫동안 배운 아이르리스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말의 고삐를 잡고 속도를 적당히 조절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될 수 있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 마차를 타고 이동한다면 함께 이동하는 귀족들과 사병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은 물론, 느린 이동으로 윌리스 왕태자에게 금방 이동경로를 들켜버릴 수도 있는 상황. 때문에 헤르세인은 오히려 승마를 그동안 단기 속성으로 빠르게 배워두길 잘했다 생각하며 고삐를 쥐고서 동시에 말을 타고 바로 근처까지 다가온 길버트에게 이동의 시작을 알렸다.

“모두에게 전하세요. 진군의 시작을.”

“예, 왕녀전하.”

윌리스의 명령으로 궁전 바깥으로 나간 적이 없던 카타리아는 그럼에도 시녀를 통해 윌리스의 소식을 듣고 있었다. 하지만 시녀가 다급히 전해주는 하나의 소식에 카타리아는 차를 음미하는 것도 잊은 채, 제자리에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 그게 무슨 말이냐! 헤르세인의 군대가 수도를 향해 오고 있다니?!”

“사, 사실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왕태자전하는 물론 왕성전체가 발칵 뒤집어 졌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내가 윌리스를 만나야만 해… 윌리스를….”

혼을 쏙 빼앗긴 사람마냥 카타리아는 자신이 어떻게 걷고 있는지 조차 느낄 새도 없이 문을 열고서 문 밖을 나서려 했다. 하지만 문 밖으로 한발 작 내밀기도 전에 앞을 가로막는 병사들로 인해 카타리아는 그들을 향해 눈을 부릅떴다.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 어서 비키지 못할까!?”

“왕태자전하의 엄명입니다. 왕후폐하께선 이곳에서 한발자국도 나가실 수 없습니다.”

“네 이놈! 어서 비켜라!! 나는 지금 당장 왕태자를 봐야겠다! 그러니 비키지 못할까!!”

“불가능합니다, 왕후폐하.”

“이… 이놈들이!!”

끝내 앞을 가로막은 병사들을 물리치고 나아갈 수 없던 카타리아는 이를 악무는 것을 고작으로 다시 침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윌리스가 직접 그녀가 거쳐하는 궁전으로 오지 않는 이상,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현실. 카타리아는 그것이 분한 것도 있으나 헤르세인이 군대를 이끌고 수도로 오고 있다는 것이 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끓게 만들었다.

“그년이 기어이… 기어이!!”

시녀가 어떤 눈으로 보던 바깥에 있는 병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던 더 이상 카타리아에겐 중요치 않았다. 머리끝까지 솟아오르는 이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도 그녀에겐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이든 그것을 던져서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했다.

쨍그랑─!

무엇을 던졌는지 얼마나 값어치들이 나가는 것을 박살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들을 던짐으로서 머리끝까지 솟아오른 분노가 차츰 진정될 무렵, 카타리아는 오랫동안 기다린 윌리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위, 윌리스!!”

“모습을 보아하니 어머니께서도 소식을 들으셨군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냐?! 헤르세인이 군대를 이끌고 수도를 향해 오고 있다고 하지 않느냐! 윌리스 어서 내게 말해 보거라! 군대는 준비된 것이냐? 수도는? 네 편에선 귀족들의 사병은?!”

양쪽의 어깨를 부여잡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녀의 모습에 윌리스는 머리가 지끈 아프면서도 일단 카타리아 문제부터 해결해야만 했다. 헤르세인과 수도 문제는 별개로 아무리 제 멋대로 일을 저지른 생모일지라도 윌리스에게 있어 카타리아는 하나 뿐인 어머니이자 사브레 왕국의 국모였다. 때문에 그녀를 피신시키고자 직접 궁전까지 발걸음을 한 윌리스는 카타리아의 손아귀를 간신히 참아내며 아들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했다.

“그것보다 어머니의 문제가 먼저입니다. 헤르세인의 군대가 수도까지 당도하면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선 제가 엄선한 병사들과 함께 왕성을 벗어나 피하십시오.”

“피, 피하다니… 윌리스… 지금 나보고 헤르세인 그년에게서 도망치라는 것이냐?”

“도망치라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 내 사지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난 이곳에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

“난 이 나라의 왕후이자 국모이다! 또한 내가 죽을 곳도 오직 이 왕성뿐이다!! 그런 내게 도망이라니?! 난 절대로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아들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마뜩찮은 걸음임에도 기어이 옮긴 발걸음이었다. 그런데 어린아이마냥 또 다른 고집을 부리는 카타리아의 모습에 윌리스는 질린 표정을 하며 제 어깨를 꽉 쥐고 있는 카타리아의 손을 강하게 쳐냈다.

“윌리스!”

“정 어머니의 뜻이 그러시다면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단, 제가 왕좌에 앉게 된 순간, 어머니께서는 이름뿐인 태후의 자리에 만족하며 사셔야할 것입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감정대로 휘둘릴 생각 따윈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나보고 뒷방신세나 되라는 것이냐?! 윌리스! 윌리스!!”

“내 명이 있기 전까지 한발자국도 왕후폐하를 밖으로 보내지 말라! 알겠느냐!!”

카타리아의 궁전을 감시하고 지키는 병사들에게 다시 한 번 윌리스의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그 명령을 상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윌리스를 따라 침실 밖으로 나오려던 카타리아의 가로 막으며 병사들은 아까보다 더 견고한 자세로 카타리아를 막아섰다.

“비켜라! 비키란 말이다!! 윌리스에게 아직 할 말이 있단 말이다!! 윌리스! 윌리스!!”

윌리스에겐 더 이상 카타리아의 외침은 들리지 않았다. 그동안 많이 참고 참았다 생각했지만 그 인내심은 여기까지인지도 몰랐다. 끝없이 권력을 탐하던 자신의 하나 뿐인 어머니. 하지만 그 권력이 어쩌면 독이 되었던 건지도 몰랐다. 갈구하면 갈수 할수록 더 한 것을 바라던 어머니. 이해하려 했다. 그녀의 오랜 세월을 생각하면 홀로 저와 케시아를 키워주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기까지 했다. 그녀의 외로움을 이해하려 했고 그 외로움이 비틀린 권력욕이 되었음을 알기에 윌리스는 카타리아가 무엇을 하던 웬만하면 개입하지 않으려 했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오직 헤르세인의 죽음과 권력욕만 생각하는 카타리아의 모습은 더 이상 윌리스가 알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아니 이제 손에서 놓아버리는 것이 맞을 지도 몰랐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던 결국 왕이 되는 것은 자신이었고 아무리 생모란 이유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억압하려는 그녀를 이해하기엔 윌리스는 이미 지쳐있었다.

“전부 어머니께서 자초하신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는 부디 제가 왕좌에 앉을 때까지 얌전히만 계십시오. 그게 저를 위한 것이니까.”

문득 머릿속을 스친 케시아의 얼굴이 떠올랐으나, 생각보다 말썽 없이 얌전히 궁전 밖을 나오지 않는 하나 뿐인 동생을 떠올리며 윌리스는 더 이상 가족문제는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카타리아, 케시아보다 수도로 다가올 헤르세인의 군대가 먼저였다.

귀족들이 모여 있을 중앙 회의실로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선 윌리스는 왕태자 자리가 마련된 자리에 멈춰 모두에게 외쳤다.

“지금부터 왕녀 헤르세인을 왕족살해 수배자가 왕위를 찬탈하려는 반역자로 선포하겠소! 또한 수도 전면 봉쇄를 풀어 왕녀의 군대가 수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태세를 전면 실시하겠소!”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 수도의 입성. 그리고 수도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헤르세인은 수도의 입구를 봉쇄한 성벽을 올려보며 하늘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수 십 개의 화살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가뿐히 방패로 막아내고 방패 병들 속에 숨어 있는 화승총 부대가 궁병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면서 주변은 숲의 새들이 전부 떠나갈 만큼 굉음의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탕─ 탕─ 탕─!

‘그대로 문을 열었다면 저들이 죽을 이유도 공격할 이유도 없었을 텐데....’

유혈이 없는 싸움은 과연 존재할까? 서로간의 이해와 목소리가 타협되지 않는 이상, 유혈이 없는 싸움은 없을지도 몰랐다. 특히나 왕좌를 향한 왕실내의 싸움이라면.

“2부대 조준 준비!”

먼저 방아쇠를 당긴 화승총 1부대가 다시 격발 준비를 위해 뒤로 물러나고 뒤에서 이미 방아쇠 당기기를 준비하고 있던 2부대가 제자리를 찾아 조준을 준비했다. 그리고 신호대장이 ‘발사’ 신호를 외치는 동시에 시끄러운 화승총의 총성은 다시 한 번 크게 울렸다.

“아무래도 수도로 진입하기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아클레아 상단에서 보급한 화약은 충분하겠지만 여기서 전부 소모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클레아 상단에서 준비한 화약과 화승총은 화승총 부대가 쓸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수도로 진입해 소비한다는 전제이지 수도로 진입하는 성벽에서 전부 소모시킬 수는 없었다.

“제가 생각하기엔 금방 백기를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작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헤르세인은 엘리카의 목소리를 바로 옆에서 들을 수 있었다. 함께 말을 몰며 같은 자리에 멈춰 있던 덕분에 엘리카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렸지만 헤르세인은 여전히 성벽을 향해 시선을 둔 채, 입술을 움직여 이유를 물었다.

“금방 백기를 든다는 이유가 뭔가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저들 입장에선 화승총은 처음 보는 신식 무기일겁니다. 전하께서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막 화승총을 보고 그것을 쏘았을 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화살보다 빠르게 과녁을 꽂고 화살보다 더한 위력으로 과녁을 통과한 파괴력까지. 또 화살에선 들을 수 없던 총소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동물들조차 놀라게 했죠. 그러니 아마 저들도 저희처럼 똑같이 반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더 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싶군요.”

마치 엘리카의 목소리가 끝나기를 기다렸듯 헤르세인은 또 다시 들린 총소리에 활을 버리며 주변을 허둥대는 성벽의 궁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말처럼 총소리가 상당한 위협이 되었는지 그들은 어찌할 새도 없이 진형을 흩트리며 도망가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도망과는 별개로 아직 성벽에는 백기가 꽂히지 않았다.

“이대로 돌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레이스 후작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헤르세인은 여전히 성벽을 주시하고 있었다. 화살이야 어떡해서든 눈으로 쫓으면 보인다지만 화승총에서 발사되는 납탄은 평범한 시력으론 쫓을 수 없었다. 때문에 화승총의 위력과 총소리에 공포를 느낀 궁병들은 거의 성벽에 보이지 않았다. 더불어 화승총에 맞은 궁병을 보게 된다면 더더욱 실감할지도 몰랐다. 평범한 활로는 화승총을 상대할 수도 이길 수도 없음을.

그때 굳게 닫힌 철문이 열리면서 검과 방패로 또 창으로 중무장한 병사들이 무더기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백기는커녕 공포에 질렸음에도 물러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화승총 부대가 발포를 하기 전, 말을 몰아 저들의 눈에 잘 보이도록 화승총 부대의 뒤편에 멈춰 섰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모를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자 했다.

“지금 그대들의 눈에 보이는 무기로 나는 당장 발포하여 죽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내가 명령을 내리지 않는 건 기회를 주고자입니다. 여기서 백기를 들고 물러난다면 그대들의 목숨을 끊지 않을 것을 맹세하지요.”

“....”

“그대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건 타국과의 전쟁이 아닌 나와 왕태자의 개인적인 싸움임을. 그대들이 나와 왕태자로 인해 애꿎은 피를 흘릴 이유는 없고 왕태자를 위해 칼을 휘두를 필요 또한 없습니다. 그대들이 들고 있는 방패와 검은 누구를 위하여 들고 있는 것인가요. 왕태자를 위해 들고 있는 무기인가요? 아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들고 있는 그대들의 애국심 입니까? 비록 내가 군대를 이끌고 수도로 입성하려는 것은 사실이나 나는 이 싸움을 통해 백성도 그대들도 모두가 피해를 입는 싸움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당장 선택하세요. 무엇을 위해 무기를 들고 싸울지.”

만약, 몬테올 왕국과의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지금 눈앞에 있는 병사들은 어쩌면 윌리스 왕태자를 위해 싸웠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몬테올 왕국이 사브레 왕국의 전체 사기를 떨어트려 버렸고 아직까지 전쟁의 상처는 그들에게도 일반 평민들에게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실정이었다.

극심한 가뭄난과 계속해서 치솟는 물가. 전쟁이 끝났음에도 그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먹을 것으로 모두를 고통 받게 하고 있으며 그 고통은 일반 말단의 병사들에게도, 더 나아가 기사들에게 조차 귀족들에게 조차 갈등을 만들었다. 나라가 안정 돼야 만 모든 것이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

파가 나뉜 귀족들이라면 몰라도 일반 평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나라가 안정되는 것이 경제가 안정되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들에게 있어 왕이란 것은 감히 닿지 못할 하늘과도 같은 존재이기에 솔직히 말하자면 그들에겐 왕이 누가되었든 중요치 않았다. 그저 저들이 먹고 살만한 경제가 안정된다면야 그들에겐 경제를 안정시킨 왕이 좋은 왕이고, 경제를 불안정하게 하며 좋지 않는 치안과 가뭄, 그리고 강제로 전쟁에 차출하기 위한 병사들을 뽑는 왕은 좋은 왕이지 못했다.

때문에 그들의 현재 심리를 잘 알고 있는 헤르세인은 화승총 부대를 다른 자리로 돌리며 다시 한 번 입을 열었다.

“적통의 핏줄인 것을 떠나, 나는 사브레 왕국을 다시 바로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그대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지요. 그러니 부탁하겠습니다. 이대로 무기를 버리고 내가 수도로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세요. 나는 같은 왕국사람끼리의 피를 보고 싶진 않습니다.”

얼마 동안 침묵이 이어졌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흔들림이 결정을 내린 건지, 아님 아직까지 화승총에 대한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검과 방패, 그리고 창을 들고 있던 병사들이 하나 둘씩 무기를 손에서 내려놓음을 볼 수 있었다.

우당탕 소리를 내며 하나씩 손에서 떨어지는 그들의 무기와 항복을 표시하는 빈손을 완전히 인식했을 때, 헤르세인은 모두를 향해 큰 목소리로 외쳤다.

“수도를 향해 다시 진군하세요!!”

그레이스 영지에 머물렀던 시간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하지만 그 시간이 실감되지 않을 만큼 수도의 풍경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었다. 후작과 엘리카, 그리고 길버트와 나란히 함께 수도의 광장까지 단숨에 도착한 헤르세인은 멀리 있음에도 한눈에 보이는 왕성 곳곳에 배치된 중무장을 한 병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거기서 나아가지 않고 헤르세인은 후작과 길버트, 엘리카를 향해 또 다른 계획의 실행을 알렸다.

“엘리카는 내가 말한 그곳으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그레이스 후작께서는 후작의 별장을 거점으로 삼아 다른 귀족들과 함께 상황을 살펴주시고, 길버트는 나와 함께 그곳으로 이동하도록 하지요.”

“예, 전하.”

따로 팀이 꾸려진 호위병사 부대를 움직여 헤르세인은 길버트와 함께 기억하고 있는 길을 따라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왕녀전하.”

“라인하르트 후작은....”

라인하르트 후작을 대신해 헤르세인을 맞이한 것은 다름 아닌 클로드였다. 현재 후작을 대신해 라인하르트 가문의 후계자로서 작위 계승을 준비 중인 클로드의 상황을 헤르세인은 알지 못했다. 때문에 클로드는 잠시 자리를 비운 후작을 떠올리며 헤르세인을 향해 대답했다.

“아버지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일단 따라오시지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클로드를 따라 금방 접견실에 도착한 헤르세인은 호위기사처럼 저를 따라오는 길버트의 움직임을 보며 클로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착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차를 내오겠다는 클로드의 주문을 거절하며 헤르세인은 기다릴 것 없이 본론을 꺼냈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제게 말씀해주십시오. 조만간 작위 계승이 있는지라 현재 라인하르트 가문은 제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랜만에 마주한 클로드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달라져 있었다. 처음 봤을 때와 다른 부드러운 분위기가 언뜻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평소 보았던 제복이 아닌 편안한 정복차림으로 앉아 있는 클로드의 모습은 마치 젊은 라인하르트 후작을 보는 것 같으면서도 이제 막 새로운 가주가 될 라인하르트의 젊은 신세대의 후작을 보는 느낌이기도 했다.

“나는....”

왜일까.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라인하르트 저택에 온 것만으로도 헤르세인은 아까보다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여전히 가슴속에 담겨 있는 자책감 때문일까. 그의 흔적, 루드비카의 흔적이 묻어 있는 저택임을 인지한 순간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그리움을 느끼고 말았다.

“전하?”

쉽게 떨어지지 않는 굳어버린 입술. 그리고 가슴을 파고는 그리움. 하지만 앞으로 시작될 큰 거사를 눈앞에서 두고서 감정적일 수는 없었다. 헤르세인은 애써 그리움을 묻어버리며 간신히 입술을 움직여 본론을 꺼낼 수 있었다.

“예전에 이 저택에 찾아왔을 때, 라인하르트 후작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도 알고 있겠지요. 내가 후작께 어떤 부탁을 했는지.”

“…예,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하께선 라인하르트 가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당시의 난 아무것도 모르는… 무작정 도움을 바라고 왔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러니 그때의 이야기를 정정하고 다시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거래… 말씀이십니까?”

“네. 나는 라인하르트 가문의 힘이 필요합니다. 대신 그 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생각입니다. 물론 내가 이 싸움을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에 따라 거래가 성립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클로드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고 있는 헤르세인을 볼 수 있었다. 처음 보았던 인상과는 전혀 달라진 그녀의 모습. 그 누구도 그녀를 두고 고귀한 왕녀로서 생각한 이들은 없었을 것이었다. 심지어 제 자신조차 그리 생각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현재 눈앞에 있는 헤르세인은 상당히 달라져 있었다. 전시상황 중임에도 드레스 대신 움직이기 수월한 제복으로 번듯하게 입은 그녀의 모습은 감히 건들 수조차 없는 고아한 왕녀와도 같았다.

특히 흔들림 없는 코발트빛의 눈동자로 저를 담아내고 있는 눈동자는 더더욱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무게감까지 담겨 있어 클로드는 진심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리숙하고 사생아란 이유로 모두에게 짓밟힌 왕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없었다. 여느 고아한 왕족처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고고히 앉아 있는 그녀의 모습에는 우아함과 기품까지 돋보이고 있었다.

‘루드비카....’

너무나 당연하게도 눈을 감은 아우가 떠오른 건 왜 일까. 만약 루드비카가 살아 현재 그녀의 모습을 본다면 똑같이 놀라워할지도 몰랐다. 그만큼 루드비카가 알던 나약한 왕녀는 더 이상 어디에도 없으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그녀는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검을 빼든 고고한 검사와도 같았다.

“그 거래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한 그리고 도달한 결론. 그레이스 후작의 힘이 큰 것은 사실이나, 결국 왕좌를 안정적으로 차지하기 위해선 왕당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라인하르트 가문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왕당파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병을 거느린 것은 물론 위스턴 국왕도, 심지어 윌리스 왕태자조차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 하지만 라인하르트 가문을 움직이기 위해선 그만한 대가가 필요했다. 온전한 힘이 되어줄, 그리고 라인하르트 후작이라면 거절할 수 없는 가장 큰 거래. 헤르세인은 오랫동안 생각해온 그 답을 클로드에게 대답했다.

“나의 힘이 되어주는 대가로 그대의 가문을 후작에서 공작의 작위로 상승해주는 것은 물론, 내가 왕좌를 온전히 차지할 시, 그대를 국서로… 맞이할 생각입니다.”

“국서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국서, 말 그대로 여왕의 남편이 되는 자리. 어찌 보면 왕후와 비슷한 자리이기도 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장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는 클로드의 눈은 평소보다 커져 있었다. 왜 아니겠는가? 작위 상승인 공작자리만으로도 클로드에겐 가장 큰 거래이기도 했다. 하지만 공작과 더불어 국서의 자리는 더 큰 자리이면서도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클로드는 몇 번이나 입술을 벙긋거릴 뿐, 제대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정도면 라인하르트 가문에게도 그대에게도 충분한 거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클로드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는 헤르세인의 눈은 고요하면서도 너무나 담담했다. 마치, 가문의 웃어른들이 정한 정략혼인처럼 오히려 태연히 그것을 먼저 제안하는 헤르세인의 모습은 냉담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국서란 것을 아직까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한편으론 곧바로 머릿속을 스친 한 사람의 모습에 클로드는 피곤해진 눈을 감으며 가까스로 입을 열 수 있었다.

“전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국서는 안 될 말입니다.”

“어째서인가요? 이보다 더 그대의 가문에게도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을 텐데?”

“그건....”

그녀가 알고서도 그렇게 쉽게 국서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지 속마음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클로드의 생각은 달랐다. 어쨌거나 자신은 죽은 루드비카의 형제였으며 그녀가 얼마나 루드비카를 사랑했는지, 또 라인하르트 가문과 어떤 악연 아닌 악연이 되었는지 잘 알고 있기에 작위 상승 문제와는 별개로 국서의 문제는 함부로 승낙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러나 헤르세인은 이미 오랜 마음을 굳힌 건지 클로드의 생각과 다른 그녀의 결단이 클로드의 두 손에 힘이 들어가겠끔 만들었다.

“그대가 나를 어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조차 실례일지도 모르겠지요. 하지만 지금 내가 그대에게 말하는 모든 것은 생각 없이 뱉어낸 말들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내가 내린 결정들입니다.”

“하지만 왕녀전하──.”

“내 문제를 떠나, 그대는 물론 라인하르트 가문이 오랫동안 왕족을 지지한 왕당파의 명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왕국을 보세요. 몬테올 왕국과의 전쟁으로 현재 사브레 왕국은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말… 왕녀로서 해선 안 되는 말이지만 언제 어느 때 왕국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지요.”

“....”

헤르세인의 말처럼 클로드는 현재 사브레 왕국의 정세가 좋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몬테올 왕국과의 전쟁 전만해도 경제는 어느 정도 돌아가는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물가 문제가 좋다고 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몬테올 왕국과의 전쟁 이후는 극심한 경제난이 시작되었고 치솟는 물가와 좋지 않게 된 치안 문제. 그리고 가뭄과 더불어 왕실의 국고를 써야 되는 논의가 나올 만큼 몬테올 왕국은 정말로 예전보다 사정이 좋지 못했다.

하지만 나라 문제와 왕권문제와는 별개 문제. 그녀가 아무리 제게 좋은 거래 제안을 했어도 클로드는 그 거래를 덥석 선택할 수 없었다. 어찌됐든 그 선택이 결국 누군가의 힘을 크게 실어주는 것이었으며 라인하르트 가문의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몰린다면 왕당파 귀족들도 움직이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었다.

“당장, 이 자리에서 결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고 그 결정에 합당한 선택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모은 군대를 이끌고 왕성으로 향할 수도 있지요.”

“....”

“그럼에도 내가 당장 왕성으로 향하지 않는 건, 그 누구의 피를 흘리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이런 말… 모순 적일수도 있지만 나는 그 누구의 피도 흘리지 않은 채 왕좌에 앉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번 일으킨 군대는 결코 피를 흘리지 않을 순 없겠지요. 또한 나는 이 싸움을 빨리 종결내고 싶은 생각 뿐 입니다. 계속 이 싸움을 유지했다간 다른 제국이나 왕국에겐 사브레 왕국을 넘어올 좋은 기회일 뿐이니까요.”

그녀의 말처럼 한 번 시작된 싸움은 결코 피를 흘리지 않을 순 없었다. 둘 중 누구라도 피를 흘려야 완전히 종결될 싸움. 특히나 왕족간의 싸움은 어쩌면 타국과의 전쟁보다 심하면 심할지도 몰랐다. 더욱이 왕좌를 쟁취하기 위한 단순한 것이 아닌 특수한 감정이 들어가 있다면 더더욱.

클로드는 오랫동안 내리깔고 있던 눈동자를 움직여 헤르세인을 보았다. 사생아 왕녀가 아닌, 사브레 왕국의 가장 적통성의 핏줄을 지닌 고귀한 적통의 왕녀. 클로드는 헤르세인에게 한 가지를 물었다.

“전하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싸움이든 전쟁이든 한번 일어난 것은 결코 평화롭게 매듭을 지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왕녀전하와 윌리스 왕태자전하의 태생과 그분들의 과거를 생각하면 더더욱 평화롭게 끝낼 수는 없겠지요. 더욱이 카타리아 왕후폐하라면 더더욱. 만약 윌리스 왕태자전하께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왕녀전하께서도 물러나지 않으실 겁니까?”

이 세상에 자비롭고도 지혜로운 왕은 있을지라도 완전한 성인군자인 왕은 존재할 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성군과 폭군. 하지만 왕좌를 차지해 왕이 된다 해도, 왕으로서의 실적이 후세에 어떻게 평가될지 그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법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선택한다면 자신은 성군이 아닌, 폭군이 되길 선택할지도 몰랐다. 성군이라는 것은 생각만큼 폭군보다 굉장히 왕으로서도 어려운 길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특히나 자신의 성격을 생각한다면 성군보다 오히려 폭군이 더 어울릴지도 몰랐다. 이 가슴속에 잔잔히 들끓는 복수를 생각한다면.

“그대가 보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없이 연약해 보이는 그런 왕녀로 보이는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게 끝까지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그들의 피까지 볼 생각은 없습니다.”

“....”

“하지만 내게 끝까지 맞서고 윌리스 왕태자의 편에 계속 있겠다면 난 봐줄 생각도 자비를 배풀 마음 또한 없습니다. 윌리스 왕태자의 편에 계속 선다는 건 나의 피를 보겠다는 것이고 오직 윌리스 왕태자만이 그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인 왕좌의 주인이라 결정했을 테니까요. 그러니 그들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나 역시 물러날 생각 또한 없습니다. 이 대답이면 충분히 그대가 결정하리라 생각되는 군요.”

헤르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을 피력했다. 애초에 거래의 목적으로 발걸음을 한 라인하르트 저택. 이정도면 그에겐 충분한 거래 조건이라 생각했기에 헤르세인은 망설이지 않았다.

“라인하르트 가의 사정을 생각해 이틀까지의 시간을 드리지요. 이틀이라 해봤자 언제 윌리스 왕태자가 먼저 움직일지 모를 상황. 그럼에도 내가 그대에게 시간을 주는 건, 그대가 심사숙고한 결정이 미래를 결정할 시간임을 알게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배려… 감사드립니다.”

“그대의 결정,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헤르세인이 떠나고 홀로 접견실에 남은 클로드는 힘이 빠진 채,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힘이 빠진 것도 있지만 실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정신적인 피곤함 때문에 클로드는 몇 번이고 마른세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정신적인 피곤함이 단지 헤르세인을 상대했다는 이유가 아닌 그녀가 건넨 거래조건들이 클로드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어찌 보면 간단하고도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거래조건. 하지만 가문이나 미래를 생각하면 막상 선택이란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어렵기 마련이었다. 특히나 만약이라는 전제란 것이 클로드를 망설이게 만들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만 생각하는 미래를 꿈꾸나 예상을 했음에도 곧 눈앞에 닥칠 현실은 늦게 깨닫기 마련이었다.

아직까진 윌리스 왕태자 쪽으로 기울어져있는 권력의 구도. 특히나 윌리스 왕태자의 권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카타리아 왕후의 입김이 얼마나 강했던가. 지금의 왕당파 귀족들이 굳건히 버티는 것도 카타리아 왕후의 입김과 권력, 그리고 후계자가 아닌 위스턴 왕자를 국왕으로 내세웠던 과거가 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보아도 윌리스 왕태자가 불리해보이지 않는 싸움. 물론 권력이란 것이 윌리스 왕태자에게 가장 많이 기울었기에 겉으로 보기엔 불리해보이지 않으나 그 속은 이미 불리해지는 잔금들이 생겨 있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윌리스 왕태자의 정통성.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왕실의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인 솔루에가 헤르세인 왕녀에게 있다는 점. 마지막 세 번째, 헤르세인 왕녀가 철저히 정통성과 솔루에를 이용하여 귀족들을 이미 흔들고 있다는 점이었다.

덕분에 흔들린 중소귀족 대다수가 헤르세인 왕녀의 편으로 섰지만 몇몇의 백작들을 빼면 아직 수도에 있는 대다수의 대 귀족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물론 이젠 대 귀족들조차 얼마가지 않아 움직일 것이 예상되나 윌리스 왕태자가 눈치를 주며 버티고 있는 이상, 함부로 움직일 대 귀족은 없다는 뜻이었다.

“결정… 그리고 국서....”

어떻게 보면 가장 파격적인 거래일수도 있는 국서의 자리. 만약 그녀가 정말로 왕좌를 차지하고 진정한 왕이 된다면 국서의 자리는 누구나 탐낼 자리일지도 몰랐다. 아니, 어느 귀족가의 자제들이 탐내지 않을 수 있을까. 국서만 된다하면 그들의 피를 이은 자식은 왕자나 혹은 왕녀가 되고, 또 왕위를 이을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과연 그 자리를 탐내지 않을 귀족들이 있을 수 있을까?

“루드비카… 만약… 만약 네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그 자리는....”

설령 정략혼인으로 국서의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갈지라도, 클로드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 자리는 틀림없이 만약에 살아있을 루드비카의 자리가 될 것임을. 오직 국왕만을 지지하는 왕당파. 그리고 왕당파 중에서도 큰 중심축이자 국왕의 큰 권력이 되어줄 라인하르트 가가 존재하는 이상, 국서의 자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차지할 수 없는 자리이기도 했다.

하지만 루드비카가 살아있고, 서로 연모하는 두 사람이라면 분명 은퇴를 미룬 제 아버지가 두 사람을 허락했을지도 몰랐다. 그야말로 두 사람이 가장 바라던 결말이 아니던가.

“네가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씁쓸히 올라가는 입 꼬리. 그리고 그리움이 담긴 클로드의 눈동자는 바로 엊그제 같은 과거에 젖어 있었다.

“선택 해야겠지. 나를 위해서가 아닌, 가문을 위한다면 반드시.”

형으로서 루드비카를 생각하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루드비카 이전, 가문의 후계자로서 가문의 미래를, 그리고 지금의 왕국 상황을 생각하면 클로드는 반드시 선택해야만 했다. 안정적으로 왕당파 가문의 한축으로서 윌리스 왕태자를 지지할지, 안정을 버리고 모험을 선택하여 가문의 미래를 끝낼지, 혹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지.

당장은 결정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시간이 클로드에게 주어져 있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틀이란 시간일 뿐. 클로드는 심사숙고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

오랫동안 감았던 눈을 뜨며 클로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접견실에서 나와 바로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집사 헨드릭에게 후작의 행방을 물었다.

“아버지께선 아직 돌아오시려면 멀었나?”

“오전에 왕성으로 가셨으니 지금 시간이면 곧 돌아오실 시간입니다. 혹시 급한 일이시면 마차를 보낼까요?”

클로드는 고개를 저어 집무실로 향하는 방향으로 몸을 틀었다.

“아버지께서 도착하시면 내게 즉시 알리도록. 그리고 왕녀전하께서 오신 문제는 내가 설명 할 테니 성급히 아무 말 말고.”

“알겠습니다.”

완전히 집무실로 들어간 클로드는 후작이 도착할 때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후작을 대신해 책상에 가득 쌓인 서류들을 처리해갔다. 그리고 한 시간이 지날 쯤 저택으로 돌아온 후작을 바로 맞이한 클로드는 헤르세인이 다녀간 것과 그녀의 거래에 대한 설명도 잊지 않았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후작과 오랜 논의 끝에 결정한 클로드는 그레이스 영지에 라인하르트 인장이 박힌 서신을 보냈다. 그리고 클로드에게서 서신을 받아든 헤르세인은 그레이스 후작은 물론,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다린 소식을 전달했다.

“이로서 라인하르트 가문과 후작은 저를 지지함을 공식적으로 인증했습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널리 퍼트리세요. 왕당파의 주축인 라인하르트가 윌리스 왕태자가 아닌 이 헤르세인을 지지한다는 것을.”

떨리는 두 손과 흔들리고 있는 두 동공은 현재 윌리스의 심리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떨림이 아닌 분노 인해 떨리는 두 손은 아무것도 아닌 종잇장을 꽉 잡고 있을 뿐이며 글자에 박혀 있는 시선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문장을 전부 다 읽고 이해하기도 전에 윌리스는 서신을 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평정심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젠장!!”

“와, 왕태자 전하!”

얼마나 단언하고 또 단언했던가. 단 한 번도 라인하르트 가문이, 왕당파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후작이 저를 배신하고 헤르세인 편에 붙으리란 것을 윌리스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왕당파이기에 저를 지지하는 가장 큰 주축이기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흔들리기는커녕 아예 헤르세인을 지지하는 라인하르트 가의 빠른 움직임이 윌리스는 기가 막힐 정도였다.

쾅─!

탁상을 상당한 악력으로 내려친 윌리스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기에는 한계가 다다랐다. 또한 탁상의 흔들림 덕분에 일부로 외면했던 또 하나의 서신이 눈에 들어온 순간 윌리스는 턱에 힘을 주며 그것을 들어 확인해야만 했다.

【이 서신을 읽고 있을 윌리스 왕태자에게.

보시는 그대로 왕당파의 주축인 라인하르트 가문은 나를 지지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라인하르트 가문의 움직임으로 대 귀족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지지하거나 혹은 윌리스 왕태자, 당신을 지지하겠지요. 그러니 묻겠습니다. 이 싸움을 끝까지 밀고 나갈지… 혹은 양보를 할지.】

양보? 아니, 단 한 번도 머릿속에 새긴 적이 없는 단어나 마찬가지였다. 죽으면 죽었지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윌리스는 이 싸움에서 양보도, 물러날 생각도 전혀 없었다. 오직 둘 중 하나만 살아남는 왕좌의 싸움.

“한번 칼을 빼든 이상, 너도 나도 물러날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둘 중 누가 참혹하게 죽느냐 일 뿐.”

방금 전까진 치미는 분노가 머릿속을 지배했으나 금방 침착함을 찾은 윌리스는 굳은 결심의 눈빛으로 저를 지지하는 모든 귀족들에게 입을 모아 외쳤다. 이제부터가 진짜 피가 튀기는 싸움의 시작을. 그리고 그 한명이 죽을 때까지 결코 물러날 싸움이 아닌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임을.

“지금부터 수도가 아닌 왕성의 방어태세를 갖추고 나는 헤르세인 왕녀의 목을 반드시 내치어 왕좌를 온전한 내 것으로 만들겠소! 이것이 왕태자로서 선택한 나의 결정이오!”

진즉에 풀린 수도 봉쇄를 끝내고 본격적인 싸움을 위해 왕성의 방어태세와 선공을 시작한 윌리스 왕태자의 행동은 특히나 오랫동안 왕태자를 보아왔던 귀족들조차 놀래게 만들었다. 늘 감정적이던 왕후와 달리 이성적이며 침착함을 유지했던 왕태자. 하지만 늘 이성적이던 왕태자까지 바꿔놓을 만큼 왕좌란 것이 그만큼 왕족들이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커다란 권력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게 만들었다.

“1부대 2보 전진!”

“조준──! 발사──!”

코끝을 맵게 만드는 짙은 화약 냄새와 사격으로 잠깐의 안개를 만든 화약연기가 헤르세인의 시선에 모든 것이 담겼다. 거대한 총성과 발사로 총상을 입는 상대편의 병력이 하나 둘씩 쓰러질 때마다 헤르세인은 생각했다.

만약 윌리스 왕태자가 왕좌를 양보한다면 순순히 그를 살려줄 의향이 있음을. 카타리아 왕후나 위스턴 국왕, 그리고 케시아를 뺀다면 윌리스 왕태자는 직접적으로든 무엇이든 해를 끼친 것이 없었기에.

하지만 생각은 생각일 뿐. 현실은 예상처럼 변하지 않았다. 윌리스 왕태자는 물러나지 않고 싸우기를 선택했고 자신 역시, 물러나지 않는 것을 택한 상황. 둘 중 한명이 죽을 때까지 결국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 것이었다.

“1부대 후퇴! 2부대 조준 준비!”

“....”

“적을 향해! 발사──!”

얼마나 많은 화약과 화승총이 교체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화승총의 상당한 화력이 큰 도움이 된 것인지 왕성의 1관문을 지키고 있던 대다수의 방어부대는 전멸하기 일보직전이자 헤르세인은 이번 선발대를 책임지는 알베르셋 백작에게 나직이 신호를 보냈다.

“화승총 부대를 물리고 선발대를 움직여주세요. 이제 2관문을 쳐야겠습니다.”

“예, 전하!”

기합이 들어간 선발대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빠르게 말을 타고 움직일 선발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삐를 잡고 재빨리 말을 모는 선발대의 민첩함은 한눈에 보아도 알베르셋 백작이 신중히 정한 선발대임을 보여주듯 가장 날쌨고 관문을 지키는 병사들을 처리하며 곧장 2관문을 향해 돌격하는 선발대의 모습은 마치 다음 관문을 무너트릴 전차와도 같았다.

“2관문 돌파했습니다!!”

“3관문을 돌파했습니다!!”

차례로 하나씩 들리는 돌파의 목소리는 틀림없이 헤르세인의 귀에 닿았다. 그리고 마지막 본궁의 입구까지 힘차게 달려온 헤르세인은 말에서 내려 다음 작전을 지시했다.

“지금부터 병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대는 위스턴 국왕을, 제2 부대는 카타리아 왕후를, 제3부대는 케시아 왕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부대는 나와 함께 윌리스 왕태자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두르세요. 여기서 한명이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각자 소임을 맡은 귀족들과 각 부대가 흩어지면서 어느새 본궁 입구에는 헤르세인과 제4부대를 이끄는 클로드만이 남게 되었다. 본궁으로 들어가기 전, 헤르세인은 기사의 제복대신 가문의 갑옷을 입은 클로드를 향해 오랫동안 닫혀 있던 입술을 열었다.

“어째서 더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내 곁에 남은 건가요.”

“더 큰 공보다 왕녀전하의 안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뜻이 아닌 제 뜻으로 전하께 충성을 받치기로 한 몸. 제겐 공 따윈 중요치 않습니다.”

헤르세인은 대답대신 클로드를 흘긋 보다가 하루 전, 직접 사병들을 이끌고 찾아와 무릎까지 꿇어 충성을 받친 그의 모습을 떠올렸다.

"이것은 저의 뜻이자 제 아버지, 라인하르트 후작각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라인하르트 가문은 온 몸을 받쳐 헤르세인 왕녀전하께 충성을 받칠 것이며 왕녀전하께서 왕좌에 앉으실 수 있도록 라인하르트 가문은 모든 사력을 다해 희생할 것을 맹세하겠습니다."

본디 오랜 기사 명맥을 이어온 가문이기 때문일까. 그레이스 후작은 물론, 다른 귀족들조차 보인 적이 없던 각오이자 맹세이기도 했다. 그리고 덩달아 함께 떠올려 버린 또 한 사람의 맹세.

『이 보잘 것 없는 저의 목숨과 제 일생을 왕녀전하께 모두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전하의 곁에 저를 귀속시켜 주십시오. 전하의 하나 뿐인 검이 되고, 전하의 하나 뿐인 방패가 되어 전하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전하의 곁을 지킬 수 있는 한 사람 몫의 기사가 될 수 있도록 제 검을 받아주십시오. 이 검은 오직 나의 주인 헤르세인… 당신의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떠올림. 그리고 그것이 강한 낙인이 된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이명이 헤르세인의 가슴을 아릿하게 만들었다.

“왕녀전하?”

클로드의 목소리가 물을 끼얹은 것처럼 가슴을 다시금 차게 적셔갔다. 그리고 다시 생각을 원점으로 정리할 수 있었던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구겼던 표정을 풀어 오직 본궁의 정문만을 바라보며 나직이 입술을 떼었다.

“들어가지요. 윌리스 왕태자가 어쩌면 기다리고 있을 장소로.”

헤르세인과 윌리스의 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몇 시간 전. 케시아는 침실에 처박혀 주위가 산만할 만큼 제자리서 움직이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왕성 바로 가까이 들어보지 못한 굉음의 총소리가 들린 순간, 케시아는 완전히 정신 차릴 수 있었다. 바보마냥, 멍청이 마냥 이렇게 침실에 처박혀 있을 수 없음을.

도망보다, 자신에겐 꼭 이뤄야할 사명이 있음을.

“저, 전하! 당장 도망치셔야 합니다!”

“닥쳐! 지금 도망이 중요하다 이거냐?! 헤르세인 고 계집이 여기까지 들어오면 모든 것이 끝장이야! 아무것도 이룰 수조차 없어!! 그러니 잔말 말고 따라와!!”

로브를 뒤집어 쓸 필요도 없이, 전투로 인해 이미 복도는 병사들이 어수선히 움직이고 있어 케시아의 행동 따윈 그 누구의 시선에도 들어오지 않았다. 케시아는 그것을 이용해 루네즈를 데리고 서둘러 본궁으로 향했고 다행히 주변의 경계는 무척이나 느슨해져 있어, 케시아는 더욱 대담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너무나 쉽게 도착할 수 있었던 본궁.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한 케시아는 굳게 닫힌 침실 문을 열기 전 루네즈에게 단단히 당부 했다.

“주변을 잘 경계해. 그리고 쥐새끼 한 마리라도 보이면 즉시 내게 알리고. 알겠느냐?”

“예, 전하….”

윌리스 왕태자의 권력 때문인지 오랜 칩거와 미쳐 버린 정신문제로 위스턴 국왕의 왕실내의 평판은 이미 떨어질 때로 떨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원래라면 굳건히 문 앞을 지키고 있을 호위 병사나 호위기사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아 오히려 그것에 안심한 케시아는 아무도 지키지 않는 문을 열고서 침실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으윽… 술 냄새....’

문을 잠깐 열었을 뿐인데 코끝에서 찌르는 지독한 알코올 냄새가 케시아의 미간을 단숨에 일그러트렸다. 더욱이 이제는 시녀들조차 관리를 안 하는 건지, 환기조차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이며 커튼을 거두지 않는 어두침침한 실내의 모습에 케시아는 작은 한숨과 동시에 서서히 떨려오는 제 손끝을 느낄 수 있었다.

‘떨지 마. 이제부터가 시작이잖아…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구....’

왜 이다지도 손끝의 떨림이 멎지 않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절호의 기회. 케시아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품속에 숨겨둔 약병을 꺼낼 수 있었다.

“아… 아버지… 폐… 하....”

칠흑 같은 어둠속에 유일한 등불을 빛 삼아 등을 지고 있었던 이빨 빠진 사자의 뒷모습. 아무리 모두가 찾아오지 않는 외면 받는 곳임에도 위스턴 국왕은 기가 막히게 케시아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는지 살짝 목을 돌려 가장 아끼는 제 친딸을 맞이했다.

“오오… 이게 누구냐. 나의 사랑스러운 왕녀… 케시아가 아니 더냐....”

“아, 아버지… 그, 그동안 별고 없으셨는지요....”

“별고는 무슨! 내 이렇게 형님과 아라네아와 마주 앉아 술잔을 나누고 있었다. 너도 이리 와서 앉거라!”

“...예?”

케시아는 국왕이 무슨 말을 하는지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 주저앉아 술을 마시는 국왕의 모습을 등불로 확인한 순간, 케시아는 단숨에 미간을 좁힐 수밖에 없었다.

국왕의 맞은편으로 놓아진 두 개의 술잔. 하지만 술이 담긴 술잔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그 술잔의 주인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니, 또 다시 술잔을 기울이는 위스턴 국왕의 환상에 비롯된 술잔의 주인들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죽은 에른스트 왕태자와 아라네아 왕비. 이로서 케시아는 확신할 수 있었다. 정말로 제 아버지가 미쳐버렸음을.

“인사해라 케시아… 네 백부랑 백모이시다.”

“아버지....”

살아있지도, 그렇다고 보이지도 않는 환상을 향해 백부와 백모라 소개하는 그 모습은 케시아를 이질적이게 만들면서도 단단히 제 아버지가 정신 줄을 놨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죽은 얼굴조차 모를 전 왕태자인 백부야 그렇다 쳐도, 바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 어머니를 제쳐두고 아라네아 왕비에게 사랑을 목매던 제 아버지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백모라니? 죽은 에른스트 왕태자의 왕태자비였던 그녀를 백모는 물론, 그의 아내로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케시아 일그러진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위스턴 국왕은 아무도 입에 대지 않은 꽉 채워진 두 개의 술잔을 스스로 마심으로서 다시 비워내 빈 잔을 또 술로 채워냈다. 그러나 그 술도 얼마가지 못해, 몽땅 비워냈는지 빈 술병을 몇 번이나 위아래로 움직이던 위스턴 국왕은 배고픔 대신 술 배를 채워야하는 병에 걸린 사람마냥 새로운 술을 찾기 시작했다.

“술… 술이 다 떨어졌구나. 술이… 게 아무도 없느냐! 술이 없다… 내게 술을 다오… 어서 술을...!”

“....”

오랫동안 땀에 배이도록 손에 쥐고 있던 약병의 감촉이 케시아는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이것만 사용하면… 난....’

모르가나가 보여준 지독한 소악마의 실체를 봤음에도 어쩐지 보이지 않는 악마가 제게 유혹하는 것 같았다. 당장 손에 쥐고 있는 약병을 쓰라고. 그래야만 간절한 바람과 사랑하는 이를 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막상 악마의 유혹처럼 움직이기엔 손톱만큼 남아있던 양심이란 것이, 케시아의 발목을 붙잡았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이는 건....’

눈앞에 있는 아버지를 죽일 거냐고. 사랑하는 이를 위해 패륜을 저지를 거냐고. 그래도 죽은 사람보다 산사람이 살아야하지 않겠느냐는 천사의 양심어린 목소리가 들린 것 같으면 기분 탓일까? 그러나 그 어디에도 틀린 말은 없었다. 아무리 정신이 미쳐버린 아버지일지라도 결국 눈앞에 살아있는 건 제 아버지였으니까.

하지만 지금 당장의 양심을 지켜야할 만큼 이보다 더 일생에 중요한 순간이 있을까?

‘아버지도 결국은 패륜을 저지르고 왕좌를 손에 넣었어… 더군다나 난 패륜을 저지르는 게 아니야… 난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려 하는 것뿐이야. 그 뿐이라고....’

약병을 움켜쥔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바람처럼 천사가 사라지고 어디선가 악마가 키득키득 웃고 있는 것 같았지만 케시아에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다. 오직, 해야 할 일만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을 뿐.

“아버지... 제가 갖다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음산히 죽은 눈을 빛낸 제 딸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이미 반쯤 곯아떨어진 위스턴 국왕은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어서 술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다른 술을 찾을 것도 없이 주변에 반쯤 남아있던 술병을 찾은 케시아는 술병을 들어 병마개를 열고 숨을 죽인 채, 미리 준비한 약병을 들어올렸다. 그리고 작은 마개를 열어 반쯤 차있던 술병에 보랏빛의 액체를 전부 붓고서 다시 마개를 덮은 케시아는 빈 약병을 품속에 넣어 이제 막 술병을 찾은 흉내를 내며 위스턴 국왕의 곁으로 다가갔다.

“아버지,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니시지요? 일어나세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술 찾아왔어요.”

“으음… 그래…? 그럼 어서 술잔에 따라 보거라. 오랜만에 케시아… 네가 따라주는 술을 마셔보자꾸나….”

분명 약병에 담긴 건 보랏빛 액체임에도 등불에 비친 술의 색은 변하지 않은 호박 빛의 특유 색깔이었다. 케시아는 다시 병마개를 열어 위스턴 국왕이 내민 빈 술잔에 한 가득 호박색의 액체를 채워냈다.

졸졸졸 따라낸 술의 소리와 코를 지독히 마비시키는 알코올의 냄새. 그리고 술을 따라내는 동시에 저도 모르게 긴장의 침을 삼킬 수밖에 없었던 케시아는 작은 헛숨을 삼키며 술잔을 끌어당겨 그것을 마시려는 위스턴 국왕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럼, 잘 마시마.”

술잔을 끌어당겨 기분 좋게 마시려는 위스턴 국왕의 모습이 케시아의 두 눈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 조금만, 몇 초만 지나가면 술잔에서 없어질 액체임을 알면서도 그 순간 케시아는 위스턴 국왕이 술 한 모금마시기 전, 저도 모르게 외칠 수밖에 없었다.

“아, 아버지!”

“음… 어찌 그러는 것이냐…?”

“…예? 아, 아니요. 그게....”

이제 와서 다시 죄책감이 들기라도 한 걸까? 왜 하필 중요한 타이밍에서 아버지를 외쳤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술에 섞여버린 모르가나가 건넨 보랏빛의 액체. 다시 되돌아가기엔 너무 많이 와버린 거리였다. 차마 아버지의 모습을 정면으로 볼 수 없어 케시아는 어색한 웃음과 함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말았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어서… 드세요.”

“녀석도 참… 아무튼… 잘 마시 마….”

“...예.”

꿀꺽, 꿀꺽.

술을 단숨에 삼키는 소리가 귀에 닿았음에도 케시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약의 효과가 상당히 빠른지 손에서 떨어지는 술잔 소리가 들린 순간, 케시아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이번엔 곯아떨어진 것이 아닌, 약의 효과로 완전한 잠에 취한 국왕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침실의 내부. 케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위스턴 국왕의 곁으로 바짝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몸을 흔들어보거나 작은 소음으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나는지 재차 확인한 끝에 케시아는 자리에서 한 발작 물러나 물끄러미 국왕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몇 번이나 불렀음에도 고요히 눈을 감고 있는 국왕의 모습은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시체와도 같았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온전히 눈에 담아낸 케시아는 오랫동안 품속에 숨겨두었던 단검을 꺼내들었다. 흔하면서도 묵직한 무개와는 비교도 안 될 아주 작은 단검. 작은 검 집을 열어 날카로운 날붙이를 보이기까지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두 손 가득 단검을 쥐어 그것을 높이 치켜세운 순간 케시아는 손끝에서부터 팔까지 전염되는 떨림을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

한때는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 제 오라비만 생각하는 어머니보다도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저를 아껴주는 아버지가 케시아는 세상에서 가장 좋았고 행복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행복이자 오롯이 과거가 될 기억들.

그래서 일까? 케시아의 한쪽 눈에선 미적지근한 한 줄기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눈물과는 전혀 다른 그녀의 입꼬리는 일그러진 미소를 덧그린 채 깊은 잠에 빠진 국왕을 향해 나직이 목소리를 냈다.

“아버지… 아버지께선 절 이해해주실거라 믿어요.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분이니까요. 그러니 아버지… 저를 미워하시면 안 돼요? 왜냐고 물으시면 저는 아버지랑 가장 닮았으니까… 저 역시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다시 손에 넣기 위해서 모든지 하는 것뿐이니까요….”

“....”

“아버지… 아픔은 한순간이래요.”

“....”

“그러니... 아버지의 심장… 제가 잘 가져가서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겠어요. 부디… 지켜봐주세요. 제가 어떻게 그를 살리는지… 제가 어떻게 아버지 보다… 어머니보다… 오라버니보다 행복하게 살게 될지.”

케시아에게 있어 행복은 루드비카의 시작이자 완전한 끝이기도 했다. 그 어떤 정략혼인보다 권력보다 루드비카와 함께하는 것만이 전부인 케시아에겐 그가 없는 세상은 더 이상 꿈꿀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살아 숨 쉬고 버티고 있는 이유 역시 루드비카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알기에. 또 언젠간 그 끝에 도달할 행복한 보상이 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기에 높게 치켜들어 아래를 향해 단검을 내리꽂는 케시아의 손짓에는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었다.

“용서하세요. 아버지.”

오랫동안 침실 밖으로 나오지 않는 주군을 기다리며 루네즈는 점점 촉박해지는 시간을 따라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대로 계속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아님 침실 안으로 들어가 주군을 도와야 하는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던 찰나, 루네즈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침실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왕녀전──! 헉! 저, 전하!!”

“…아직 이곳을 지나간 이들은 없었겠지?”

저를 보는 눈과 질문하는 음색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루네즈는 말 그대로 어떤 눈으로 그녀를 봐야할지 감히 똑바로 볼 수 없었다. 드레스며 머리카락이며 얼굴이며 어느 한 곳 멀쩡한 곳 없이 한가득 붉은 핏물로 적신 케시아의 모습은 마치 피칠 갑을 한 악마의 모습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 모습과 별개로 조심스럽게 피 뭍은 보자기를 감싸 안은 그녀의 모습을 다시 확인한 순간, 루네즈는 소름이 돋는 동시에 직감할 수 있었다. 분명 저 보자기 속에 감춰진 것은 틀림없이 모르가나가 원한 제물임을.

모르가나와 케시아, 이 두 사람이 무슨 거래를 했는지 루네즈는 알 수 없었다. 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때면 루네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고 매번 모르가나와 단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궁으로 돌아온 주군의 모습은 가끔씩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었다. 때문에 이번에도 모르가나가 좋지 않은 방법을 꾀하며 제 주군에게 요구한 듯싶었지만 막상 그것을 또 다시 눈앞에서 보니, 루네즈는 일개 시녀로서가 아닌 단순한 사람으로서 이 방법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자신은 일개 시녀이자 제 주군의 하나 뿐인 직속시녀. 오랫동안 그녀의 곁에 머물며 모든 충성심을 받친 이상, 루네즈는 그 의문을 지워내야만 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루네즈는 미리 준비해둔 로브를 케시아에게 씌워주는 동시에 손수건으로 그녀의 얼굴에 묻은 핏방울들을 어느 정도 닦아낼 수 있었다. 그 다음 자신이 해야 할 몫인 현재 상황을 보고했다.

“전하께서 안에 들어가 계시는 동안 바깥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래도 헤르세인 왕녀쪽이 유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빠져나갈 곳은 준비되었겠지?”

루네즈는 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다시 살피곤 대답했다.

“예, 전에 봐둔 요리사들 전용 출구가 있습니다. 그곳이라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겁니다.”

로브의 후드를 꾹꾹 눌러 써, 피로 적셔진 드레스를 전부 가린 케시아는 바로 안내할 것을 명령했다.

“서둘러라. 어서 빨리 이것을… 모르가나에게 전해줘야 해.”

“예, 전하.”

상황이 불리해졌음을 알자 사병을 물리고 도망친 귀족들과 그럼에도 끝까지 남아 제 편을 들며 검을 들고 싸우던 귀족들. 모두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윌리스의 곁에 남거나 또는 떠나버렸다. 하지만 윌리스는 떠나가는 그들을 붙잡지 않았다. 귀족들은 본디 박쥐같으면서도 결국 왕실이 유지되는 것도 그들의 박쥐같은 마음 때문일지도 몰랐다.

“위, 윌리스 왕태자전──! 크윽──!”

“도, 도망치십시오!”

“어서 왕태자전하를 보호──!”

공중으로 흩뿌려지는 붉은 선혈과 소나기처럼 내리는 핏방울들. 그리고 그 핏방울들이 완전히 대리석 바닥을 물들였을 때, 윌리스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싸움의 패배는 오롯이 제 자신임을.

“...헤르세인.”

“...왕태자전하.”

서로 다름의 이름을 부르며 공중으로 부딪친 각각의 눈동자는 그렇게 마주하고 있었다. 여전히 검을 놓지 않은 채, 헤르세인을 마주보고 있는 짙은 녹안의 눈동자. 그리고 피에 절은 모습임에도 고귀함을 놓지 않은 왕태자를 보고 있는 시린 푸름의 눈동자. 서로를 눈에 담아 각기 다른 모습으로 상대방을 마주하는 왕녀와 왕태자의 의지를 꺾을 이들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한눈에 보아도 이 싸움의 패배자임을 부정할 수 없는 왕태자는 이미 홀로 굳건히 서 있었다.

이제 어느 누구의 방패막이조차 기대할 수 없이 혼자가 되어버린 윌리스 왕태자. 헤르세인은 아주 오랫동안 뽑지 않던 레이피어를 들어 왕태자를 향해 겨누었다.

“보다시피 이 싸움, 제가 이겼습니다. 당신은 결국 이 싸움에서 진 패배자가 되었지요.”

“...그래. 난 이 싸움에서 졌고 승자는 네가 되었지. 그런데 뭘 망설이는 거지? 어서 내 목숨을 끊어라.”

“....”

레이피어를 겨눈 상태로 헤르세인은 한발자국, 또 한발자국 걸어 나가 윌리스 왕태자와의 간격을 좁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의 숨을 끊어내기엔 벌어진 간격. 헤르세인은 다시금 한발자국 나아가 제자리에 멈춰 나직이 입술을 뗐다.

“저를 원망하나요?”

무슨 이유로 헤르세인이 그런 질문을 건넸는지 알 수 없으나 윌리스는 작은 실소와 함께 고개를 뻣뻣이 들어 똑바로 시선을 마주한 채 대답했다.

“원망이라… 나는 애초에 너를 내 경쟁자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

“....”

“너를 깔보는 것이 아닌, 결국 네 태생이 어떻게 되었든 난 왕태자로서 자랐고 아버지의 뒤를 잇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네 존재가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결국 너와 난 하나의 왕좌를 가지고 경쟁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는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

“....”

“내 문제와 별개로 네가 내 어머니를 어찌 생각하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왕태자로서 너에게 아무감정이 없다면 왕태자로서가 아닌, 내 어머니의 아들로서 난, 아라네아 왕비를 좋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결국 아라네아 왕비와 내 아버지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된 것이니까.”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낸 윌리스의 말이 한발자국 더 나아가려던 헤르세인을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다. 레이피어에 힘을 주고 있던 손까지 힘을 빼어 검을 내리자 곁에 있던 클로드의 목소리가 얼핏 들린 것 같았지만 헤르세인은 그것을 무시하며 윌리스처럼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털어놓았다.

“결국 저를 원망하신다는 말씀이네요. 하지만 당신의 개인적인 원망이 어느 정도일지 몰라도 당신네 일가를 향한 내 원망과 분노는 하늘과 땅 끝의 차이겠지요. 아무리 날 원망한다 해도 당신은 당신의 부모덕에 지금까지의 행복과 권력을 누렸고 내가 나타날 때까지조차 뻔뻔히 살았으니까.”

“....”

“그래서 난, 왕태자로서의 당신도 왕태자가 아닌 당신도 똑같이 원망합니다. 더 원망이 큰 쪽이라면 당연히 왕태자가 아닌 모습이겠지만 결국 어느 쪽이 되었든 지금의 당신을 그 자리에 있게 한건 내 아버지의 죽음으로 비롯된 것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난 당신만큼은 눈을 감을 생각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 당신이 내게 해를 입힌 건 없었으니까….”

그때 싸움으로 흐트러진 앞머리를 쓸어 올리며 윌리스는 코웃음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씁쓸한 작은 웃음소리를 내며 오랫동안 침묵하던 입술을 열었다.

“날 봐준 다라… 그거야 말로 오만이 아닐까. 물론 네 말처럼 내 어머니와 다르게 나는 너에게 직접적인 해를 입힌 것은 없었다. 나는 내 일만으로도 벅찼으니까. 하지만 왕좌에 앉을 그릇은 결코 오만해선 안 된다. 특히나 왕좌를 두고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느냐. 헤르세인, 넌 성인군자가 아닌 오직 네 복수만을 생각해 왕좌에 앉을 왕녀일 뿐이다. 오만은 왕좌를 앉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권력이다.”

“예, 당신의 말처럼 그런 생각을 했던 난 오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난 분명히 말했습니다. 생각 했을 뿐이라고. 난 그릇도 작을뿐더러 죽기 살기로 살아온 나의 지독한 슬럼가 생활을 다시금 깨달았기에 나는 내 이기심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용서? 아량? 아마 죽을 때까지 용서와 아량을 베풀 위인은 되지 못할 테지요. 나는 복수로 여기까지 왔고 당신들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그리고 과거를 책임지게 만들 것이니까.”

헤르세인은 매정히 몸을 돌려 손에 쥐고 있던 레이피어를 다시 검 집에 꽂아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마디를 끝으로 헤르세인은 다리를 움직여 나아갔다.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모를 아량을 당신에게 베풀겠습니다. 그러니 편히 눈을 감으시길.”

헤르세인이 클로드를 지나친 순간, 제자리에 움직이지 않던 클로드가 서서히 다리를 움직여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윌리스 왕태자의 눈앞에 멈춰선 순간, 클로드의 눈과 윌리스의 시선이 동시에 부딪쳤다.

“왕태자전하.”

“썩 나쁘지 않은 죽음이군. 어서 치게. 그 검으로 내 목을.”

“한때, 전하를 모실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제게 베푸셨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라… 그대에게 그런 말을 듣게 되는 날이 올 줄이야… 정말로… 나쁘지 않는 죽음이야….”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힘차게 실내를 울렸다. 바람과 함께 갈라진 선혈들이 공중으로 흩어졌고 얼마가지 않아 무겁게 바닥을 향해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을 때, 클로드는 검을 거두며 사병들에게 시체 처리를 맡겼다.

“왕태자의 시체는 따로 불태우도록. 왕녀전하의 명이시다.”

이로서 완전히 끝난 윌리스 왕태자와의 싸움. 오늘의 이 싸움은 영원히 사브레 왕국의 역사에 기록 될 것이었다. 또한 이 싸움에서 패배한 윌리스 왕태자의 기록 역시 남지 않게 될지도 몰랐다. 역사는 늘 승자만이 기록되며 패자는 결코 역사에 기록될 수 없으니까.

“....”

클로드는 걷고 있던 걸음을 멈춰 사병들의 손에 옮겨지는 윌리스 왕태자의 시체를 볼 수 있었다. 패배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편한 죽음을 맞이한 왕태자. 하지만 윌리스 왕태자와의 싸움은 끝났을지라도 카타리아 왕후와 위스턴 국왕이 존재하는 한, 아직까지 이 싸움은 끝난 것이었다. 특히나 헤르세인 왕녀에게 있어서 더더욱.

이제 본격적인 그녀의 복수는 지금부터일지도 몰랐다.

완벽한 승리라 할 수 없지만 헤르세인은 윌리스와의 싸움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덕분에 왕좌의 임시 대리자로서 단상에 설 수 있게 된 헤르세인은 왕성 내에 흩어진 세력들과 사병들을 모아 자신의 앞으로 무수히 붙잡힌 윌리스 왕태자를 지지하던 귀족들을 볼 수 있었다.

“하, 한번만 살려주십시오! 와, 왕녀전하! 부디 한번만 저희에게 기회를─!”

“...죽여라.”

“왕녀전──! 크억!!”

싸움의 불리함을 깨닫고 진즉에 발을 뺀 소수의 귀족과 달리, 밧줄로 꽁꽁 묶인 채 간절히 읍소하는 귀족들의 울음소리는 헤르세인의 이성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사, 살려주십시오! 왕녀전하! 제발!!”

“죽여라.”

“안──! 커억!”

어쩌면 그들에겐 죄가 없을지도 몰랐다. 그들은 그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안위와 미래를 생각해 그들 나름대로 최선책의 미래를 선택한건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은 결국 패배라는 실패였고 윌리스 왕태자를 끝까지 지지한 그들의 믿음을 신용할 수는 없었다. 아무리 대 귀족이라 할지라도 사병이 있고 작위가 박탈되지 않는 이상, 그들은 제 가문을 위해 권력을 위해 다시금 칼을 갈, 이들이었다.

그들의 권력을 빼앗고 사병을 왕성으로 복속시켜 작위 또한 박탈하는 것은 쉬운 일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들의 작위와 사병을 모두 빼앗기엔 헤르세인의 현재 위치는 왕좌의 임시 대리자란 위치에 불과했고 정식으로 교황청을 통해 대관식을 치루지 않는 이상, 헤르세인의 위치는 고작해야 왕녀의 위치. 언제 치러질지 모를 대관식을 한참 기다리는 것 보다 속전속결로 윌리스 왕태자를 끝까지 지지한 세력을 하루라도 빨리 처단하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이었다.

“....”

얼마나 많은 왕당파 귀족들이 이 회의장에서 죽었는지 헤르세인은 굳이 짐작하지 않았다. 더 이상 호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하루 종일 단상에 서서 그들의 죽음을 두 눈에 담아내던 헤르세인은 계단을 타고 내려와 밑에 있던 그레이스 후작에게 왕후의 상황을 물었다.

“카타리아 왕후는 어찌하고 있나요.”

“아직… 왕태자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카타리아 왕후의 궁전으로 향하실 생각이십니까?”

헤르세인은 따로 대답할 것도 없이 이미 회의장에서 벗어나 카타리아 왕후의 궁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궁전에 도착해 헤르세인은 침실의 문을 단단히 지키고 있는 감시병들을 볼 수 있었다.

“문을 열어라. 그리고 내가 따로 부르지 않는 한, 절대로 그 누구도 들이지 말라.”

감시병이 열어주는 문을 통해 헤르세인은 왕후의 침실로 들어설 수 있었다. 침실로 들어서자마자 가장 눈에 비친 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실내의 모습과 반쯤 미쳐버린 것 같은 왕후의 몰골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반쯤 미쳤던 미치지 않았던 헤르세인은 무심한 표정으로 테이블 가까이 다가가 의자를 끌어 자리에 착석했다.

“네년이 여긴 무슨 낯짝으로 온 것이야… 설마… 이런 내 꼴을 흉보러 온 것이냐?”

“그럼 그거 말고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하─! 그래서? 통쾌 하느냐? 기뻐 죽겠느냐?!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내 아들을 죽여 속이 시원한 것이냐!?”

살짝 고개를 숙여 지금까지 왕후를 보고 있지 않던 헤르세인은 빳빳이 고개를 들어 왕후를 정면으로 보았다. 그리고 저절로 거만히 올라간 다리를 꼬아 그 위로 양 손을 깍지 낀 헤르세인의 모습은 왕녀도, 승리자도 아닌 이 날을 그저 오랫동안 기다린 복수자 헤르세인일 뿐이었다. 그 누구보다 당당히 어깨를 피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헤르세인은 드러나지 않는 표정 속에 감춰진 비릿한 비소를 그리며 입술을 움직였다.

“아니… 내 분이 풀리기엔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단 걸, 그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알고 있겠지. 대역죄인이자 폐후 카타리아 엘 미네아 라그디알.”

“감히… 감히 너 따위가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카타리아 왕후가 제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보란 듯이 테이블을 내리치려 했지만, 이미 사병들이 들이닥쳐 오랫동안 밧줄로 속박된 왕후는 제자리에 꼼짝 없이 몸짓만 크게 움직일 뿐, 일어서지도 그 어디에도 이동조차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본 헤르세인은 다시금 표정을 지워 그 어느 때보다 가라앉은 목소리를 냈다.

“얼마나 내가 이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는지 당신은 모를 테지. 애초에 내가 이긴다는 생각 따윈 전혀 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그 입 닥쳐라!!”

“내 어머니를 죽인 대역죄인 카타리아 엘 미네아 라그디알.”

“내가 어찌 대역죄인인 것이냐! 내가 무슨 이유로! 난 이 나라의 국모이다! 이 나라의 하나 뿐인 정실왕후란 말이다!!”

한 나라의 국모, 그리고 정실왕후. 그토록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자리이자 위치, 또 그 누구도 감히 손에 쥘 수 없는 권력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끝없는 욕심을 냈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 채 더한 짓을 저지르기까지 했다. 이런 세상에야 왕실암투가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애초에 그녀는 카타리아는 갖지 말아야할 자리와 권력을 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그 최후의 끝은 몰락. 그녀는 이미 벼랑 끝에 선 죄인이나 마찬가지였다.

“감옥에서 분명 당신에게 말했을 텐데… 당신은 분에 넘치는 자리에 앉은 것은 물론 가져선 안 될 권력을 쥐었다고. 만약 잊은 거라면 지금부터 차근히 설명해주겠어. 앞으로 당신과 내가 마주앉아 얘기할 시간은 아주 많을 테니까.”

“하─! 내가 너의 망발을 전부 들어줄 것이라 생각하느냐?! 차라리 죽여라! 어서 날 죽여!!”

“아니… 난 당신을 너무 쉽게 죽일 생각은 추호도 없어.”

헤르세인은 꼬고 있던 다리를 풀어 완전히 제자리에서 일어나 한발자국 또 한발자국 카타리아가 앉아 있는 근처로 다가갔다. 하지만 온전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간 것이 아닌 그녀를 지나쳐 찢어진 커튼이 흉측해 보이는 창가 앞에 선 헤르세인은 무심히 창밖의 풍경을 보며 나직이 말을 이었다.

“당신은 쉽게 죽어선 안 돼. 왜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당신은 내 어머니를 잔혹하게 죽인 가장 최악의 악녀이니까.”

“악녀? 하하하하하! 우습구나! 네까짓 게 벌써 왕의 행세를 하며 시답지 않은 왕 노릇이라도 하려는 것이냐? 그래… 네 말대로 난, 분에 차고도 넘칠 왕후란 자리에 앉았지. 권력 또한 쥐었고. 하지만 그게 뭐? 난 당연한 것을 누렸을 뿐이고! 왕후로서 당연히 왕비에게 내린 엄벌 이었다! 아니! 애초에 네가 받을 벌을 네 어미가 대신해서 받았을 뿐이야! 그것을 네까짓 게 감히! 내게 논하는 것이냐?!”

그녀의 말처럼 애초에 형벌을 받을 사람은 제 자신이었다. 하지만 의식이 없는 사이, 저를 대신해 형벌을 받은 건 생각지 못한 제 어머니였고 결국 그 형벌은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죽음으로 어머니의 눈을 감게 만들었다.

자식으로서 낳아준 생모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출생의 비밀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매정함과 외면이 그저 단순한 감정일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매정함과 외면이 저를 지키려는 방패였을 줄을 누가 상상했을까.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두 손을 웅크리며 힘을 주고 있음을 느끼지 못한 채, 여전히 시선은 창밖을 향한 채 마른 입술을 떼었다.

“당신의 말처럼 내가 받을 형벌을 내 어머니가 대신 받게 되었지. 하지만… 당신이 왕후라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왕후라면 한번쯤은 눈을 감고 그 형벌을 물릴 수도 있었다. 지독한 형벌이 아닌 적어도 작은 벌이라도 내렸으면 그만이었어. 하지만 당신은 애초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지. 왜? 오랫동안 시기하고 질투했으니까. 눈엣가시인 내 어머니를 완전히 치워버리는 것이 당신이 가장 바라고 원한 것이었으니까. 이것을 과연… 한 나라의 왕후가 내린 선택이라 할 수 있을까?”

“닥쳐라─! 네까짓 게 무엇을 알아! 나의 무엇을 안다고 지껄이는 것이야!!”

눈에 담기지 않을 창밖의 시선을 외면한지 오래. 헤르세인은 몸을 완전히 틀어 아주 천천히 카타리아가 꽁꽁 묶여 앉아 있는 곳으로 조금씩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완전히 그녀의 맞은 편 앞에 선 순간, 헤르세인은 카타리아의 헝클어진 머리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아아악─!”

“아파? 아무것도 아닌 머리카락을 고작 움켜쥔 것뿐인데 이깟 고통으로 아프다하면 내 어머니의 고통은 뭐가 되는 거지?”

“이거 놓──!”

“지금까지 인내했던 당신의 시기와 질투… 어느 정도 난 이해할 수 있어. 왜 아니겠어? 여인으로 태어난 이상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당신은 그 선을 이미 진즉에 넘어버린 거야. 시기와 질투에 눈이 뒤집혀 내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당신을 난 결코 용서할 수 없어. 내 어머니가 누렸어야할 모든 것을 빼앗은 당신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내 절실한 사랑을 짓밟아버린 당신을 증오해.”

“크흑!”

움켜쥐었던 손을 놓아 헤르세인은 거칠게 그녀를 밀어버렸다. 동시에 의자에 꼼짝없이 묶인 채로 바닥에 몸을 부딪친 카타리아는 죽일 듯이 헤르세인을 노려보았지만 헤르세인은 가장 증오하는 서늘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옅은 비소를 머금었다.

“어디 한 번 그 눈으로 똑똑히 보도록 해. 왕좌의 앉은 내 모습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으로 당신을 천천히 죽여주겠어. 그게 내 복수이니까. 어머니의 몫 그대로 돌려주겠어.”

“어서 날 죽여라! 날 죽여! 누구 마음대로 네깟 년이 그 자리를 탐한 단 말이냐! 윌리스는 어디 있는 것이냐! 윌리스! 윌리스!!”

침실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오락가락한 정신으로 죽은 왕태자를 찾는 카타리아의 목소리는 처절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처절하기만 할 뿐, 그 어떤 감정조차 들지 않는 헤르세인은 단단히 감시병들에게 카타리아를 감시할 것을 명했고 조만간 그녀가 온전히 홀로 쓸 감옥을 생각하며 헤르세인은 다시 회의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윌리스와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 왕성을 점령한지도 어느덧 일주일이 흘렀을 쯤, 헤르세인은 여전히 왕성 내의 대대적인 혁신을 위한 물갈이로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행방을 알 수 없는 케시아까지. 언제 어디서 어느 시간에 케시아가 사라졌는지 신기하게도 그녀를 목격한 이들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결국은 수색범위를 넓혀 케시아를 찾고 있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고개를 젓는 길버트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유연히 움직이던 깃펜의 움직임을 멈췄다.

“송구합니다. 왕녀전하.”

“케시아와 함께 사라진 이가 직속시녀인 루네즈임을 알게 된 이상, 분명 시녀 루네즈는 어디서든 나타날 것입니다. 오랫동안 왕족으로 살아온 케시아가 이곳을 덜컥 떠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더욱이 루네즈 없이 케시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저도 그리 생각하지만 만약 수도를 벗어났다면 찾기가 더욱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지방 쪽으로 소수의 인원을 보내 수색범위를 좀 더 넓히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리하세요. 하지만 시간은 많이 줄 수 없습니다.”

대대로 국왕들이 쓰는 집무실 대신, 본래 자신의 궁전인 레인 궁을 집무실로서 사용하기 시작한 헤르세인은 그레이스 후작이 매번 가져다주는 서류 작업에 몸이 한 개라도 부족할 정도였다. 그저 앉아 열심히 깃펜을 움직이는 것뿐이건만 의외로 많은 체력을 소모하는 작업에 헤르세인은 길버트가 집무실을 떠나는 것을 보고서 눈가를 만지며 피곤함을 억눌러야 했다.

“왕녀전하, 라인하르트 경께서 오셨습니다.”

공자, 그리고 후계자가 아닌 경이란 호칭이 그에겐 익숙한 것인지 아직까지 후작 작위를 계승하지 않은 클로드가 열린 문을 통해 집무실로 들어섰다. 이제 막 눈가를 마사지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손길. 헤르세인은 눈가를 만지던 손을 내려 담담히 클로드를 맞이했다.

“오셨군요.”

“송구합니다. 혹시 업무 중에 제가 찾아온 것이라면....”

“아니요, 잠시 쉬고 있었을 뿐이에요. 앉으세요.”

조심스럽게 긴 다리를 움직이며 클로드는 헤르세인이 안내한 소파에 앉을 수 있었다. 그리고 차가 준비될 예정인지 시녀가 트레이를 끌고 들어오자 클로드는 손을 들어 차가 필요치 않음을 대답했다.

“차는 괜찮습니다. 그보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녀를 물려주심이….”

클로드가 찾아온 이유만으로 어느 정도 그의 말을 예상한 헤르세인은 시녀를 물려 조용한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을 때 헤르세인이 먼저 이야기를 주도 했다.

“폐왕의 시체에 대해 알아낸 것이 있습니까?”

당연하게 들어온 그녀의 질문에 클로드는 아쉽게도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폐왕을 끌어내리고자 침실로 향했던 제1부대의 병사들. 하지만 그들은 밧줄로 꽁꽁 묶은 폐왕이 아닌 이미 시체가 되어버린 폐왕을 끌고 올 수 없었다. 무작정 폐왕의 시체가 있는 침실로 향했던 헤르세인의 다급한 걸음. 그리고 마침내 헤르세인은 물론 함께 따라간 클로드 역시 처참히 죽은 폐왕 위스턴의 모습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다.

미스터리의 사건으로 남을 만큼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흔적들. 헤르세인의 명을 받고 클로드는 몇 번이나 왕실 의사들과 병사들을 총 동원하여 국왕을 죽인 진범을 찾으려 했지만 행방이 묘연한 케시아 왕녀만큼이나 쉽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역시 의사들의 똑같은 답을 들을 수밖에 없던 클로드는 아무 단서도 찾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의사들이나 검을 다룰 줄 아는 기사들 모두, 여전히 누군가로 인한 타살로 보고 있습니다. 가슴을 찌른 방향이나 솜씨를 본다면 상대는 분명 처음 사람을 찌른 인물임을 틀림없습니다만… 지금 당장 병사들을 총 동원해 왕성을 뒤진다 해도 범인은 찾기 힘들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겠지요. 이미 우리가 도착했을 땐 폐왕은 오래전에 죽은 이후였고 시체가 부패되는 시간이나 우리가 이제 막 왕성에 들어왔을 때를 생각하면 범인은 그 전에 왕성을 빠져나간 이후겠지요.”

“병력을 풀어 수도 근방으로 범인을 수색하는 게 어떻습니까? 왕녀전하께서 이 싸움을 승리하셨지만 왕녀전하 말고는 그 누구도 감히 국왕의 몸에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그건 큰 범죄이자 반역이기도 합니다.”

카타리아처럼 폐왕 역시 똑같은 고통을 맛보여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고통을 보여주기도 전에 이미 눈을 멋대로 감은 그의 모습이 너무나 화가 났지만 이미 손에서 떠난 죄인. 물론 그가 죽었다 하여, 그대로 눈감아줄 이유 따윈 없었다. 죽어서도 시체가 되어서도 그의 살점 하나, 뼛조각하나 용납할 수 없던 헤르세인은 폐왕의 시체를 절벽에다 버려 들짐승이나 야생 수리들의 먹이로 줄 것을 선언했다.

"폐왕이 죽었다하여 그의 시체까지 눈감아줄 마음은 털끝하나 없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인 에른스트 왕태자와 조부이신 선대 국왕폐하를 죽인 패륜의 왕. 한때 이 나라를 다스린 국왕으로서 죽음의 예우는 결코 없을 것이며 죽은 국왕의 시체는 사브레 왕국과 가장 멀리 떨어진 절벽에 버려 들짐승의 먹이로서 과거의 죄 값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헤르세인의 세력도 한때 윌리스를 지지하던 왕당파 귀족들도 모든 세력의 귀족들은 너나할 것 없이 그저 침묵으로 헤르세인의 선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국왕의 이전 그는 한때 귀족들조차 고개를 저을 만큼 국왕이 될 그릇이 못되었으며 그 어떤 사브레 왕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대의 패륜 왕자나 다름없기 때문이었다.

패륜과 함께 왕좌에 앉았음에도 신 왕당파의 굳건한 지지와 함께 기대를 걸었던 귀족들. 사브레 왕국을 좀 더 나은 왕국으로 바꾸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그 기대감은 실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죽은 선대 국왕보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던 사브레 왕국. 보이지 않는 실망감과 귀족들의 격정이 알게 모르게 아름아름 퍼져나갔으나 결국 그 절정이 몬테올 왕국과의 전쟁으로 터져버리고 만 것이었다.

그 누구 하나 폐왕의 시체에 대한 예우를 요구하는 귀족들은 없었다. 암묵적인 침묵으로 저마다 시선을 돌린 채 귀족들은 헤르세인의 선언을 받아들였다.

“더 이상의 단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체를 오랫동안 감식할 이유는 없겠지요. 부패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을 터.”

“그러면....”

“그날 모두에게 말했던 것처럼 시체를 처리하세요.”

“알겠습니다.”

죗값을 치루기도 전에 제 손이 아닌 타인의 손에 먼저 죽은 폐왕의 죽음이 헤르세인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죽은 시체를 가지고 난동부릴 수는 없는 법. 폐왕에 대한 처우는 이미 제 손을 떠났기에 헤르세인은 깔끔히 미련을 버렸다. 물론 그의 과거를 생각하면 역대 국왕들이 잠들어 있는 지하묘지에 안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무리 손에서 떠난 폐왕이라지만 그의 시체만큼은 죽어서까지 편히 보내고 싶지 않았다.

헤르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작 며칠이 지났을 뿐임에도 어수선한 것을 빼면 제법 평화로워진 왕궁내의 바깥 풍경을 볼 수 있었다.

“....”

대관식을 생각하면 얼마 남지 않는 촉박한 시간. 헤르세인은 목에 걸려있던 펜던트를 꺼내들어 나직이 속삭였다.

“어머니,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대관식 날 아버지의 뒤를 이을 제 모습을… 그리고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그 여자의 고통을....”

대관식을 일주일 앞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헤르세인은 모든 귀족들에게 대관식의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 공표했으며 죽은 폐왕 위스턴 때보다 더 작은 예산으로 진행할 것을 단호히 결정지었다. 몇몇 대귀족 중엔 그래도 한번 뿐인 대관식을 축소해선 안 된다고 반대의 의사를 비쳤으나 헤르세인은 그들의 의견을 처음부터 들을 생각이 없었기에 자신의 결정을 밀고 나갔다.

"몬테올 왕국과의 전쟁으로 현재 왕실의 예산은 좋지 않습니다. 더욱이 전쟁이후로 카타리아 왕후로 주도된 윌리스 왕태자의 탄일 연회로 백성들의 민심은 더욱 바닥을 향했고 고작 대관식 이유 하나만으로 없는 예산을 허투로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대귀족에 비하면 여전히 남아돌 왕실의 예산일지 모르겠으나 헤르세인은 대관식 자체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어차피 허례허식일 뿐인 의식. 대관식의 진행과 함께 귀족들과 어울릴 연회보다 어서 왕좌에 앉아 왕국을 안정적으로 진정시키는 것이 헤르세인에겐 가장 급히 꺼야하는 불과도 같았다.

다행이 헤르세인의 단호한 의사가 먹혀들었는지 대관식 축소를 반대하던 몇몇의 대귀족들도 결국 동의하며 한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관식 축소 말고도 헤르세인에겐 또 다른 문제가 눈앞에 봉착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대관식 때 입을 의식용 드레스. 대관식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기에 헤르세인은 평소처럼 제복을 입고 다녔지만 사실상 제복을 빼면 제대로 갖춰 입을 드레스가 없는 상태였다.

옷장에 있는 드레스라 해봤자 왕녀로서 입기에는 수수할 뿐인 존재감이 없는 드레스 뿐. 물론 헤르세인이 보기엔 수수한 드레스는 오히려 활동하기 편한 드레스 인지라 남들 시선이 어떻든 상관이 없으나 문제는 귀족들의 시선이었다. 현재 이 왕실에서 유일한 적통의 후계자라 할 수 있는 그녀의 존재.

빈센트야 왕자로서 자랐기에 늘 몸에 맞춘 의복들이 옷장에 넘칠 정도라지만 헤르세인은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진지한 자리에서 적당한 무게감을 갖출 드레스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제복을 하나의 몸처럼 생각하며 헤르세인은 왕성을 차지한 이후, 제복을 제대로 벗은 기억이 없었다.

왕실에서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란 디자이너를 모두 한데 모아 헤르세인은 하루 동안 인형 아닌 인형마냥 아이르리스의 지휘아래 몇 번이고 드레스를 갈아입길 반복해야 했다. 왕실 디자이너들이 만든 드레스들은 전부 카타리아의 취향이 들어간 것인지 너무 화려하거나 혹은 파이거나 아님 레이스가 과하게 들어가거나 확고한 취향이 들어간 드레스들이 대부분이었다.

더욱이 채도가 높은 색 위주로 드레스나 의복을 만들었던지라 헤르세인이 입기엔 이질적이기까지 해, 아이르리스는 결국 특단의 조취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래도 왕실 디자이너가 아닌 다른 디자이너를 고용해야할 것 같군요. 전하, 저만 믿고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전하께서도 흡족하실 디자이너를 구해오겠습니다!"

저를 만족하기 위함인지 그녀 스스로를 만족하기 위함인지 알 수 없으나 얼마 남지 않은 대관식을 앞에 두고 다른 디자이너를 고용해 대관식 드레스를 뚝딱 만들기란 쉽지 않았다. 말을 제대로 타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듯 드레스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날, 거짓말처럼 디자이너를 데려온 아이르리스의 놀라운 추진력에 헤르세인은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이런… 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개인 부티크를 운영하고 있는 알렌드로입니다."

딱 한번이었음에도 헤르세인은 알렌드로를 기억하고 있었다. 어찌 잊을 수 있을까. 절절히 사랑했던 그와의 기억을 떠올리면 당연하게도 머릿속은 잊고 있던 추억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덕분에 씁쓸하면서도 아린 기억이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헤르세인은 그가 제게 적극 추천한 드레스를 기억하고 있기에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대관식에 적당히 걸 맞는 드레스를 만들어주길 부탁했다.

“지금 그대의 눈에 들어오는 드레스들 전부… 카타리아 왕후의 취향이 많이 들어간 드레스들 뿐 이지요. 하지만 저렇게 화려하고 장신구가 가득달린 드레스보다 나는 대관식에 적당히 걸 맞는 드레스를 원할 뿐입니다.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제때 만들어준다면 지금 계약하는 가격보다 두 배로 더 드리도록 하지요.”

“두, 두배라니요. 가, 가당치 않습니다. 저어… 그보다 대관식 날짜가 정확히 언제쯤인지....”

“앞으로 일주일 후. 가능한지요?”

“이, 일주일 말씀입니까? 하하….”

아무리 이름난 디자이너라 해도 역시 일주일은 무리인지 알렌드로가 어색히 웃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만약 알렌드로가 정말로 거절한다면 대관식 드레스를 포기하고 지금 입고 있는 제복으로 대관식을 치러도 나쁘지 않을지도 몰랐다. 헤르세인 그렇게 생각하며 알렌드로의 답변을 기다렸지만 무슨 일인지 알렌드로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는 결의에 찬 얼굴을 하며 고개를 죽어였다.

“해, 해보겠습니다. 물론… 일주일 안에 왕녀전하께서 만족할 만한 드레스가 완성될지 저도 불안하지만… 전하께서 저를 믿고 맡겨만 주신다면 이 알렌드로, 최선을 다해 왕녀전하의 드레스를 완성할 수 있는 영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일 것 까진 없지만 다행히 거절하지 않고 흔쾌히 수락해준 알렌드로의 대답에 헤르세인은 안심할 수 있었다.

“왕성 내의 디자이너실과 수선실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왔다갔다 움직이는 것보다 한곳에 머물러 시간을 단축시켜 드레스를 만드는 것이 그대에게도 편할 테니까요. 또 상의할 것이 있다면 당분간은 아이르리스… 아니 그레이스 부인을 통해 얘기하도록 하세요. 그녀가 도와줄 것입니다.”

“저, 정말로 감사합니다. 왕녀전하!”

이로서 대관식 드레스 문제는 끝. 드레스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아이르리스에게 맡기며 헤르세인은 밤 낮 할 것 없이 침실이 아닌 집무실에 박혀 제 앉은키보다 높은 서류들을 처리해야만 했다.

전쟁과 더불어 윌리스 왕태자와의 싸움 전까진 각 지방에서 올라온 서류들은 전부 처리되지 않은 상태나 다름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윌리스 왕태자가 전부 손을 놓았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그만큼 왕성 내의 돌아가는 상황도 좋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몰랐다. 덕분에 헤르세인은 인생처음으로 서류더미에 파묻혀 일이란 것을 제대로 해본 경험을 쌓게 되었지만 사인에 사인을 거듭해도 도무지 줄지 않는 종이들을 볼 때면 헤르세인은 저절로 미간이 좁혀질 수밖에 없었다.

똑똑똑──.

한참 서류작업에 집중하고 있을 쯤, 정신을 깨우는 낯익은 문소리. 헤르세인이 고개를 들자, 문이 열리면서 라즐리가 조심스럽게 손님이 왔을 알렸다.

“전하, 빈센트 왕자전하께서 오셨습니다.”

“빈센트가?”

익숙한 라즐리의 목소리가 집무실 밖에서 빈센트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리자 헤르세인은 고민 할 것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쥐고 있던 깃펜을 내려놓았다.

“어서, 들여보내.”

다시금 문이 활짝 열리면서 라즐리보다 앞에 선 빈센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레이스 영지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다르게 왕성에 돌아온 이후, 꼬박꼬박 예를 갖춰 인사를 빼먹지 않는 빈센트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작게 입꼬리를 올렸다.

“소, 송구합니다. 아직도 업무 중이실 줄은 몰랐어요.”

“딱딱한 인사는 이제 그만하고 앉으렴. 오랫동안 내가 너를 찾지 않으니, 네가 먼저 나를 보러 와준 거구나.”

“예에… 그, 그보다 식사는 챙겨드시고 계시지요? 전보다 얼굴이 핼쑥해지신 것 같습니다.”

빈센트는 알고 있을까? 고작해야 얼굴을 본지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음을. 하지만 어린 나이를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나이이기에 헤르세인은 모른 척하며 빈센트의 말에 맞장구 쳐주기로 생각을 고쳤다. 어차피 일도 슬슬 집중력이 흐려지고 있었다. 이쯤이면 적당히 쉴 때가 된 것 같아 헤르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직까지 서있는 빈센트에게 함께 앉을 것을 대답했다.

“식사는 챙겨먹고 있으니 걱정 말고, 어서 앉으렴.”

“예, 누님.”

두 사람이 푹신한 소파에 앉고 때마침 트레이를 끌고 라즐리가 차를 따르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서로 마주보고 앉아 라즐리가 따라주는 뜨거운 찻물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입을 연건 빈센트였다.

“저, 누님….”

“음?”

“저어, 그게… 대관식 준비를 잘 하고 계시나 해서요. 또,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언제든 불러주셨으면 하고요.”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빈센트의 눈빛은 푸른 하늘처럼 빛나이었다. 그리고 바로 근처에서 빈센트의 말을 듣고 있었는지 차를 따라내는 라즐리의 입가 역시 부드럽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따뜻함이 헤르세인은 싫지가 않아 덩달아 같이 웃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그녀는 대관식을 치룬 그 다음의 미래를 생각해야 했다.

어쩌면 이 사소한 담소도 마지막이 될지 모를 시간. 라즐리가 담소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함인지 이미 차를 따라내고 조용히 자리를 비운 후였다. 헤르세인은 라즐리의 배려를 고맙게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빈센트를 불렀다.

“빈센트.”

“예, 누님. 말씀하세요.”

“빈센트, 나의 대관식이 온전히 끝나고 나면 앞으로 난 너의 작은 어리광조차 받아주지 않을지도 모를 거다. 그리고 또, 너의 지금의 작위도 바뀔 테고 왕성의 모든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게 모든 것이 바뀔 테지.”

한번 왕족으로 태어난 핏줄은 영원히 고귀할지도 몰라도 형제 중 누군가 왕위를 계승한다면 핏줄만 고귀할 뿐, 왕위를 계승한 왕을 빼면 그 어떤 왕족은 결코 왕성에서 함께 공존할 수 없었다. 특히나 빈센트가 이어받은 피는 패륜의 폐왕 위스턴의 핏줄이기 때문에 왕권이 안정되고 본격적인 정치가 시작된다면 온건파든 귀족파든 빈센트의 핏줄을 가지고 반드시 집고 넘어갈 귀족들이 나타날 것이었다. 물론 완벽한 대책을 세운 것이 언젠가는 부딪쳐야 될지 모를 산.

그 비난과 고통을 아직까진 어린 나이인 빈센트에게 겪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헤르세인의 바람이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생각해둔 것은 하나. 왕위 계승과 동시에 빈센트의 작위를 격하시키는 것. 나이가 차고 온전한 성인이 되어 작위를 격상시킨다면 그때의 빈센트는 이미 안정적으로 그 누구의 위협도 받지 않게 될지도 몰랐다. 거기까지가 현재 그녀가 세운 계획. 헤르세인은 오랫동안 찻잔에 머물고 있던 시선을 들어 오랫동안 저를 보고 있던 빈센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네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수도 근방으로 너를 보낼까 한다. 물론 네가 언제든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왕성의 문은 활짝 열어 둘 테니까 걱정은 하지 마렴.”

“걱정은요. 오히려 곧 누님과 떨어져 저 혼자 산다는 것이 조금 믿기지가 않아요. 언제나 생각은 했었거든요. 왕자로서가 아닌 귀족으로서 왕성을 나와 혼자 살아가는 제 모습을요….”

“두렵니?”

“조금은 두렵지만… 괜찮아요. 이게 제 운명이라면 저는 언제든 누님을 위해 모든지 할 것이니까요.”

아직은 어리기 때문인지 저를 위해 모든지 하겠다는 빈센트의 말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왕자로서가 아닌 귀족으로서 살아갈 빈센트가 본인만을 위해 새 삶을 살아가길 헤르세인은 바랐다.

“빈센트.”

“예, 누님.”

“내 도움을 바라거나 원하는 것이 있거든 언제든 찾아오렴. 네가 오는 왕성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을 테니까. 보고 싶을 때도 언제든지.”

더 이상 찻물의 표면위로 모락모락 올라가는 김은 존재하지 않았다. 미지근해질 때로 미지근해진 찻물을 들이키기 위해 찻잔을 든 헤르세인은 찻물의 첫입을 촉촉이 적셔낼 수 있었다. 혀끝에서 느껴지는 차의 특유 씁쓸한 맛과 끝에서 잠깐 사라지는 미세한 단맛. 하지만 씁쓸하기 보단 끝에서 사라지는 단맛이 유독 달게 느껴지는 동시에 헤르세인은 차의 온기가 전부 사라졌음에도 몸속에 스며드는 따뜻함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 대관식의 날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혹시나 대관식 드레스가 시간을 못 맞추지 않을까 싶었으나 단 일주일 만에 알렌드로는 놀라운 결과물을 헤르세인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어떠신가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긴 했으나 최대한 전하께서 만족하실 수 있겠끔 제 인생을 이곳에 갈아 넣었습니다.”

인생을 갈아 넣었다는 말처럼 알렌드로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생보단 영혼을 갈아 넣은 표현이 맞을 만큼 헤르세인의 눈앞에 있는 대관식 드레스는 훌륭할 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시켰다.

화려함을 죽이고 신비로운 분위기와 고귀한 분위기로 하여금 카리스마를 돋보이게 할 남색의 벨벳. 유독 밝거나 화려함을 싫어하는 헤르세인의 취향을 아이르리스가 알려주었는지 알렌드로는 채도가 낮은 남색의 천을 사용함으로서 분위기를 한층 기품 있고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또 양쪽 어깨를 부푼 부분과 쇄골을 드러나게 한 가슴 쪽의 부분은 금박의 자수로 박아 넣어 우아함을 극대화 시켰고 겹겹이 허리 아래로 퍼진 치마부분은 크게 부풀면서도 구김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천 하나하나에 신중을 가했다.

또, 가슴 중앙의 부분과 전신에 박아 진 작은 다이아들은 살짝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반짝반짝 빛을 냈고 하얀 모피로 드레스와 어우러진 땅을 끄는 망토는 그 누구도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위치를 나타나게 했다. 무도회에서 흔히 보았던 드레스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대관식 드레스. 헤르세인은 그가 만들어낸 드레스가 아니면 다른 드레스는 입을 수 없음을 자신할 수 있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의 취향과 성향을 잘 아는 드레스를 하나의 마법처럼 뚝딱 만들어냈기 때문이었다.

대관식 드레스를 입기 전, 헤르세인은 알렌드로에게 두 배로 올린 사례비를 주는 동시에 제안을 건넸다.

“혹시 왕실의 수석디자이너가 될 생각은 없나요?”

“예? 제, 제가 말입니까?”

“대관식 드레스가 무척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만 아마… 저 드레스를 입고나면 다른 사람이 만든 드레스는 결코 입지 못할 것 같아서요. 물론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어디까지나 내 욕심의 제안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내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재능을 살려 아낌없이 후원할 생각입니다. 이 왕실에서 당신의 재능을 썩히는 건 아까운 일이니까요.”

그 말이 알렌드로에겐 커다란 흔듦이었는지 잠시 눈동자가 흔들리던 알렌드로는 가장 기쁜 얼굴로, 그리고 가장 진지한 얼굴로 제게 허리를 굽혀 제안을 받아들였다.

“저에겐 저만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어떤 옷이던 그 사람의 몸과 얼굴 형태에 어울리는 드레스가 있음을. 그리고 하나의 드레스가 모두에겐 결코 어울릴 수가 없음을. 분명 어느 것 하나 전하의 마음에 모두 만족할 만한 드레스를 만들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입는 드레스를 모든 귀족들의 유행의 선도를 만들 순 있습니다. 이런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저는 전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작정 제안을 수락하는 것 보다, 자신의 신념을 뚜렷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풀어내는 알렌드로의 확답이 헤르세인은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어디서도 보기 드문 특이한 디자이너인지라 더욱 알렌드로가 왕실 수석디자이너가 된 것이 마음에 든 것인지도 몰랐다.

알렌드로와 아이르리스의 주도아래 시녀들이 바삐 움직이며 헤르세인은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시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헤르세인은 실로 오랜만에 치장준비로 상당한 정신력을 소비해야 했다.

물론, 드레스에 어울리는 장신구를 찾고자 알렌드로가 고개를 젓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헤르세인은 그럼에도 알렌드로의 선택에 따라 머리의 스타일과 장신구가 안정적으로 어울려지고 있음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마지막 귀걸이가 남았을 때, 헤르세인은 라즐리를 시켜 하나의 귀걸이를 가지고 오게 심부를 시켰다.

그리고 그 귀걸이를 다시 한 번 눈에 담아낸 순간, 헤르세인은 작게 숨을 들이켰다.

다시 찾은 귀걸이. 그리고 그가 제게 남긴 가장 소중한 것. 줄곧 보고 있음에도 루비보석은 흡사 그의 머리색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전하?”

라즐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헤르세인은 여전히 루비 귀걸이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손끝에 든 헤르세인은 이내 결심한 떨린 숨을 들이키며 라즐리를 향해 루비 귀걸이를 내밀었다.

“이것을 내 귀에 걸어주도록 해.”

“…예?”

라즐리는 헤르세인의 오랜 과거까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 머물며 적게나마 그녀를 꾸민 기억이 있는 라즐리는 헤르세인이 말한 그 의미가 얼마나 큰 결심인지 알고 있었다. 몇 번을 요구했음에도 단 한 번도 귀를 뚫지 않던 자신의 주인. 그리고 날카로운 것이 귓가에 닿기라도 하면 몸을 굳히는 습관을 본적이 있는 라즐리는 그때서야 알 수 있었다. 제 주인이 귀를 뚫고 싶지 않음을. 자신이 모를 아픈 과거가 있음을.

그래서 라즐리는 그날 이후, 최대한 조심스럽게 헤르세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그녀가 떨지 않도록 머리를 빗거나 모양을 바꿀 때 주의에 주의를 거듭했다. 그런데 루비 귀걸이를 내밀며 귓불을 뚫기 원하는 주인의 모습에 라즐리는 거부할 수 없었다.

“최대한 아프지 않도록 귀를 뚫겠습니다.”

금방 시녀들이 준비한 소독약과 귓불을 뚫는 바늘도구를 받아든 라즐리는 저가 귀를 뚫는 것이 아님에도 바짝 긴장이 탔다. 차가운 소독약이 적셔진 솜을 움직이며 귓불을 스칠 때, 라즐리는 움찔거리는 헤르세인의 어깨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멈추라는 말없이 귓불이 뚫려지길 기다리는 그녀의 인내심에 라즐리는 섬세히 바늘도구를 움직여 마침내 한쪽 귀를 뚫어낼 수 있었다.

“읏….”

“저, 전하! 괜찮으신가요?”

“괜찮아. 다른 한쪽도 서둘러줘.”

그녀의 어깨가 전보다 강직된 것이 느껴졌지만 라즐리는 다시 뚫리지 않은 다른 쪽의 귓불을 만지며 소독약을 열심히 발랐다. 그리고 적당한 자리를 찾아 바늘도구를 들어 섬세히 움직였을 때, 신음을 삼키는 헤르세인의 목소리를 들으며 라즐리는 마지막 루비 귀걸이를 걸어낼 수 있었다.

“전하, 다 됐습니다. 거울을 한번 보세요.”

헤르세인은 오랫동안 감고 있던 눈을 떠, 맞은편에 제 모습을 비추는 거울을 볼 수 있었다. 아직 머리위로 씌워지지 않는 틀어 올린 머리와 쇄골을 좀 더 드러낸 왕실의 가보, 솔루에 팬던트가 걸린 목 주변. 그리고 양쪽 귀에 똑같이 걸린 루비 귀걸이를 본 순간 숨을 들이켰다.

‘당신이 내게 준 귀걸이… 드디어 낄 수 있게 됐어….’

만약 이 모습을 그가 살아생전 보았다면, 과연 어떤 모습을 봐주었을까. 분명 틀림없이 미소를 지으며 그 어떤 모습이든 잘 어울린다고 그는 그렇게 대답할 것이었다. 그는… 루드비카는 그런 사람이니까.

헤르세인은 마지막으로 왕녀들이 중요한 자리에서 흔히 쓰는 백금의 티아라를 쓰는 것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준비할 것은 없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 왕위를 계승받는 절차만이 남아있을 뿐. 모두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을 때, 헤르세인은 비장한 목소리로 입술을 떼었다.

“문을 열도록. 대관식장으로 가겠다.”

대관식의 진행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을 무렵, 카타리아는 본래 머물고 있던 아비카 궁이 아닌 지하감옥으로 바뀌어 그때부터 온갖 형벌이 시작되었다. 의자에 앉아 전신이 포박된 것은 물론 혀 깨물고 자결하지 못하도록 입 막을 단단히 하여 뜨겁게 달궈진 인두로 하여금 카타리아는 생애 첫 끔찍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으──! 브으으으! 으으으읍──!”

피부를 지지고 또 다시 생살에 뜨거운 것으로 지진다는 것은 상당한 고통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럴 때마다 카타리아는 몇 번이고 기절하기 일 수였지만 헤르세인이 단단히 당부한 듯 고문관은 한 바가지 가득 카타리아에게 물을 끼얹으며 그녀를 강제로 깨우곤 다시 형벌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넷째 날까지 인두로 지져지는 고문이 끝나고 카타리아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또 다른 고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양팔이 쇠사슬로 포박된 채, 등을 내주며 고문관을 채찍을 맞는 고통은 더하다면 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카타리아는 몇 번이나 기절을 반복함에도 눈에 남아있는 독기만큼은 증오만큼은 버려낼 수 없었다. 마치 피 떡이 되어버린 살아있는 시체가 헤르세인을 저주라도 하는 것 마냥 카타리아는 모든 기력을 잃었음에도 미친 사람처럼 깔깔 웃으며 제 눈에 보이지 않는 헤르세인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죽어서도… 네 년을 저주하리다… 원귀가 되어서라도! 헤르세인…! 네 년을… 영원히! 저주 할 것이야! 아하하하하하하!!”

흡사 마녀와도 같은 카타리아의 모습에 감옥에서 그녀를 감시하던 감시병도 고문관도 어떨 땐 치가 떨릴 정도였다. 그 어떤 죄인도 카타리아만큼 정신을 줄을 놓을 것 같으면서도 놓지 않는 저주를 퍼붓는 모습은 웬만하면 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대관식 당일. 이번에도 채찍질을 위해 고문관이 움직이던 찰나, 지령을 받고 지하 감옥을 찾은 기사가 카타리아를 흘긋 보고는 서둘러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고문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반성의 기미 없이 왕족을 향해 저주를 퍼부은 죄인의 혀를 잘라내라는 헤르세인 왕녀전하의 엄명일세.”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에 있던 감시병도 고문관도 예상할 수 있었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 혀가 잘리는 것은 물론, 강도 높은 고문이 추가된다면 틀림없이 죄인은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러나 고문관은 망설이지 않았다. 지엄하신 왕녀전하의 명령이 내려진 이상, 그는 그저 고문관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할 뿐인 고문관일 뿐이었다. 고문관의 눈짓으로 주변에 있던 감시병들이 카타리아를 붙잡아 얼굴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켰다. 그리고 혀를 잘라낼 도구를 가지고 고문관이 그녀의 앞에 멈춰선 순간, 카타리아는 미친 사람 마냥 까르륵 웃으며 혀가 잘리기 전 온 몸에서 힘을 끌어 모아 저주란 모든 저주를 퍼부었다.

“내 반드시─! 헤르세인 네년을 죽일 것이다! 원귀가 되어! 악귀가 되어 너를 죽일 것이고!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네년을 죽일 수 있다면 난 모든지 할 것이다! 그래! 어디 내 혀를 자르고 온 사지를 잘라보아라! 네년은 결코 곱게 죽지 못할 것이다. 점차 병이 들어 그 젊음을 잃을 것이며 한시도 편할 날 없이 불안에 떨며 그 왕좌를 어떻게 버텨낼 것인지 내가 두 눈 똑똑히 악귀가 돼서라도 지켜볼 것이야!!! 헤르세인! 헤르세인───!”

그야말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최후의 발악. 한때는 찬란하게 빛나는 왕후였을지 몰라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처참히 몰락하여 마녀마냥 저주를 퍼붓는 죄인에 불과했다. 고문관은 더 이상 시간 끌 것 없이 일을 진행했다. 고막을 찢는 불쾌한 비명소리가 감옥을 울리고 비릿한 혈향이 주변 곳곳에 퍼졌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향해 동정을 주는 이들은 없었다.

“....”

오랜 고문 끝에 더 이상 목소리도 미동조차 꿈쩍 않는 죄인의 모습. 고문관은 식은땀을 닦아내며 예상한 눈으로 죄인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누가보아도 숨을 쉬지 않고 그대로 목숨을 다한 죄인 카타리아.

그렇게 그녀는 햇볕 한 점 들지 않는 지하감옥에서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